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한반도 경제

최수영 편



2012 KINU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연구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한반도 경제

최수영 편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한반도 경제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인 쇄 처 (주)현대아트컴

ISBN 978-89-8479-687-4 93340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목차

I. 머리말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6
II. 동북3성 진흥전략과 창지투 개발개방	9
1. 동북진흥전략 개관	12
2. 동북3성 개발계획 추진현황	21
3. 동북3성 진흥과 창지투 개발개방	31
III.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 추진현황	39
1. 두만강지역개발계획 평가	41
2. 창지투 개발계획의 추진배경	50
3. 창지투 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징	57
4. 창지투 선도구 개발 추진현황과 평가	64
IV.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변조선족자치주경제의 변화	71
1. 연변조선족자치주 개황	73
2.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적 위상	76
3.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남북한 경제관계	81
4. 창지투 개발계획에 따른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변화	95
V. 창지투 개발계획과 북·중 경제협력	105
1. 서언	107
2. 2000년대 지린성과 북한 간 경제협력	108

3.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간 경제협력 동향	117
4.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경제협력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	131
5. 소결	140
VI. 창지투 개발계획과 한·중 경제협력	143
1. 서언	145
2.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	147
3. 창지투 개발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	152
4. 창지투 개발과 한·중 협력	169
5. 소결	176
VII. 맺음말: 대북 경제정책에의 시사점	181
1. 북·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	183
2. 북·중 경제관계 심화의 영향	186
3. 대북 경제정책 방향	189
참고문헌	195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3

표.그림목차

[표 II-1]	동북지역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년) 목표	22
[표 II-2]	2011년 동북3성 경제지표	32
[표 IV-1]	중국 30개 소수민족자치주 GDP와 재정수입	80
[표 IV-2]	2009년 지린성 9개 도시 및 지역 경제지표	81
[표 IV-3]	최근 3년간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 현황	84
[표 IV-4]	북한의 대중국 무역 현황	85
[표 V-1]	중국의 지역별 대북무역추이(2008~2011년)	110
[표 V-2]	2011년 지린성의 대북 10대 수출상품	113
[표 V-3]	2011년 지린성의 대북 10대 수입상품	114
[표 VI-1]	중국 동북지역의 향후 경제발전 전망	153
[표 VI-2]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주요 내용	155
[표 VI-3]	지린성 국민경제 사회발전 12차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	159
[표 VI-4]	지린성 국민경제 사회발전 12차 5개년계획의 주요 목표 지수	163
[표 VI-5]	한국의 대지린성 교역추이	166
[표 VI-6]	한국의 대지린성 주요 수출품목(2011년)	167
[표 VI-7]	한국의 대지린성 주요 수입품목(2011년)	167
[표 VI-8]	한국의 대지린성 투자 규모	170
[표 VI-9]	한국의 대지린성 업종별 투자규모	171
[표 VI-10]	지린성 진출 주요 한국기업	172
[표 VI-11]	지린성 진출 유망 분야	175
[표 VII-1]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	183

[그림 IV-1]	옌벤조선족자치주 대외무역 현황(1991~2009) ..	83
[그림 IV-2]	옌벤조선족자치주 국가별 대외무역 현황	83
[그림 IV-3]	북한의 월별 대중국 수출 추이	86
[그림 IV-4]	옌벤지역과 북한 무역 현황	88
[그림 IV-5]	옌벤지역에 투자한 북한기업 상황	88
[그림 IV-6]	옌벤지역에 투자한 한국기업 상황	89
[그림 IV-7]	옌벤지역과 한국간의 무역 현황(2000~2009.6) ...	90
[그림 IV-8]	최근 옌벤지역과 한반도 무역거래 변화	91
[그림 IV-9]	1949~2010 옌벤조선족자치주 총생산액 변화 ...	97
[그림 IV-10]	1949~2010 옌벤조선족자치주 산업별 발전변화	98
[그림 IV-11]	1990~2010 옌벤조선족자치주 산업별 발전변화	99
[그림 IV-12]	1990~2010 옌벤조선족자치주 대외무역 발전변화	99
[그림 V-1]	2000년대 지린성의 대북무역액	109
[그림 V-2]	중국의 지역별 대북무역추이(2008~2011년)	110
[그림 V-3]	2000년대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지린성의 비중 ...	111
[그림 V-4]	2000년대 지린성의 대북무역과 옌벤(延邊)의 대북무역액	112
[그림 V-5]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 누계액	115
[그림 VI-1]	한·중 무역추이	148
[그림 VI-2]	한국의 대중 투자 추이	149

요약

중국은 2003년부터 동북3성 노후중공업기지를 새로운 중공업기지로 부활시키고 동북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동북진흥(東北振興)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창지투 개발과 동북진흥전략을 전략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창춘(長春)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창지투> 영역을 단일 경제벨트로 묶어 동북진흥의 한개 축으로 하는 동북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성장축으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두만강지역의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협력에서 교량역할과 증개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내의 산업형성은 한·중 간 새로운 산업협력 및 대중투자기회를 제공한다. 창지투 계획의 시행에 따라 북한의 라선시를 창구로 하는 두만강지역협력개발, 러시아 원동지역의 발전계획 및 한국 동해연해안지역개발, 일본, 몽골 등 주변국가의 발전계획 등 새로운 두만강지역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에서 중점 프로젝트로 떠오르는 물류, 교통망 건설은 동북아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연변자치주지역경제발전에도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한다. 창지투 계획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창지투 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2009년 두만강개발계획 요강이 발표된 이

래 지린성에서는 “두만강 출해관광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다양한 관광코스들을 개발함으로써 두만강지역 다국 관광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나선지역으로의 진출은 북한 북동부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에도 적극적인 추진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동북3성과 더불어 동북아 자원물류 거점 및 환동해권 물류중심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이 지역에는 한국기업 전용공단이 개발되어 있어 중국시장 출로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북한시장 진출에도 용이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전개하는 창지투 계획의 두만강 이니셔티브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이익의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창지투 계획은 우리의 대북 경제정책에 중국을 활용할 것을 시사한다. 한국은 대북 경제정책을 중국과의 협력 및 동반자적인 관계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 남북경협은 북·중 경제협력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보완·협력하는 구도로 추진해야 하고, 북·중 경제협력 사업을 다자간 국제협력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한·중 경제관계의 영역을 중국 동북부 지역 개발과 연계해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색어: 동북진흥전략, 창지투개발계획, 연변조선족자치주, 두만강지역개발

Abstract

China's Changchun-Jilin-Tumen Developmental Plan and the Economy of the Korean Peninsula

China has been actively pursuing Northeast Revitalization strategy to vitalize the economy of Northeast Asia.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open development has arisen as a new venue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as the plan was implemented, newly aspiring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is about to realized.

The economic influence of China on North Korea has become more intensified as Changchun-Jilin-Tumen developmental plan was pushed forward. This will thus affect the structural changes in industries in northeastern areas of the North and stimulate open reform in the North.

Instead of Korea directly responding to Tumen River initiative of Changchun-Jilin-Tumen plan which is strategically led by China, it is required to seek interests of both countries. Changchun-Jilin-Tumen plan is part of China's Northeast Revitalization strategy which implies that Korea's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will extensively utilize China.

Key words: Northeast Revitalization strategy, Changchun-Jilin-Tumen developmental plan,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I. 머리말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세계 정치·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동북진흥전략을 앞세워 동북부 지역 개발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 경제 질서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2009년부터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을 전면으로 내세워 지린성을 중심으로 동북지역의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해 왔다. 이런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불러 왔고 북한은 경제적 고립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한층 강화해 왔다. 비록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북·중 경제관계의 확대 배경에는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중 경제관계의 확대는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북한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무역부문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수준으로 높아졌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남북교역 제외)이 25% 정도였으나 10년이 지난 2011년에는 90%에 육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소비재는

물론 에너지, 식량 등을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로 바뀌고 있다.

투자부문에서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매우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북투자는 일부 제조업 중심으로 소규모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동북진흥계획이 추진되고, 창지투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 위주의 대북투자는 동북3성 개발과 맞물려 북·중 양국 간 접경지역 개발로 이동하는 중이다.

창지투 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북·중 경제관계는 한층 긴밀해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2009년부터 사망 전까지 3차례 중국을 방문해 양국 간 현안문제, 특히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와 접경지역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북·중 양국은 접경지역을 동서로 나누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쪽지역에서는 나선시를 중심으로 이 지역과 중국 훈춘을 연계해 개발한다는 구상 아래 양국 연결도로의 보수 및 확장, 나진항 개발이 진행 중이다. 서쪽 지역에서는 신의주의 위화도·황금평을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기 위한 중국과의 사업이 시작되었고, 양국을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 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중국 동북지역,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가 포함된 지린성의 잠재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부 한국기업들은 동북지역에 관심을 두고 이 지역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중국 남부 등 개방지역에 대한 투자에서 동북3성 지역으로 투자지역을 넓히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창지투 개발계획에 따라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의 경제적 위상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북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은 북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공동으로 북한 북부지역 개발에 나서면서 과거 유엔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에 의해 추진된 바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제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중국의 지원과 협조 아래 새로운 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이 추진하는 창지투 개발계획이 중국 동북 지역과 북한 북부지역, 나아가서 한반도 경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계획이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이 연구는 1장부터 7장까지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간단히 언급하고, 연구의 구성과 내용을 살피고 있다.

제2장에서는 ‘동북3성 진흥전략과 창지투 개발개방’을 다루고 있다. 우선 동북진흥전략의 배경, 주요 내용 및 의미 등을 개관한다. 이어 동북3성 개발계획 추진현황을 개발계획, 추진현황, 향후 과제의 순으로 살펴본다. 동북3성 진흥과 창지투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동북3성 진흥의 성과를 살핀 후 동북3성 개발과 창지투 개발을 연계해 창지투 개발이 동북3성 개발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제3장은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을 전개과정, 성과 및 제약 요인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전략,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발전전략, 심양경제구 국가종합세트 개혁실험구, 공서북부만경제구 발전계획, 중국 지역개발의 총체적 추세 등을 통해 창지투 개발계획의 추진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창지투 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징에서는 <계획요강>의 내용, 새로운 두만강지역협력 개발계획의 특징, 창지투 선도구와 두만강 개발계획의 차이점을 다루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 개발 추진현황과 평가에서는 계획 추진현황, 연변지역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 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제4장은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변조선족자치주경제의 변화’이다. 우선 개략적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에 대해 개관한다. 다음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중국 내에서 갖는 경제적 위상을 살피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남북한 관계에서는 연변의 대외경제협력 현황을

언급한 후 이를 연베-북한, 연베-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보다 자세히 고찰한다. 연베지역과 한반도 간 경제협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창지투 개발계획에 따른 연베조선족자치주의 변화는 두만강 개발계획과 함께 하는 연베경제 및 창지투 이후 연베경제에 대한 전망을 통해 조망한다.

제5장은 ‘창지투 개발과 북·중 경제협력’이다. 이 장에서는 2000년대 지린성과 북한 간 경제협력을 다루면서 지린성 대북무역의 특징과 대북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으로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간 경제협력 동향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의 구성과 계획의 구체화, 훈춘국제합작시범구 설립, 북·중 변경 관광의 활성화, 기초시설 건설 추진동향, 농업시범구 건설 및 선도구내 자본유치 성과를 다루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간 경제협력의 대북경제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북한 동북부 인프라 개선, 나진항과 청진항의 역할 증대, 북한 관광업의 활성화, 북동부지역 산업구조 변화, 외국인 투자유치 개혁·개방 추진 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창지투 개발계획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제6장에서는 ‘창지투 개발계획과 한·중 경제협력’을 논하고 있다. 서언에 이어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를 소개한다. 이어 창지투 개발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를 자세하게 짚어 본다. 여기에서는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전략적 함의, 지린성 12·5계획과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경제발전, 지린성과 한국의 경제관계 변화를 심도 있게 살피고 있다. 창지투 개발과 한·중 협력에서는 한국의 대지린성 투자현황, 창지투 개발과 한국의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소결에서는 창지투 개발계획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을 요약 정리한다.

마지막 맺음말에서는 ‘대북 경제정책에의 시사점’을 논한다. 여기

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와 북·중 경제관계 심화의 영향을 살펴보면서 대북 경제정책에의 시사점을 찾아본다. 그리고 대북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중국과의 협력 및 동반자적인 관계를 전제로 수립, 남북경협은 북·중 경제협력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보완·협력하는 구도로 추진, 북·중 경제협력 사업을 다자간 국제협력 사업으로 확대·발전, 한·중 경제관계의 영역을 중국 동북부 지역 개발과 연계해 확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들과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책임자는 최수영(崔壽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며 제1장과 제7장을 집필하였다. 제2장부터 제6장까지는 연변대학교 교수들이 맡아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은 김성남(金成南, 연변대 교수), 제3장은 이종림(李鍾林,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원장), 제4장은 현동일(玄東日, 연변대 교수), 제5장은 림금숙(林今淑), 연변대 교수, 제6장은 윤승현(尹勝炫, 연변대 교수) 교수가 책임 집필하였다.

II. 동북3성 진흥전략과 창지투 개발개방

중국정부는 2003년부터 동북3성 노후 중공업기지를 새로운 중공업기지로 부활시키고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동북진흥(東北振興)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9년간의 동북진흥전략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속도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고, 질적인 효과에서도 매우 큰 개선을 가져왔다. 총체적으로 동북진흥 전략의 다양한 정책 실시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남에 따라 동북지구 노(老)공업기지 경제발전은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동해진출 통로가 없는 동북지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2009년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계획 강요 창지투(長吉圖) 개발개방 선도구”를 국가전략으로 인준하였다. 중국은 2010년부터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함에 따라 동북지구의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는 중국이 창춘(長春)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창지투’ 영역을 단일 경제벨트로 묶어 동북진흥의 한개 축으로 하는 동시에 이 지역을 동북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성장 축으로 육성하며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1. 동북진흥전략 개관

가. 배경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뒤를 이어 추진된 동북진흥전략(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개발)은 낡은 공업기지를 혁신하고 장비제조업, 금융과 정보기술(IT), 바이오 기술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동북지역을 국가의 신성장 축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동북지역을 선전(深川) 중심의 주장(珠江)삼각주, 상해 중심의 창장(長江)삼각주, 북경·천진 지역의 환발해 경제권에 이어 중국경제 제4의 축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북노공업기지는 1950년대 국민경제 회복시기에 형성되었다. 당시 중국은 전략상 구소련이 중국을 지원하여 건설한 156개 대상 프로젝트에서 58개를 자원이 풍부한 동북3성에 안배하였다. 이러한 중점 대상들은 주요하게 기계장비, 석유화학공업, 건축재료, 석탄 및 야금 등 산업으로서 장춘, 심양, 다롄, 하얼빈, 길림과 치치할 등 중공업 도시를 포괄해 동북노공업기지를 형성하였다.

진국 이래 동북지역은 중국 전국 공업생산액의 25% 이상을 창조하였다. 당시 동북지역의 자동차, 석유, 석탄 생산량은 전국의 선두였고, 전력기계설비는 전국의 3분의 1, 야금설비는 전국의 4분의 1, 공작기대 생산량은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동북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공업기지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임업생산기지 및 상품 식량 생산기지이기도 하였다.¹

개혁·개방 초기 동북3성의 1인당 GNP는 전국의 수준보다 높아

¹ 劉繼生·丁四保主編, 『“中國東北論壇”2003--東北老工業基地的改造与振興』(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3).

1978년 라오닝(遼寧)성은 전국 수준의 179%, 헤이룽장(黑龍江)성은 149%, 지린(吉林)성은 100.5%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1992년 라오닝성과 헤이룽장성은 각각 162%와 110%까지 하락하였다. 1978년 동북3성의 GNP 수준은 광둥(廣東)성이나 푸젠(福建)성보다 높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역전되어 2001년 동북3성의 국내 생산총액이 10626.6억 위안으로 광둥성 1개 성과 겨우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² 그 주된 원인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안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과중한 부담이다. 동북지역의 문제점은 기존의 계획경제 시대에 정치적·사회적 책임까지 떠맡고 있던 기업(企業辦社會)이 경제적 주체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 우선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인 재정보조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정책성 은행대출로 전환되고(撥改貸), 국가가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차 은행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국유기업 파산이 늘기 시작했다.

둘째, 국유기업의 시장경제 적응성 부족이다. 동북지역 대부분의 국유기업은 중앙의 부(部)와 성(省)소속의 중대형 국유기업으로 역사가 오래되어 설비가 낙후되었고 자원이 고갈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불량자산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1980년대 부분적 개혁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장경제 개혁이 심화되면서 국유기업은 중국시장 장악을 위한 초국적 기업과 민간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사영기업 등 비국유기업과의 경쟁적 압박에 놓이게 되었다.

지린성의 예를 들면, 공업기업 장비의 15%만이 1990년대 이후의 수준을 갖추었고, 60% 이상은 1970~80년대 수준, 15%는 1950~

2.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중국통계연감 2012』 (중국통계출판사, 2003)에 의한 정리.

6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과도한 채굴로 인한 자원고갈의 위기에 봉착한 도시가 상당히 많았다. 랴오닝성 푸신(阜新)시의 경우 자원고갈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액은 15억 위안에 달했고, 우순시의 경우 5개의 주요 석탄광 중 2개가 폐쇄되었고 나머지 역시 생산량이 대폭 감소되는 추세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유기업이 적자와 파산을 면치 못하고 시장경제의 적응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³

셋째, 국유기업의 역사적인 채무부담과 사회보장 시스템의 결여이다. 과거 계획경제시대에 단위복지시스템에서 유예된 노동자 임금에 대한 역사적 채무의 문제로서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도시지역은 기업소 단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정책이 실행되었다. 이 체제는 기본적으로 종신고용, 저임금, 완전복지의 특징을 지니며 당시 저임금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현재의 기여를 임금의 형태로 보상받지 않고 미래의 복지혜택으로 받아왔기 때문이다.

동북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복지단위로서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단위복지라는 형식에서 저평가되고 유예된 노동자 임금에 대한 역사적 채무를 다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뒷받침 없이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발전을 저해하는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압력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게 된다면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또다시 실패로 끝나게 된다.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1996~2000년까지 랴오닝성의 실업률 증가속도는 전국 평균의 2.3배에 달하였고, 지린성은 9배에

3. 『북경청년보』, 2003년 9월 8일.

달했다.⁴ 국유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가 많았는데, 1998~2000년 랴오닝성의 퇴직 근로자는 125만 명으로 이 중 국유기업이 80여만 명을 차지하였다. 지린성은 2002년 한 해 동안 정리실업 노동자 규모가 24만여 명으로 이 중 국유기업이 19만 명에 달해 전체 정리실업 노동자의 78.3%를 차지하였다.⁵ 더구나 실직한 노동자가 3차 산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농촌으로 돌아가 생활수준이 점차 하락하면서 빈민층이 양산되고 사회 불안정 요소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푸신(阜新)시의 경우 정리실업 노동자가 15.5만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극빈(特困) 주민은 20만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다.⁶

2002년까지만 해도 동북지역은 면적, 인구, 공업 총생산액, 고정 자산 투자에서 전국의 8.5% 수준을 접하며, GDP는 9.8%로써 1인당 소득 수준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과거부터 오랫동안 중국 내 중공업기지 역할을 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체제 개혁이 심화되면서 점차 하향 추세에 놓이기 시작한 것이다.

2003년에는 실업인구가 전체 도시인구의 18.1%를 접하는 등 동북지역의 경제상황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1978년 개혁·개방 초기 동북지역의 공업 총생산액은 17%를 달했다. 당시 랴오닝의 GDP는 광둥성의 2배였지만 2003년에는 광둥성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동북지역 공업은 국유기업 비중이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고, 중공업 분야에 치중하며, 외자기업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4. 丁四保, 『“中國東北論壇”2001--跨世紀的中國東北經濟(論文集)』(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2), pp. 13~14.

5. 劉繼生·丁四保主編, 『“中國東北論壇”2003--東北老工業基地的改造与振興』.

6. 『북경정년보』, 2003년 9월 8일.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홍콩, 미카오, 대만 등의 화교계 기업 비중도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더라도 국유기업과 중공업 분야의 영향으로 대형기업 비중이 매우 높았다. 국유 비중이 높고 민영화와 시장경제화가 뒤늦은 것이 체제문제라면, 중공업과 대형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산업구조 문제로서 두 문제가 서로 맞물려 그동안 동북지역의 상대적 낙후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연해지역은 경공업 분야의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을 위주로 일용생활품에서 내구재의 내수수요와 수출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반면 동북지역은 국가의 기간산업인 중공업 위주였기 때문에 민영화와 시장경제 발전이 매우 더디었다.

이러한 동북지역의 문제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영화를 목표로 하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산업구조조정을 통하여 동북 중공업의 우위성을 되살려 낙후된 중공업기지를 새로운 중공업기지로 부활시킨다는 목표를 내놓은 것이 바로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이다.

나. 주요 내용

2002년 9월 중국공산당 제16기 대회에서 ‘옛 공업기지’ 동북지역(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에 대한 중점 개발 방침이 정해졌다. 이후 중앙정부에 의해 610억 위안(약 9조 원)에 이르는 100대 프로젝트가 승인되는 등 중국정부의 동북지역개발 정책이 속속 출범하였다.

중국 중앙정부는 2003년 “동북진흥”의 국책을 내놓았고 2007년 국무원은 <동북지구진흥규획>을 내놓았다. 또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세하에서 동북지역의 전면 진흥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9년 국무원은 <진일보 동북지구 등 공업기지 진흥전략에 대한 약간 의견>, 즉 33호 문건을 정식 반포하였다.

동북진흥전략의 개괄적인 내용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동북3성 국유기업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자원 의존적 산업을 조절하여 기업의 기술과 설비의 낙후 현상을 극복하고, 노후화된 공업기지를 혁신하여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즉, 중국 연해지역의 자본과 외자유치를 통해 전통적으로 중공업 기업이 밀집된 동북지역의 산업구조를 혁신함으로써 연해도시의 경공업 위주 발전에 이어 중공업 발전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과거 국유기업 위주의 투자와 생산방식에서 다차원 개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남부연해경제발전지역의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추진하고 기업의 주식화를 통해 비국유기업의 진입 및 성장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시장경제이념과 선진관리기법을 배우고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해 외지로부터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유학생 등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제도개혁을 통해 공정경쟁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동북노공업기지와 주장삼각주, 창장삼각주, 환발해 경제권과의 차이 점은 동북지역이 국유기업에서 길러져 온 관념상의 경직성이 존재하고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거시경제의 조정, 양호한 산업인프라 구축, 공정한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인 체제를 정비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진입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동시에 완벽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통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산업구조 조정을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의 주요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전통산업은 신기술로 개조하고, 현대적인 농업과 금융, 물류, 서비스산업 등 3차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특히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비중을 낮추고 비국유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진다.

동북지역의 장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조선공업, 자동차산업, 하이테크산업, 농산물가공업, 군수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는 산업정책, 금융, 세수 등 방면에서 다양한 우대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민간 자본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르는 유희인력을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 균형 발전을 적극 도모해 왔다.

넷째, 지역적인 신용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기초는 신용경제이므로 신용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어느 지역의 신용도가 높으면 그 지역의 업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개인, 기업, 지역 모두에게 신용은 무형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동북지방이 '신용도'라는 브랜드를 갖게 되면 국내외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정책의 안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신용관리, 신용불량자에 대한 조치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한다.

다섯째, 동북진흥은 지역의 발전과 주변국의 발전에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동북3성간의 경제발전 요소에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차이점도 있으며 상호 보완할 분야도 있다. 따라서 산업배치 및 자원배분에 있어서 행정구역상의 한계를 초월하여 각 성의 우위를 충분히 살리고, 특히 유사분야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규모화·그룹화를

통해서만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동북진흥의 지속적 조치로서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전략과 지린성의 창지투 개발개방전략의 전면 실시는 동북지역의 대외개방을 심화하고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며 주변국의 발전에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

다. 의미

앞서 언급하였지만 개혁·개방전인 1978년 광둥성의 경제총량은 랴오닝성의 80%였다. 동북진흥전략을 실시하기 전인 2002년 동북3성의 경제총량은 광둥성의 85%밖에 되지 않았다. 이 시기 동북노공업기지는 오랜 기간 쌓여 있던 체제성, 구조성의 모순이 점점 드러나 많은 국유기업이 곤경에 빠졌다. 대량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으며 지역경제가 침체상태에 처한 이른바 “동북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중국 중앙정부가 동북지역 경제부흥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의 경공업 중심의 한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경공업 주도발전 모델은 과거 계획경제 시기의 중공업 발전 모델에 대한 수정을 통해 그동안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자원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전력, 고급 철강, 화학원료, 에너지 부족 문제 등의 전반적인 부족현상이 심해지면서 경공업 위주 공업화는 원료, 중간재 등 중공업제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거나 혹은 경쟁력이 낮은 국산보다는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중공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최근 중국 수출품의 구조가 첨단산업 등 생산우회도가 높은 자본

집약적인 제품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제까지 의류와 식품 등 생필품에서 일부 내구재에 집중되어 오던 주민의 소비패턴도 최근 들어 점차 이동전화, 컴퓨터 등 IT산업 제품과 주택, 자동차 쪽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패턴변화에 따라 화학·철강 원료, 에너지 등 소재, 부품 등 중간재, 설비 등 자본재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이들의 수입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에서 매년 700억 달러 상당의 플랜트 설비를 수입하고 있고, 이 중 석유화학공업용 설비는 80%가 수입품이다. 중국에서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광섬유 제조설비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지역의 진흥전략은 이와 같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공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수입기계류를 국산품으로 대체하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공업 부활이라는 동북지역 개발 목표는 단순한 지역격차 시정이라는 요구가 아닌 중국의 지속적인 고성장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중국의 공업화 단계는 그동안의 경공업 위주 공업화에서 경·중공업의 동시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료, 제조장치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공정인 ‘풀 세트형 산업기반’을 갖춘 동북지역 중공업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다.

물론 동북진흥을 제약하는 체질적, 기질적, 구조적 모순 등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개혁을 한층 심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유 삼림구 개간, 지역의 대형기업 개조 등은 현재의 기반을 토대로 향후 새로운 돌파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지역의 기술혁신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중소형 기업 발전에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 지역 내, 도시와 농촌사이, 산업지역 간 구조성 문제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동북3성 개발계획 추진현황

가. 개발계획

중국정부는 2011년 8월 20일 <동북진흥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그동안 연해지역 발전·서부대개발·중부지역 쉼기 등 복수의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목표나 프로젝트까지 포함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동북3성에 한정되어 온 ‘동북진흥’에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인 유대관계가 높은 내몽골자치구의 동부지역을 편입시키고, 랴오닝성과 다롄의 경제부흥 전인차 역할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발표된 <동북진흥 추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중 시행된 공업·농업·서비스업·지역 간 협조 등 분야별 정책을 설정하였다. 이것은 2003년 10월 시작 이후 현재까지의 동북진흥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총괄해 지역 보호주의 타파, 인프라 건설, 자원 이용의 상호 보완, 시장의 일체화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북지역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목표는 1인당 총생산(GDP)을 연평균 7.4%로 성장시켜 2010년에는 2002년 대비 2배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외에도 GDP에서 차지하는 3차산업 비율 확대, 단위당 에너지 소비 감소, 오염물질 배출 감소, 경지 확대 등의 구체적 계량목표를 설정하였다.

동북진흥정책의 향후 10~15년간의 목표는 ‘4개의 기지와 1개의 보장구(국제 경쟁력을 갖춘 설비 제조업기지, 신형 원재료와 에너지 보장기지, 상품 곡물과 농축산업의 생산기지, 기술 연구 개발과 혁신기지, 생태 안전 중요 보장구)’를 형성해 경제발전 수준이 비교적 높은 중요 경제성장 구역으로서의 지위 확립을 설정한 것이다.

[표 II-1] 동북지역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년) 목표

구 분	지 표 (단위)	2005년	2010년	목 표
경제성장	1인당GDP (위안)	15,318	21,889	7.4
	식량종합생산능력 (만 톤)	8,614	9,450	1.9
경제구조	GDP중 제3차산업 점유율 (%)	38	41	(3)
	GDP중 비공유제 점유율 (%)	36	48	(12)
	GDP중 연구개발비 점유율 (%)	1.3	2	(0.7)
	도시화율 (%)	52	55	(3)
에너지, 환경분야	단위GDP당 에너지감소율 (%)	-	-	(20)*
	단위공업생산액당 물소비감소율 (%)	-	-	(30)*
	경지보유량 (만 헥타르)	2,548	2,553*	(0.2)
	주요 오염물질배출 감소율 (%)	-	-	(10)*
	공업고체폐기물종합이용율 (%)	51.9	60초과*	(8.1)
	삼림복개율 (%)	34	38*	(4)
사회발전	도시등록실업율 (%)	4.2	5미만	(0.8)
	도시기본양로보험가입자수 (만 명)	2,550	3,270*	(5.1)
	신형농촌합작의료율 (%)	-	80초과*	-
	국민평균교육연수 (년)	9	10	(1.0)

주: ()은 5개년 합계, *는 필수목표 수치

2012년 3월 2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에서 “동북진흥 ‘12·5’계획”을 정식 허가하였다. ‘12·5’계획은 동북지역을 국제경쟁력을 가진 장비제조업기지, 국가신흥원자재와 에너지보장기지, 국가 주요 상품식량기지와 농업, 목축업 생산기지 및 주요 기술연구개발과 혁신기지 및 동북아를 향한 대외개방의 중요한 중심지로 육성한다고 했다.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권위인사는 ‘12·5’계획은 과학발전과 구조조정 발전의 주제,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의 두 가지 동력기제, 민생 보장과 개선이라는 근본 목표를 더욱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 계획은 ‘12·5’ 시기 동북지역의 경제, 사회, 민생, 생태 등 영역의 새로운 목표를 제기했다. 도시화율은 60%, 서비스업 성장률은

40%, 식량 종합생산능력은 1조 2,640만 톤, 삼림피복률은 37.5%에 달하게 한다고 했다.

민생방면의 주요 목표로 도시주민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당 순소득의 성장폭을 경제성장속도보다 높게 잡고 있다. 도시 취직율을 적극 추진하고, 실업률을 5% 이하로 통제하며, 신축 보장성주택을 310만 채 짓고, 단층집 구역개조를 전면적으로 완성하며, 9년제 의무교육의 보급률을 98.5%에 달하게 한다.

또한 이 계획은 동북지역에 존재하는 체제성, 메커니즘성(机制性), 구조성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둘러싸고 개혁·개방을 동북 전면진흥을 추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동북진흥계획은 '12·5' 시기 동북진흥의 중점임무를 명확히 제기했다. 국가는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삼고 현대농업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킨다. 농촌의 생산과 생활조건을 적극 개선하고 부유하고 살기 좋은 새 농촌을 건설하며 현대산업체계를 완벽히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공업구조를 최적화하고 발전시키며,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서비스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지역발전의 지역 분포를 최적화하고, 산업의 집약적 발전을 추진하며,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에 의한 지역 혁신능력을 강화한다.

기타 중점임무로서는 자원형 도시의 지속발전을 추진하며, 관련 산업과 대체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제 해결에 힘쓰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시스템을 확립한다. 동시에 기초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완벽한 종합교통 운수시스템과 다원화 청결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삼림, 초원, 습지와 하천 유역 등 중점생태구의 보호, 치유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자원절약과 에너지 절약 사업을 강화한다. 다양한 조치로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단층집 구역개조 및 보장성 주택거주 환경을 개선한다.

국유기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국유림구와 농업개간지 체제개혁을 추진하며, 대외개방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높이고, 동북아지역 개방과 동북아경제협력의 허브로 육성한다.

나. 추진현황

동북3성 개발계획의 추진현황을 제11차 5개년 계획의 집행 상황과 2011년 동북3성의 경제성장 현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1)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11년 동북3성 지구 생산총액은 4조 5,060억 위안으로 그 전 동 시기에 비해 12.6% 성장하였다. 2010년보다 1%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비교적 높은 발전속도를 유지하였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은 지난 시기보다 각각 12.1%, 13.7%, 12.2% 성장하였으나 2010년보다는 1.9% 포인트, 0.1% 포인트, 0.4% 포인트 하락하였다.

2011년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GDP는 각각 2조 2,025억 위안, 1조 531억 위안, 1조 2,504억 위안에 도달해 전국의 제7위, 제22위, 제16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성의 GDP는 각각 5.1만 위안, 3.8만 위안, 3.3만 위안(같은 시기 전국 평균 GDP는 3.5만 위안)으로 전국의 제8위, 제11위, 제17위를 차지하였다.⁷

7.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중국통계연감 2012』 (중국통계출판사, 2012) 수치에 의한 정리.

이러한 성장은 중국의 동부 연해지구의 성장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다.⁸ 도시와 향진의 주민가정 1인당 가치분소득(城鎮居民家庭人均可支配收入)을 예로 들면, 2009년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3성은 각각 1만 5,761위안, 1만 4,006위안, 1만 2,566위안으로 모두 전국 평균수준 이하로 평균수준의 91.8%, 81.6%, 73.2% 정도였다. 그렇지만 ‘11·5’ 시기 수치에 의하면 ‘11·5’의 앞선 4년 간 동북3성 생산총액의 증가속도는 연평균 13.4%로 이는 중국의 4대지역 중 1위이며 동부, 중부 및 서부보다 0.86% 포인트, 0.63% 포인트, 0.03% 포인트 높았다(동부, 중부, 서부는 각각 12.54%, 12.77%, 13.37%).

(2) 농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 동북3성 식량 생산량은 2,155억 근으로 전국 양식 생산량의 18.9%를 차지하였다. 2010년보다 209억 근을 증산하였으며 전국 식량 생산의 성장에서 43.4%를 차지하여 국가의 식량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축산물 생산량도 성장해 전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1.4% 감소하는 상황에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각각 0.3%, 1.8%, 2.1% 성장하였다. 랴오닝성의 해양업 부가가치가 500억 위안을 돌파하였다.⁹

(3) 공업경제는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3성의 규모 이상 공업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각각 14.9%, 18.8%, 13.5% 성장하였다(전국 평균 성장속도는

8. 위의 책.

9. 遼寧省統計局, 『요녕성통계연감 2012』(중국통계출판사, 2012); 吉林省統計局, 『길림성통계연감 2012』(중국통계출판사, 2012); 黑龍江省統計局, 『흑룡강성통계연감 2012』(중국통계출판사, 2012)에 의한 정리.

13.9%). 이들 3성의 규모 이상 공업은 각각 1,546억 위안(1~11월), 1,000.7억 위안, 1,155.9억 위안(1~11월)의 이윤을 달성하고, 전년 대비 25.8%, 25.9%, 21.0%(전국 평균 24.4%) 성장하였다.¹⁰

(4)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1년 랴오닝성의 서비스산업 성장속도는 같은 시기 지역 생산총액의 성장속도보다 높았다.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서비스산업은 각각 3,652억 위안과 4,481억 위안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들 2성은 전년 대비 각각 10.9%와 13.1% 성장(전국 평균 성장속도는 8.9%)하였으며 서비스산업 발전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각각 37%와 40%에 달한다.

(5) 투자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1년 동북3성은 사회고정자산 투자 3조 2,691억 위안을 달성하였고 전년 대비 30.5% 성장하였다(전국 평균 성장 속도는 23.8%). 이는 중국의 4대 큰 지역에서 제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동부, 중부, 서부보다 9.2% 포인트, 1.7% 포인트, 1.3% 포인트 높았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투자는 각각 1조 7,726억 위안, 7,441억 위안, 7,524억 위안에 도달하였고 전년 대비 30.1%, 30.3%, 31.8% 증가하였다.¹¹

(6) 소비수요가 적극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동북3성은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1조 6,824억 위안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¹⁰ 위의 책들.

¹¹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중국통계연감 2012』에 의한 정리.

17.5% 성장한 것이다(전국 평균 증가속도는 17.1%).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은 각각 8,003억 위안, 4,116억 위안, 4,705억 위안에 도달해 전년 대비 17.5%, 17.5%, 17.6% 증가하였다.¹²

- (7) 재정수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동북3성은 지방 재정일반예산수입 4,487억 위안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33.6%(전국 재정수입 증가율 24.8%) 증가하였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지방재정일반예산수입은 각각 2,640억 위안, 850억 위안, 997억 위안이며, 전년 대비 31.7%, 41.1%, 32.0% 증가하였다.

동북3성의 지방 재정지출은 8,895억 위안이며 전년 대비 23.1%(전국재정지출은 21.2% 증가) 증가하였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지방재정일반예산지출은 각각 3,900억 위안, 2,201억 위안, 2,79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2.2%, 23.2%, 24.0% 증가하였다. 2011년 동북3성의 1인당 재정지출은 8,122위안으로 전국 평균 8,131위안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¹³

- (8) 외향성경제(대외경제)가 온당하게 발전하고 있다. 2011년 동북3성은 수출입총액 1,564억 달러를 달성하고 25.1%(전국 평균 22.5%) 성장하였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의 4.1%에서 4.3%로 증가하였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수

¹² 위의 책들.

¹³ 위의 책들.

출입 총액은 각각 959억 달러, 220억 달러, 3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1%, 30.9%, 50.9% 증가하였다. 이 중 헤이룽장성의 대러시아 무역액은 189.9억 달러에 달해 150% 성장했고, 이는 중국의 대러시아 무역액의 23%를 차지한다.¹⁴

또한 외국인 투자규모도 계속 증가해 2011년 동북3성의 실제 외국인 투자총액은 323.8억 달러에 달했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은 각각 242.7억 달러, 46.5억 달러, 34.6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전년 대비 17%, 12%, 25% 성장하였다.¹⁵

- (9)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 특히 농촌주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도시와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각각 2만 467위안, 1만 7,797위안, 1만 5,696위안으로 전국 평균인 2만 1,810위안 보다 낮다. 그렇지만 전년 대비 15.5%, 15.5%, 13.3%(전국 평균 14.1%) 성장하였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농민 1인당 순소득은 각각 8,297위안, 7,510위안, 7,590위안으로 전국 평균인 6,977원보다 높으며 전년 대비 각각 20.1%, 20.4%, 22.2% 성장하였다.¹⁶

다. 향후 과제

2012년 1월 초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어 '12·5'규획(2011~2015년)에 서부대개발과 동북3성

¹⁴ 遼寧省統計局, 『요녕성통계연감 2012』; 吉林省統計局, 『길림성통계연감 2012』; 黑龍江省統計局, 『흑룡강성통계연감 2012』에 의한 정리.

¹⁵ 위의 책들.

¹⁶ 위의 책들.

개발의 두 개 전략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회의 후 국무원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서부와 동북지역은 역사의 새 시점에 와 있으며 두 곳 모두 아직까지 개발이 미흡한 곳으로 변명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직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에서는 해당 지역의 GDP 성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서부와 동북지방의 현재 수준과 잠재 가능성, 자연자원, 그리고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이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선, 개혁을 심화시키고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개혁·개방은 발전의 동력으로서 개혁·개방이 없으면 오늘날의 동북진흥의 성과도 없으며 국유기업의 개혁을 한층 심화하며 동북진흥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때에 총결하고 보급해야 한다.

동북 노공업기지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자산처리 시험 방법들을 조속히 보급·시행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주권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업합병과 새로운 조합을 진일보 추진하며 장비 제조 등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형기업그룹을 육성해야 한다.

비공유제 경제와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동북의 대외 개방 수준을 높여 동북지역이 동북아 핵심지역으로써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며 주변국과의 협작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북지구 연벵개방과 동북아 지역협력 계획>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을 연구 작성하며 동북지구 대외개방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지구합작 <계획강요>를 계속해서 실행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역협력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기금을 준비하며 시범적 역할이 있는 중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한다.

동북지구는 중국에서 농업 발전 여건이 가장 좋으며 식량 증산 잠재력이 제일 큰 지역의 하나로서 향후 전국에서 식량 생산의 지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동북지구의 현대농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장비제조, 원자재, 농부산물 심가공 등 우위산업의 업그레이드를 계속하여 추진하며 동북지구 등 노공업기지 조정, 개조 등 전문 항목과 기타 중앙에서 투자한 자금을 이용하여 중점건설과 기술개조항목을 지원해야 한다.

낙후한 생산 설비들을 재빨리 도태시키고 강철 등 산업의 합병과 재조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하이테크산업, 신에너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신재료, 생물약, 생물공정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지지하며 산업기초와 과학연구인재 우위에 의지하고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경쟁우위가 있는 신흥 산업을 조기 육성해야 한다.

동북지역은 로봇, 광전자 등 하이테크 산업에서 일정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랴오닝연해경제대, 선양경제구, 하다치공업지대, 창지투경제구 등 중점 산업집거구의 발전을 추진하여 중국내 일류의 산업기지로 건설해야 한다.

자주혁신은 발전방식을 전환하는 근본적 수단이다. 동북노공업지에서 근래 조정·개조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중요한 경험으로서 동북기업들의 신기술 도입과 자주혁신을 적극 지지하며 동북지구 등 노공업기지를 국가의 중요한 산업기술연구 개발과 혁신기지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3. 동북3성 진흥과 창지투 개발개방

가. 동북3성 진흥 성과

동북진흥전략의 실시 및 동북3성 개발은 9년 동안의 노력을 거쳐 점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역량이 현저히 제고되었는바, 2011년 동북3성의 경제총량은 4조 5천억 위안으로 2004년의 3배로 성장하였다. 동북3성의 경제성장은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의 질과 효과 측면에서도 큰 개선이 있었다.

중장비 제조업에서의 자주화 성과가 현저한바 원자력 장비, 백만 볼트 특고압수변전설비(百万千瓦核電裝備), 백만 톤 에틸렌 제조 핵심설비 등 중대한 기술장비의 연구제작에 성공하여 중국의 장비 제조업 수준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중국현대농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는바 식량생산에서 2004년의 1,446억 근에서 2011년의 2,155억 근으로 올려 전국 식량생산의 8년 성장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¹⁷

개혁·개방에서도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어려운 국유기업 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와 다중소유제 경제가 활발히 발전하고 있으며 대외개방에서도 연해연벤(沿海沿邊) 개방과 함께 추진되고 있어 외자 이용이 대폭 제고되었다. 사회민생공정에도 큰 개선을 가져와 농민의 사회보장 참여율이 90% 이상에 도달해 신농촌 건강보험, 양로보험 등 보유량도 90% 이상에 달한다. 실업률은 4.3% 이하로 낮아졌고, 도시 낡은 주택개조사업이 1.3억㎡에 달해 650만 입주 곤란 가구들이 혜택을 보았다.¹⁸

17.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18. 위의 사이트.

동북3성의 지역 GDP, 재정수입, 투자 및 대외무역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주요 경제지표의 전국 내 순위가 상향 이동하였다. 특히 2011년 지린성의 지역 GDP가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돌파했다.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의 고정자산투자와 대외무역 성장률은 랴오닝성을 초과하였다(<표 II-2> 참고).

[표 II-2] 2011년 동북3성 경제지표

지역	경제총량 (억 위안)	재정예산수입	고정자산투자	수출입총액 (억 달러)
요녕성	22,000 (7위)	2,640.5(31.7%)	17,640(29.3%)	959.6(18.9%)
흑룡강성	12,504(12위)	1,620.3(32.5%)	7,524(31.8%)	385.1(50.9%)
길림성	10,531(22위)	850.1(41.1%)	7,222(30.3%)	220.5(37.8%)

자료: 『중국통계연감 2012』 수치에 의한 정리.

총체적으로 동북진흥전략의 실행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북노후공업지역의 경제 및 민생의 개선은 동북3성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 그리고 동북아 경제 협력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닦아 놓았다.

나. 동북3성 개발과 창지투 개발

그동안 중국정부가 실시한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은 9년의 시간을 거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랴오닝성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다음으로 헤이룽장성이며 지린성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 원인은 동북3성에서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에 중공업기지가 보다 많이 집중되어 있고 경제기반도 지린성보다 더 우월했기 때문이다. 랴오닝성은 동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연해(바다)에 접한 성이다.

지린성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지투 개발개방 계획을 제출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2009년 8월에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했으며 동년 11월에는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 개발전망 계획요강을 정식 발표하였다.

동북3성 개발의 일환인 창지투 개발은 두만강지역에서의 주변국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의 기타 지역과의 협조도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의미에서 볼 때 창지투(창춘, 지린, 투먼) 지역은 동북 기타 지역과의 경제 연계가 긴밀하며 특히 변경지역 대외개방면에서 특색있는 국제합작무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협력과 기반시설 연계를 강화하며 진일보하여 각자 우위를 발휘해 보다 큰 범위 내에서 두만강지역의 개발개방을 계획하는 것은 분공을 명확히 하고 교차발전을 이룩하며 윈-윈을 거두고 함께 두만강지역의 합작개발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국면을 형성할 수 있다.

창지투 개발에서 종합교통운수망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동북지역 연동발전의 중점과 기반으로서 운송통로와 주요교통 중추 건설을 중점으로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등 운송수단을 총괄적으로 조화시켜 종합운송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1횡 3종’ 교통종합통로분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지린성의 백성-아이산, 창춘-백성, 창춘-투먼 철도의 통로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창춘-송원-백성-석두정장 성급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내몽골을 연계하는 횡적 도로운수통로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동북지역에서 하얼빈-파렌 철도고객 운송전용선을 건설하고, 오리파-라림하 고속도로를 확대 건설하여 하얼빈-창춘-다렌의 종적 종합교통통로를 건설하게 된다. 이어서 선양-지린 철도복선과 황강-초시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동북지역 동부 선양-지린-하얼빈

의 종적 종합운수통로를 건설할 것이며, 동북 동부철도와 소구령-신개령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동북지역 연선 종적 종합운수통로를 건설하게 된다.

창지투 개발과 국내 기타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해항구와 내륙항구의 심층적인 협력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창춘철도화물운송 통상구와 지린역 기존의 기초조건을 개선하며, 창춘내륙항과 지린내륙항을 건설하고, 다국해관구역 쾌속통관 등 편리통관조치를 이용하여 통상구 기능을 내륙에까지 연장하며, 다롄항과 영구항 기능을 담당하고 관련정책을 전수받아 다롄 및 영구연해항과 창춘, 지린내륙항의 일체화 관리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향후 창지투 개발에 있어서 석탄, 석유 등 에너지개발 이용과 협작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석유, 천연가스 기초시설건설을 가속화하고, 석유운송관망을 강화하며, 석탄운수조건을 개선하고, 내몽골과 동북지역과의 협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석탄운송기지를 건설하게 된다. 동북3성과 1구(내몽고 자치구)간의 초고압전기수송선로를 건설하고 전력운송효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지역 간 산업분업협력과 상호보완을 추진함으로써 중점기업의 다지역연합과 재조합을 고무·격려하고 각종 생산요소의 합리한 유동을 추진해야 한다. 하얼빈, 창춘, 선양, 다롄 등 중심도시의 인재와 과학기술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동북지역의 고기술산업기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 창지투 개발: 동북진흥의 중심축

<동북3성 진흥계획>은 중국정부가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주장삼각주, 창장삼각주, 북경, 천진, 하북의 경제개발을 이룩하

고 난 후 새로운 성장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이른바 동북3성 지역의 경제개발 및 발전을 위해 세워진 전략이다. ‘창지투 개발계획’은 <동북3성 진흥계획>이 현실적 경제개발 계획으로 심화된 지역경제개발계획으로서 <동북3성 진흥계획>의 중요한 한 개 축으로 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전략적 시각에서 창지투 개발과 동북진흥전략을 연관시키고 있다. 즉 창지투 개발은 변강연해지역의 국제합작 및 대외개방수준 승격에 유리하고 동북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축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춘, 지린, 투먼장 지역의 우선 발전을 중점으로 중국의 두만강지역합작개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변강연해 지역 개방을 심화하기 위한 경험을 모색하는데 유리하고 내적 발전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두만강지역과 동북아국가들간의 자원보완성이 강하고 경제기술합작 공간이 넓으며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이 상당히 크다. 10여년 동안 개발과 건설을 거쳐 두만강지역은 이미 중국이 동북아 지역협력에 참여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은 몽골, 러시아, 북한과 직접 접경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및 일본과는 해상을 통해 연계될 수 있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 우위와 달리 과거 동북지역은 상당기간 발전이 정체되었고 대외개방을 통한 인접국들과의 상호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⁹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

19. 동북3성은 중공업을 위주로 하는 대형 국유기업위주로서 역사적으로 누적된 계획경제 체제의 영향 및 과중한 사회 및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시장경제 개혁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대외개방과 인근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서 ‘창지투개발개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북지역의 산업 및 기업 구조의 재편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개방의 정도와 폭을 확대함으로써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에서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다.

향후 중국은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강연해 개발개방의 중요한 지역으로, 동북아 개방을 지향하는 중국의 중요한 문호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한 무대로, 중국 동북지역의 중요한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9년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기 시작한 창지투 개발개방은 동북 진흥전략의 일환으로서 동북지역의 개방과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지역경제 블록화 추세에 비추어 창지투 개발개방을 통하여 동북아를 지향하는 개방담체를 조성하고 두만강지역 합작에 참여하는 종합기반을 강화하며 국제 협력개발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동북지역의 대외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동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개발개방을 통하여 이 지역 생산요소의 다국적 유동과 최적화 구조 조합을 실현하고 중국과 동북아 국가경제 상호보완관계를 강화하여 호혜공유를 실현하며 동북아지역이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국제적 환경을 가일층 조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지투 개방선도구 조성을 발전시키는 것은 대외개방합작 저력을 발굴하는데 유리하고 발전활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조성되어 동북노후공업기지 전면진흥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있어서 추진 및 지탱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창춘, 지린, 투먼장을 개발개방의 선도구로 삼고 두만강에 입각해 동북아를 지향하며 대동북

을 위해 복무하며 두만강지역합작개발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두만강지역은 동북아 개방을 지향하는 중국의 중요한 문호로서 적시에 육로국경교통운수 협력 행보를 추진하고 조속히 동북 동부 철도와 도로 통로를 개통시키고 중국 동북지역의 새로운 국제통로를 점차 구축하여 동북지역의 새로운 대외개방 구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창지투 개발을 동북지역의 중요한 성장축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 정책의 집성화, 환경용량의 최대성, 자원 감당력이 강한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특화된 우위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지역산업간의 협력을 최적화하며 핵심경쟁력을 갖고 있는 신형의 공업 및 현대서비스업, 현대농업시범기지를 합작건설 하려 하고 있다.

또한 창춘, 지린, 투먼장지역 개발개방선도구가 지린성의 경제와 사회발전에서 선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동북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2009년 중국 중앙정부가 창지투 개발을 실시한 이래 훈춘시 대외개방창구 기능이 현저히 승격되었고, 연(길)룡(정)도(문) 개방전초지 기능이 한층 더 완벽해지고 창춘과 지린 북지의 지탱능력이 제고되었다.

창춘, 지린, 투먼장지역의 사회기반 인프라 시설을 한층 완벽하게 하고, 이 지역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본사회 봉사체계가 한층 향상된다. 동북지역의 중요한 신형공업기지, 현대농업시범기지, 과학기술혁신기지, 현대적인 물류기지 및 동북아 국제상업봉사기지로 되게 하여 이 지역을 기본적으로 중국 동북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성장축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창지투 지역의 교통 인프라 건설 증대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확대하여 접경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나아가 지체되고 있는 동

북진흥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동북지역의 대외개방 확대와 노후 공업기지 진흥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창지투 개발을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할 전망이다.

III.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 추진현황

1. 두만강지역개발계획 평가

가. 전개과정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중국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제일 먼저 제기하였다. UNDP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두만강지역개발 프로젝트’를 1991년 10월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식으로 국제사회에 선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향후 20년 동안 300억 달러의 투자를 이 지역에 유치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 3개국의 접경지인 두만강 삼각주를 “동북아의 홍콩, 로테르담과 싱가포르”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24~2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 정부 간 협상회의까지 UNDP의 협조하에 모두 10차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간 두만강지역개발은 아래와 같은 몇 단계를 거쳤다.

(1) 제1단계: 논증단계(1992~1995년)

이 기간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몽골 등 5개 회원국은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의 추진원칙, 추진시스템, 자금조달방안 등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논증하였다. 1995년 12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 정부 간 협상회의에서 <두만강지역개발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의서>, <두만강경제개발구 및 동북아협상위원회 설정에 관한 협의서> 및 <두만강지역경제개발구 및 동북아환경준칙 설립에 관한 양해비망록> 등 두 개의 협의서와 한 개의 비망록을 체결하였다. 이는 두만강지역국제협력개발이 그 동안의 구상과 시동, 전문과제의 연구와 논증단계에서 지역협력 개발의 실질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 제2단계: 구체적인 협력방안 실시단계(1996~2000년)

통신, 도로, 철도, 금융, 무역, 통상구, 변경, 관광 등 영역에서 각각 실무적인 사업회의를 소집하여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협상하였으며 지역 내 무역과 투자환경건설을 중장기 목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종 조사 및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협상을 통해 해당 협의를 체결하였고 동시에 각국의 제도개선문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1999년 12월 제2단계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자체 평가한 결과 별로 낙관적이지 아니었다. 제기된 두만강지역개발 진척이 느린 주요 원인은 참여국의 주관의식 결핍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의 추진메커니즘이 취약했다는 데 있다고 결론지었다.

(3) 제3단계: TRDP에서 GTI에로의 전환단계(2001~2005년)

2000년 10월에 개최된 두만강지역개발 정부 간 협상회의에서 제3단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탐색하였다. 이때부터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가 두만강지역에만 국한되면 각국의 국가차원에서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 범위를 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으로 확대할 데 관

한 문제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되면,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는 국가차원의 공동프로젝트로서 중시를 받게 되고 각국 중앙정부의 주목과 지지를 유발시켜 국제금융원조와 민간투자 등 적극적인 용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의 추진메커니즘을 강화하여 프로젝트와 재정지속성을 유지하며, 무역과 투자, 교통과 통신, 환경보호, 관광, 에너지 등 5개 영역에 대한 건설을 추진하여 두만강지역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두 개의 목표를 제출하였다.

(4) 제4단계: GTI단계(2005년 이후)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가 10년간 추진을 결속하는 시기인 2005년 9월초 창춘에서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 제8차 정부 간 협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몽골 5개국은 1995년에 체결한 프로젝트관리위원회를 10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으며, ‘두만강지역개발(TRDP)’ 명칭을 ‘대두만강지역협력(GTI)’으로 변경하였다. 더불어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의 지역범위를 중국의 동북3성과 내몽골, 북한의 라선경제무역구, 러시아 원동의 일부 지역, 한국의 동해안지역, 몽골의 동부지역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5개 참여국이 재정관리 자금을 공동으로 설립, 중국 훈춘과 러시아 하산간의 “도로, 항구, 통상구” 협력개발, 중국 훈춘과 러시아 크라스키노 간의 목재가공운수 시동 등 중국정부가 제출한 6개 양자간 협력프로젝트를 심사하여 공통된 의견을 달성함으로써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은 다년간 회의에서의 연구단계에서 실질조작단계

로 전환하였다.

2007년 11월 러시아 블라이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개발 프로젝트 제9차 회의에서는 대두만강지역협력의 핵심영역체제의 설립과 새로운 프로젝트의 선정에 대해 협의를 달성하였다. 이는 대두만강지역협력에 양호한 바탕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 사회, 관광협의회, 기업건설팅회와 환경보호방안 등의 안을 설정하였으며 교통네트워크의 확대와 환경보호 등 10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정하여 중장기 목표로 추진키로 하였다.

이것은 지난 10여년간 추진된 두만강지역개발에서 이 지역 자본 도입이 기대효과를 보지 못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두만강지역에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부터 형성된 물류운수통로가 잘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물류운수통로건설을 각별히 중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나. 성과

두만강지역개발은 국제정치환경 및 주변국들의 정치 및 경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지난 1990년대 초에는 개발의 붐이 크게 일어났으나 중반이후에는 저조기에 접어들면서 두만강지역개발은 어렵고 완만한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그 동안 두만강지역 개발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

첫째, 두만강지역의 대외개방도가 한층 제고되었다. 중국의 두만강지역개발은 훈춘시를 중심으로 연변지역 전역에서 전개되었으며 “통상구, 출해, 자본도입, 인재양성” 등을 두만강지역개발의 주요한 목표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및 북한과 항구를 공동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체결하고 이 지역에서 ‘항구를 빌어 출해’한다는

목표를 실현하였다. 이것의 뒷받침으로 중국 국무원에서 훈춘시를 기타 일부 변경도시와 함께 제일 먼저 변경개방도시로 비준하였다.

북한정부는 두만강지역개발에 의외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면서 장기적인 폐쇄를 타파하고 1992년 12월 두만강지역에 속해 있는 라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였다. 러시아는 1990년에 ‘대블라디보스토크계획’과 ‘빈해변강지역계획’을 제정하고 원동지역의 시베리아, 사할린, 나홋트카와 블라디보스토크 등 자유경제무역구를 설립하여 블라디보스토크, 나홋트카, 자루비노, 보세트 항구를 개방하였다.

둘째, 두만강지역의 기초시설건설이 가속화와 더불어 크게 개선되었다. 국가급 경제개발구로서 훈춘변경경제개발구의 기초시설건설은 이미 초보적으로 생산여건이 구비되어 구역 내에는 보세창고, 변경무역시장, 표준화 공장건축물, 오락장소, 학교와 오피스텔 등 생산, 생활서비스 시설들이 설립되었다. 특히 훈춘시에 에너지, 교통, 통신, 인터넷 등 기초시설에 대한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두만강하류지역의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동시에 연변 전역의 기초시설건설도 급속히 추진되어 지역내외의 교통망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북한정부는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늘리면서 철도, 도로, 항만 및 통신시설 등 기초시설건설에 나섰다. 따라서 라진, 선봉항의 여건이 개선되었고, 라진-원정리 구간의 도로는 아직까지 비포장도로지만 크게 보수되었다. 라진에서 두만강리와 우의철교를 경과하여 러시아로 통하는 도로(43km)도 새로 보수되었고, 라진에서 중국 훈춘으로 통하는 원정리 통상구도 국가1급 통상구로 비준되었다. 따라서 북한 관할 두만강지역에 속해 있는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의 기초시설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러시아정부는 1994년 7월에 중국 훈춘으로 통하는 철도 부설을 비준하여 1997년 10월 러시아 마린닌노와 중국 훈춘 구간의 철도가 부설, 연결되었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훈춘 구간의 1급도로가 구축되었다. 러시아는 두만강지역은 아세아태평양지역과 유럽대륙을 잇는 시발점이므로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한 참여는 대블라디보스토크계획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미래 두만강지역 항만건설프로젝트에서 러시아의 주요한 항만의 위치를 쟁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러시아로 하여금 두만강지역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게 하였으며 도로, 철도, 항만과 통신시설 등 기초시설건설의 진척이 크게 빨라졌다.

셋째, 두만강지역의 초국경관광업이 발전되었다. 두만지역개발의 국제협력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인 두만강지역의 초국경관광업은 신속히 발전되었다. 현재 중국과 북한 간의 초국경관광코스에는 훈춘-라선 관광코스, 화룡-삼지연-백두산 관광코스, 화룡-삼지연-평양-백두산 관광코스, 용정-청진-칠보산 관광코스 등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광코스도 훈춘-블라디보스토크 관광코스, 훈춘-슬라브양가 관광코스, 훈춘-블라디보스토크-모스크바 관광코스, 훈춘-자루비노 혹은 보세트 관광코스 등 관광코스가 정식으로 개척되었다.

넷째, 동북아지역 내에 새로운 두만강지역운수통로가 형성되었다. 두만강운수통로는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가 제기되면서 아세아태평양과 유럽대륙을 잇는 동북아지역 내의 새로운 운수통로이다. 그동안 각국은 두만강지역 물류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지난 10여년간 자금 투입을 통해 두만강지역의 물류기초시설은 아주 큰 개선을 가져왔다.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의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로서 연변해운업이 탄생

되었다. 연변지역은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포세트항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으로 통하는 해운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0년 4월에는 한국 ‘동춘해운’이 운영하는 훈춘-자루비노-속초 간의 페리항선도 개통되었다.

1991년 UNDP가 국제사회에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선포한 이래 두만강지역 주변국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두만강지역 다국적개발은 비교적 큰 성과를 취득하였다. 특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측은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 항공, 세관, 항만 등 인프라 시설 개선에 대한 자금 투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비교적 큰 개선을 이룩하였다. 더불어 외자도입, 산업구조조정 등 지역성장의 요소들에 비교적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정세, 이 지역 주변국들의 경제발전수준 및 사회체제의 차이 등의 요인으로 인해 두만강지역개발은 여전히 당초 UNDP가 제출한 개발계획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개발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 제약요소

두만강지역개발은 18년간의 추진을 통해 없었던 것으로부터 일정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정치 환경 및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 참여국간의 비교적 큰 체제차이, 더불어 이 지역의 취약한 경제기반 등의 요소로 인해 UNDP가 당초 제기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철저히 실시하지 못했다.

주로 각국이 접수할 수 있는 국제적 법규와 실행이 가능한 두만강지역의 다국적협력 및 공동개발의 총체적 계획의 결핍, 통상구의 소통 난제들의 여전한 존재, 지역협력 투자환경의 열악에 기인하는 민

간투자자의 외면, 공동으로 이익을 향해 윈-윈할 수 있다는 인식 부족에 따른 협력심의 결여 등의 요소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따라서 두만강지역의 협력은 아직도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협력은 산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양자간 협력을 위주로 하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의 제약요소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환경이다. 1990년대 중반이래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이 지역에서 북·미 간의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6자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동북아지역에는 하나의 모순이 해결되기도 전에 새로운 모순이 또 발생하는 것이 지나온 경험이다.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세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동북아 국제정세는 두만강지역으로 하여금 국제협력의 분위기를 형성시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투자보장을 상실케 한 것이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개발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두만강지역개발의 참여국들이 비교적 큰 체제차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윈-윈 의식이 부족하다. 다국적지역의 공동시장은 세계경제시장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다국적 공동시장의 참여국의 경제체제는 반드시 시장경제체제여야 한다. 그러나 두만강지역 주변국들의 경제체제는 다양하고 현저한 차이를 갖고 있어 이 지역 다국적 공동시장의 개발에 중요한 저해요소의 하나가 되었으며 또한 협력개발의 산만성을 불가피하게 가져왔다.

그러므로 두만강지역 주변국들의 사회제도, 의식형태, 경제체제와 기술수준 등 영역에서의 아주 큰 차이로 인해, 특히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참여국들이 윈-윈 의식이 부족하다. 주변국들은 모두 중국만이 실리를 얻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협력의 응집력이 약하다. 실제로 러시아와 북한은 정치적으로 중국을 질투하면서 그들 각자가 경제협력의 주도력이 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은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협력은 광범성과 긴밀성이 결핍하며 협력형태는 산만성을 나타내고 협력방식은 일반적으로 양자간 협력을 위주로 하고 있다.

셋째, 초국경 국제지역협력개발에서 지방정부의 주체역할이 아주 큰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초국경 국제지역협력은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실천가운데서 발생한 하나의 협력축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방식이다. 생산요소가 ‘초국경 국제지역’의 지정학적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생산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실현하여 협력은 각자에게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두만강지역은 바로 초국경 국제지역경제협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두만강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하여 비록 생산요소 측면에서 일정한 보완성을 구성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부 초급생산요소의 보완에 집중되고 있다. 초국경 국제지역 경제협력에서 협력의 주체는 지방정부로서 두만강지역 각국 지역경제의 상대적 낙후성 또는 참여국 경제의 불균형성으로 인해 각국 정부의 지원은 주로 정책측면에서 부족하고 소규모 자금을 투입할 뿐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초국경 국제지역 경제 협력은 대부분 각 참여국의 변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군사안보경향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협력프로젝트의 협조측면에서 지방정부권한의 한계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특히 주요한 참여국인 북한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도의 중앙집권제를 실시하는 나라로서 지방정부권한의 한계성이 더욱 뚜렷하다. 더구나 라진·선봉지역의 지방과 중앙정부 관리 이중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공약은 항상 무효를 보이

고 있었다. 그 결과 두만강지역개발은 한동안 과열개발이 있을 후 점차 침체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넷째, 두만강지역의 경제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두만강지역의 취약한 경제기반은 기초시설건설에 대한 자체 투자를 어렵게 한다. 우선 북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요인으로 외국자본이 기초시설영역에서의 투자를 더욱 불가능하게 하여 북한의 기초시설과 투자환경은 악순환을 가지게 한다.

러시아 원동지역은 기존의 투자환경이 낙후한 지역이다. 게다가 러시아 연방정부는 원동지역에 대한 재정원조를 삭감하여 각 지역에서의 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지역의 지방재정은 급격히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초시설건설에 대한 투자는 더욱 제한되었다.

중국에서 지린성의 경제발전수준은 전국 31개 광역시, 성, 자치구 가운데서 낙후상태에 처해 있어 지방재정도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두만강지역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어렵게 하며 두만강지역개발 핵심지역에 처해 있는 연변지역의 경제력은 더욱 미약해서 자체투자는 당연히 불가능했다.

2. 창지투 개발계획의 추진배경

최근 중국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남해안의 북부만지역을 에너지산업단지로 개발할 것과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개발 및 선양경제개발구의 건설을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으로 비준하였다. 동시에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계획 요강-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를 비준함으로써 두만강지역개발을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으로 승격시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만강지역개발은

또다시 새로운 라운드의 막을 펼치게 되었다.

가. 동북노공업기지의 진흥전략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전반적으로 완벽한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동북노공업기지(東北老工業基地)진흥전략을 실시하였다. 동북노공업기지 경제개발의 근본적인 배경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서 동북3성 경제가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과거 주요한 공업기지로서 중국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던 동북3성의 경제비중은 점점 낮아졌다. 바로 경제기초가 중공업 중심의 국유기업에서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중국 전체의 고속 성장에 동참하지 못하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이는 중국의 지역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당16차 대회에서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老工業基地)의 조정과 개조를 다그치며 자원개발을 위주로 하는 도시와 지역에서 후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국가에서 식량생산지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더불어 국무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동북지역을 2차례 시찰하면서 동북노공업기지의 경제개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동북노공업기지 경제개발은 서부대개발과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 및 2020년에 초요수준(小康水平)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인 것이다.

동북노공업기지 경제개발의 주요한 내용과 목표를 보면, 2003년 1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610억 위안(런민비, 약 74억 달러)

에 이르는 100개의 동북3성 재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 이 프로젝트 중 랴오닝성 투자가 52건으로 투자액의 72.5%를 차지하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이 각각 11건, 37건의 투자계획을 확정하였다.

동북노공업기지 경제개발의 프로젝트는 추진방식에서 기존에 실시했던 투자계획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투자규모를 확대하거나 행정구역별로 분산 추진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유망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과 지역경제발전을 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신규 프로젝트는 동북3성이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 제조업, 원자재공업, 농산물 가공업 등에 집중하는 것이다.

개발계획이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전통산업 기반을 가진 국유기업의 개혁이 불가피하였다. 낙후한 국유기업의 산업구조와 설비를 고도화하고 첨단산업 발전을 동시에 꾀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과 기술의 산업화를 실현하고자 2개의 국가연구소와 8개의 기업 R&D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5년에 걸쳐 시행된 동북노공업기지 개발전략은 성공적인 커다란 성과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첫 단계 성공적인 실시를 결속하고 동북노공업기지의 전면적인 진흥전략을 실시키로 하였다. 2009년 9월 9일 중국 국무원은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진흥전략을 한층 더 실시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동북노공업기지지흥전략은 기존의 국유기업개혁에서 지역개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동북3성의 거대한 지역을 개발하는데는 몇 개의 성장축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중국 국무원은 동북3성의 전면적인 지역 개발의 성장축으로 랴오닝연해경제벨트,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선양경제개발구 등 지역개발의 국가프로젝트를 비준하였다.

나. 랴오닝연해경제벨트 발전전략

2009년 7월 1일 중국 국무원은 <랴오닝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을 비준하였다. 랴오닝연해경제벨트는 다롄(大連), 단둥(丹東), 진저우(錦州), 임귀우(營口), 판진(盤錦), 후루다오(葫蘆島) 등 연해 도시를 포함한다. 이 경제벨트는 중국의 북방연해지역에서 발전기반이 비교적 좋은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고, 특히 입지우세가 아주 뚜렷하다. 환발해지역의 중요한 위치에 입지하여 중국 동북경제구와 경진익(京津冀, 즉 북경, 천진, 하북성) 도시권의 결합부분이며 동북아경제권의 관건적인 지역으로서 한국, 북한, 일본을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고, 러시아, 몽골과 인접하고 있어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중요한 창구이며 유럽대륙이 태평양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랴오닝연해경제벨트의 발전은 국가발전의 전체국면에도 관계되어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중국은 아래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새로운 경제성장축을 육성시키고 형성하여 북방연해지역의 발전수준을 높일 수 있으므로 중국의 연해경제분포를 더욱 완벽하게 한다. 둘째, 동북지역과 환발해지역의 상호융합을 추진하고 전국 연해지역 간의 상호발전을 추진하여 공동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한다. 셋째, 랴오닝성과 동북지역의 총체적 경제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동북노공업기지의 진흥을 추진하여 전국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양호한 분포를 형성함으로써 국가 지역발전의 총체적 전략실시에 유리하다. 넷째, 랴오닝연해경제벨트의 발전은 랴오닝성, 나아가서는 전반 동북지역의 대외개방도를 높이고 종합실력과 국제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되며 동북아 각국과의 경제기술협력이 강화

될 것이고 한·중·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심화되며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화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여건이 창조될 것이므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 유리하다.

랴오닝연해경제벨트개발은 환발해만에 의거하여 동북지역을 위해 복부하며 동북아를 상대로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중요한 무대, 동북아지역의 중요한 국제해운중심, 국제경쟁력을 지난 항구와 인접한 산업벨트, 생태환경이 우아하고 생활거주환경이 편안한 지역으로 건설하여 중국연해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축을 형성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다. 선양경제구의 국가종합세트 개혁실험구

선양경제구는 랴오닝연해경제벨트개발을 국가개발전략으로 비준한 9개월 후 비준한 또 하나의 국가개발전략으로서 중국의 여덟 번째 국가종합세트 개혁실험구이다. 2005년 이후 국무원에서는 상해 포동, 천진 Binhai신구, 성도, 중경, 무한 도시권, 장주담(長株潭)도시군과 심수 등 7개 지역을 전국 종합세트개혁실험구로 비준하였다. 종합세트개혁은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공업발전에서는 주로 신흥공업을 발전시키고 전통산업을 승격시키고 낙후한 산업을 도태시키는 것이며, 저탄경제, 순환경제를 집중 발전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진하며, 산업군을 집중 발전시켜 산업집약화를 추진하고 집중도를 제고하며 고산출, 저에너지 소모, 작은 배출의 공업경제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도시일체화에서는 도시자원의 정합(整合)을 가속화하고 집합창신요소를 가속화하며 신흥공업화를 위해 공간과 담체를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에서는 도시화를 대거로 추진하며 농촌인구의 신도시, 신항진에의 집중을 추진하며 공업을 단지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넷째, 시장화 정도의 제고에서는 모든 시장경제발전에 불리한 체제적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생산원자재와 노동자 이동을 저해하는 모든 벽을 허물어버리며 시장의 교역비용을 줄이고 인력자원의 잠재적 기능을 풀어주어 시장 자원배분의 기초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이다.

심양경제구의 개발은 국가 핵심산업 발전방향과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의 총체적 요구에 부합되며 랴오닝성 또는 동북지역, 나아가서는 전국에 중대한 전략적인 의의를 지닌다.

라. 광서북부만경제구발전계획

중국 국무원은 2008년 1월 16일 <광서북부만경제구발전계획>을 정식으로 비준하였다. 중국정부는 광서북부만경제구를 ‘3남’(서남, 화남, 중남)을 북무하고 동중서를 소통하며 동남아를 상대하여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교류의 중개와 협력의 무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개방협력으로 건설을 추진하며 중국-아세안 개방협력의 물류단지, 무역단지, 가공제조업단지와 정보교류센터로 건설하고자 한다.

광서북부만경제구는 중국 서부의 유일한 연해지역이다. 광서북부만은 중국-아세안자유무역구, 범북부만경제협력구, 대메콩강하부지역, 중국-베트남의 ‘두 개 통로와 한 개 경제권’, 범주장(珠江)삼각경제구, 서남6개성(구, 시)협력구 등 여러 개 지역협력의 교차점으로서 남으로는 북부만을 가지고 있고 북으로는 대서남지역을 등지

고 있으며 동으로는 주장삼각주를 연결하여 동남아를 상대하고 서남으로는 베트남과 인접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부만경제구는 중국의 연해와 아세안국가들과 육상으로 교류하는 요충지이며 중국과 아세안의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교량이자 기지이며 입지가 우월하고 전략적 위치가 뚜렷하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하다.

전문가들은 광서북부만경제구를 지역경제공동체화를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이 될 것이며 점차 서부대개발전략의 뒷받침이 되고 중국연해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남아경제권을 상대하는 북부만경제구의 개발과 환발해경제권을 상대하는 랴오닝연해경제벨트의 개발은 중국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이라는 의미에서 동북아경제권을 상대하는 두만강지역개발이 동북노공업기지 전면 진흥의 또 하나의 성장 축으로서 국가차원의 지역개발의 프로젝트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더불어 러시아는 원동지역에 23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원동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 지역개발의 환경이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2008년 6월 중국 국무원발전개혁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에 위탁하여 <중국두만강지역 협력개발계획>을 편찬하게 하였으며 2009년 8월 30일 국무원은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계획 요강-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이하 ‘계획요강’)를 비준하였다.

마. 중국 지역개발의 총체적인 추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개발의 총체적 추세는 남으로부터 시작하여 북상하는 추세다. 즉, 1980년대에는 주장삼각주를 중심으로 남부연해지역의 개발이 추진되었고, 1990년대에는 상해 포동지역을

용두로 양자강지역의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천진 빈해지역을 중심으로 발해만 경제권개발이 추진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 동북지역 개발의 차례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북노공업기지의 진흥전략이 국유기업개조에서 지역개발로 전환하는 시점과 맞물려 바로 동북지역의 랴오닝연해도시경제벨트,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선양경제구 등 3개 성장축이 제정되었다.

요컨대 창지투 선도구개발의 ‘계획 요강’의 비준은 랴오닝연해도시경제벨트, 광서북부만경제개발구를 국가개발전략으로 선정한 뒤를 이어 또 하나의 국가주체기능지역계획에 편입된 지역개발계획으로서 두만강지역개발의 새로운 라운드의 막을 열게 되는 것이며 또 다시 국내외로부터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3. 창지투 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징

가. <계획요강>의 내용

<계획요강>의 발표는 뉴라운드 두만강지역개발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와 국내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계획요강>에서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의 건설은 훈춘을 창구로, 연지-룡징-투먼을 전초지로, 창춘-지린을 엔진으로, 동북전역을 뒷받침으로 하는 총체적 분포를 형성하여 동북지역 개방의 새로운 관문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린성에서 한국과 일본자본의 흡인력을 강화시키고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양호한 역동관계를 추진하여 지린성 또는 나아가서 동북지역의 전면적인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창지투 선도구의 건설은 하얼빈(哈爾濱), 따칭(大慶), 치치하얼(齊齊哈爾) 지역과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동부지역 및 내몽골 동부 지역을 직접 상대함으로써 동북지역의 전면적인 진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신흥 산업기지와 국가 식량안전기지 건설을 다그칠 수 있는 것이다.

두만강지역은 세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제일 큰 경제구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의 국제협력개발 추진은 아세안을 향하고 있는 메콩강지역개발 못지 않은 의의와 영향을 지니고 있으며 동북 아국가들을 향하고 있는 창구이다.

창지투 개발전략의 초보적인 계획에 의하면, 지린성은 교통선을 축으로 분포된 두만강지역(엔벤주)과 창춘시, 지린시 이 2개의 특대형도시와 연결하여 훈춘시를 개방의 창구로, 창춘시와 지린시를 직접적인 내지로, 해당 특색기능조합을 보충으로 하는 벨트를 형성하여 산업발전, 기초시설건설, 생태환경, 대외개방 등 측면에서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으로 향수하며 상호보완성으로 융합하여 서쪽으로 하얼빈-다렌 간선과 연결하고 동쪽으로 동북 동부통로와 연결하는 동북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성장벨트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계획요강>은 중대한 의의, 총체적 요구,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를 가속 건설, 창지투와 국내지역 간 역동관계를 적극 추진, 두만강지역국제협력을 힘껏 추진, 계획실시의 보장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계획요강>은 세 가지 중점 임무를 제시하였다. 즉,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건설을 가속, 창지투와 국내지역 간 역동관계를 적극 추진, 두만강지역국제협력을 힘껏 추진하는 것이다.²⁰

20. 孫雷,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上升為國家戰略吉林靑島東北亞‘中部崛起,’” 『新浪財經』, 2009年 9月 3日, <<http://www.sina.com.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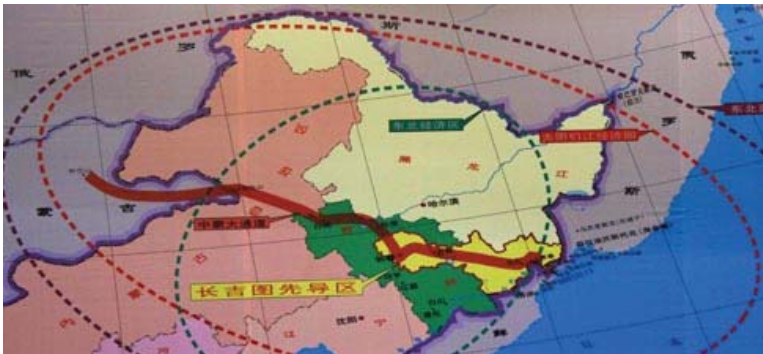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창지투 선도구 내에는 크게 여덟 가지 프로젝트를 건설할 계획이다.²¹ 첫째, 두만강지역에 국제자유무역구를 설립한다. 1단계로 한·중·일·러 양자간, 다자간의 초국경 자유무역구를 건설하며, 2단계로 두만강지역국제자유무역구를 건설한다. 둘째, 창춘, 지린의 내륙통상구를 건설한다. 즉, 국제중계통상구인 창춘통상구를 구축하여 세관, 상품검역, 국경심사 및 해당 시설의 시스템화를 운영한다. 셋째, 과학기술창신구(創新區)를 건설한다. 창춘의 국가생물산업기지와 광전자산업기지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하이테크 R&D센터와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성(省)급 국제협력 산업구를 건설한다. 중한, 중일, 중러 등 초국경산업단지를 건설한다. 다섯째, 현대화한 물류단지를 구축한다. 창춘용가공항, 연지공항과 훈춘 등 통상구를 기반으로 보세가공, 보세물류, 보세창고 등이 집결하여 동북아지역과 동북지역을 상대로 하는 물류단지를 구축한다. 여섯째, 생태관광구를 건설한다. 일곱째, 고급서비스집중단지를 건설한다. 여덟째, 현대화한 농업시범단지를 건설한다.

창지투 선도구 건설의 주요한 내용의 하나는 중국 대두만강지역의 주축인 중국-몽골의 대통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창춘, 지린 지역과 연변주를 포함하는 것이다. 중국-몽골의 대통로는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를 통과하면서 동북아지역 6개국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교량과 벨트이다. 이 통로가 건설되면 동북아에는 유럽을 잇는 또 하나의 운수통로가 형성되는 것으로서 두만강지역개발과 동북노공업기지의 진흥 프로젝트가 한층 더 추진될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내의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동북아국가와 유럽, 북미를 연결하

21. 鄒智威·黃艷麗,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規劃》8月30日已獲批,” 『新文化網』, 2009年9月1日, <http://www.xwhb.com/news/system/2009/09/01/010056141_02.shtml>.

는 제일 짧은 통로가 될 것이므로 두만강지역개발로 하여금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몽골의 대통로건설에서 두 개의 건설임무가 있는데 하나는 훈춘에서 북한, 러시아 항구간의 도로, 철도건설 프로젝트이며 또 하나는 내몽골의 아얼산(阿爾山)과 몽골 바산(巴山)간의 철도건설 프로젝트로서 ‘양산(兩山)’철도건설 프로젝트라고도 한다.



나. 새로운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의 특징

1990년대 초와 비교하면 현재 추진하는 두만강지역개발은 주변 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추동력이 충족하다. 18년 전 UNDP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던 두만강지역국제협력프로젝트는 다년간의 침체를 경험했지만 현 단계에 와서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상태에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다.

새로운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²² 우선 중국이 술선적으로 발전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22. 郭文君, “圖門江地域合作開發中延邊經濟發展戰略研究”(延邊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국가이익을 체현하는 것이다. 즉, 중국이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의거하지도 않으며 기회를 앞서 점령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마땅한 역할을 발휘한다는 특징이다.

중국 국무원에서 최근에 비준한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계획 요강-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에서 “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하는 부제는 바로 두만강지역에서 중국이 먼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지투 개발개방전략의 내재적 의의는 두만강지역협력으로서 두만강지역 총체적 개발에서의 선점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역사 판형산(范恒山) 사장은 “두만강국제지역협력의 추진은 우리나라 대외개방의 중요한 전략이다. 창지투 개발개방의 추진은 협력영역과 공간의 확대에 유리하며 두만강국제지역협력을 더욱 깊이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며 우리나라 총체적 대외개방의 구조를 더욱 개선시킨다”고 하였다.²³

둘째, 기초시설건설의 확대 및 분포의 합리화 특징이다. 즉, 국제 물류통로건설을 돌출히 하여 항구, 철도, 고속도로, 통상구 건설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항구는 북한과 러시아의 항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동해 연해안 간의 항선과 중국 동남 연해지역 간의 육해항선을 개척한다는 것이다. 철도는 도문-장춘구간의 고속철도를 부설하고 북한과 러시아 철도를 연결하며 투먼-훈춘-장영자구간의 철도를 철저히 개선하는 것이다. 도로는 훈춘-창춘간의 고속도로를 개통함과 동시에 랴오닝, 헤이룽장성의 변경통상구도시를 통하는 동북동부변경고속도로를 건설하며 북한의 라진항과 청진항, 러시아의 자루비노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통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이다.

23.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打造東北新增長極,” 『科學時報』, 2009年 9月 21日.

통상구는 두만강변에 설치된 중국, 북한간의 통상구인 권하세관, 도문세관, 회령세관, 증리변경세관인 장영자세관 개선과 훈춘철도세관의 확대건설, 투먼철도세관의 신축, 개산툰철도세관, 남평철도세관, 춘화분수령세관 등 통상구의 통로와 검역빌딩, 해당시설 및 이들 통상구로 통하는 도로의 건설이다.

셋째, 산업발전계획측면에서 산업유치와 분포의 합리화 특징이다. 즉, 산업을 대형화, 규모화, 고수준, 생태화 방향으로 육성시키고 국내외의 두 개 시장, 두 개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두만강지역의 석유산업, 금속광산물 및 야금산업, 자동차 및 장비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식품산업, 임산산업, 의약산업과 건축원자재산업 등 입지우위와 자원우위를 갖는 주도산업 및 연관산업기지를 건설하여 산업구조의 고급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넷째,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의 경제번영으로 주변국과의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을 유도한다는 특징이다. 즉, 훈춘시와 북한의 라선지역, 러시아의 하산 지역 간의 전면적인 양자간 협력으로 다자간 협력을 이끌어 점차적으로 동북아의 특색을 지닌 두만강 다국적자유무역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비즈니스 투자, 금융, 제품질량의 검사 및 검역, 관광, 노동력, 과학기술, 문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국제정보교류서비스센터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의 목적은 경제번영을 추진하고 역으로 지역 협력과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자원, 두 개 시장”에 입각하여 협력을 기반으로 윈-윈 목표를 달성하며 협력 프로젝트건설을 다그쳐 경쟁력이 있는 개방산업체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양자간 협력은 주로 러시아와 에너지비축과 개발기지를 건설하고

자 대형국제화에너지비축과 생산기지의 건설 및 임산제품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데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자간 경제협력은 북한, 러시아와 협력하여 철강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편, 무역, 관광, 식품생산 등의 영역에서도 다자간 협력을 강화한다.

다. 창지투 선도구 개발과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의 차이

우선, 중국의 자체적인 지역개발이다. 창지투 선도구 개발은 중국이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의거하지도 않으며 기회를 앞서 점령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마땅한 역할을 발휘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 국무원에서 최근에 비준한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계획 요강-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에서 “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 하는 부제는 바로 두만강지역에서 중국이 먼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 국무원이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계획 요강-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를 비준하면서 두만강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의 주도자가 지방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 승격하였다.

셋째, 현재 두만강지역개발은 투자보장이 확실하다. UNDP는 두만강지역개발에서 300억 달러 투자유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복잡하고 불안정한 동북아 경제형세는 이 지역에 대한 국제투자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UNDP가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에서 당초 중국은 최혜국이면서도 투자여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재력은 크게 변화하였고 이 지역개발의 투자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투자보장이 확실한 것이다. 물론 창지투 선도구 개발에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넷째, UNDP의 다국적 협력방식에서 양자간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다국적협력은 주변국들의 경제체제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이루기 힘들지만 양자간 협력은 보다 더 현실적인 협력방식으로서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쉽게 이룰 수 있다.

4. 창지투 선도구 개발 추진현황과 평가

가. 추진현황

현재 창지투 선도구 개발은 주로 에너지산업, 농업·식품산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산업, 관광업, 생물·의약산업, 문화·애니메이션·소프트산업, 궤도객차산업, 신소재산업, 철강산업, 광전자·IT 및 하이테크산업, 광산자원산업, 건축원자재산업 등 산업에서 200여개 중대 프로젝트가 착공되었거나 곧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창지투 선도구 개발에서 물류운수통로건설은 제일 중점 프로젝트로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창지투 지역 내에는 이미 일부 중점 건설공사가 착공되거나 준공되었다. 약 400km인 창춘-옌지-투먼 구간의 고속도로는 이미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투먼-훈춘 간 고속도로도 2013년 말이면 착공될 것이다. 창춘-지린 도시 간 철도건설도 올해 착공하였으며 준공되면 양도시간 소요시간은 30분간으로 단축된다. 창춘-투먼 구간의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철도프로젝트도 이미 지린성과 철도부의 협력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창춘, 지린의 내륙항구도 이미 초보적으로 완성되었다. 훈춘통상구건설은 부단히 추진되고 있으며 러시아철도와의 협력도 심화되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 개발 및 두만강지역 물류운수통로건설은 중국과

북한과의 양자간 경제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 개발에서 물류운수통로건설이 제일 주요한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물류운수통로가 창지투 선도구에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해외통로가 없는 지린성은 대외무역의 통로가 절대 필요하다. 바로 직통할 수 있는 해외통로가 없기 때문에 지린성의 지역경제발전은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에서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성에 속해 있다. 선도구 개발계획대로 창춘과 지린시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복합적인 산업이 구축된다 하여도 물류운수통로건설이 선제조건으로 제기된다. 그리하여 물류통로건설은 창지투 선도구 개발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둘째, 중국내 동북지역과 남부 연해지역 간의 국내무역의 중요한 통로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남부연해지역은 동북지역의 물자를 대량으로 수요하고 있지만 운수가 큰 과제이다. 따라서 북한 라진항을 이용하면 운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협력의 직접 당사자인 엔벤자치주는 물류통로의 거점지역으로서 러시아의 자루비노항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항만여건이 더욱 우월하고 또한 문화적으로 교류가 편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보다는 북한의 라진항을 선호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국제제재를 계속 받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2년 경제강국건설 목표를 실현하는 시간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이 실시되면서 북한은 경제회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중국과 북한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경제협력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창지투 선도구 개발을 둘러싼 중국과 북한 간의 협력으로 2011년 6월 9일에 착공식을 가진 원정리-라진항간의 도로보수, 라선지역의 자가용승용차 관광, 농업과학기술시범구, 국내무역운수, 아태집단 100톤 세멘트생산 등 5개 프로젝트가 착공하였다. 향후 북한과의 협력프로젝트는 화력발전소 건설, 공업단지 건설, 농업협력(비료, 배재기술, 종자, 가축 등), 20여개 공사업 영역에서 외국기업 보호조례 등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전개될 것이다.

나. 연변지역의 역할

두만강지역의 핵심에 입지하고 있는 연변지역은 동시에 동북아의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연변지역은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건설과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밀접한 경제관계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아국가들 간 정상관계의 건립을 도모할 수 있다.

연변지역은 두만강지역 주변국을 상대하는 물류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연변지역은 유리한 지정학적 우세를 이용하여 중국 동부지역 대외개방의 물류통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북·중, 중·러 간의 도로운수통로, 중·러 철도운수통로, 한·중 항공운수통로 및 초국경해육운수통로를 개척하였으며 각 통상구의 통관수준을 제고시켰고 주변국들과의 경제무역교류를 활성화시켜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자원 및 경제적 상호보완에서 중요한 중계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연변지역은 중국 동북3성과 동북아국가들 간 교류, 물류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동북아의 경제, 인적, 지정학적 등 세 가지 중심의 교착점으로서 아시아, 유럽, 북미주를 연결하는 육해운수통로의 중요한 증추적 위치에 입지해 있다. 따라서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는 물론 전체 동북지역은 연변지역을 통해 대외통로를 확보하여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경제무역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

두만강지역개발의 특징과 연변지역이 두만강지역의 핵심입지, 지역우세와 자연부존 등 지정학적 우세로 인해 새로운 <계획요강>에서는 연변지역을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의 핵심구와 국가주체기능구 중점개발구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창지투 선도구 건설에서 창춘과 지린 두 도시경제는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의 발전엔진과 동력원의 역할을 발휘한다. 연변지역과 창춘, 지린지역과 산업연대관계를 강화하고 창춘, 지린시의 자동차산업기지, 석유화학산업기지, 농산물가공기지 및 과학기술개발기지의 산업우세에 의거하여 하부연관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지투 선도구 개발에서 훈춘의 대외창구 기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자 중국 국무원은 2012년 4월 13일 <국무원 판공청의 중국 두만강지역(훈춘) 국제협력 시범구를 건설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고 훈춘국제협력 시범구를 정식 비준하였다. 이는 창지투 선도구 개발의 실질적인 진전이며 개발계획을 실시하는 중요한 절차이고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조치이다.

국무원의 이 ‘약간의 의견’에서는 훈춘국제협력 시범구에 동북아 협력과 개발개방의 중요한 무대, 동북아지역 중요한 종합교통중추, 동북아지역 상업무역 물류센터, 생태형 신형도시 등 4대 기능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특수한 지지정책을 부여하여 인프라건

설과 중요한 산업유치를 중점으로 대외무역협력, 국제산업협력, 중·조 경제협력, 중·러 경제협력 등 4개 기능건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다. 평가

창지투 선도구 개발은 새로운 두만강지역협력개발로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무대로 부상하게 될 것이므로 주변국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북한의 두만강지역협력개발, 러시아 원동지역의 발전계획 및 한국 동해연해안지역개발, 일본, 몽골 등 주변국의 발전계획과 상호추진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추진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이 제일 클 것이다. 북한은 라선경제 개발구의 대외통로와 풍부한 자원우세를 이용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건설을 추진하고 식량문제, 기초시설 낙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은 두만강지역의 지정학적 입지우세를 발휘하여 동북아 지역협력에서 교량역할과 중개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UNDP 두만강지역개발의 참여국에서 탈퇴했던 북한은 올해 들어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고 조선대풍국제투자 그룹 설립 및 국가개발은행 출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두만강개발계획을 축으로 라선지역의 인프라구축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 투자를 이끌어내고 추후 서방국가들로 확대해가는 경제개발계획을 밝히는 등 중국두만강 지역개발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에는 원동지역발전계획의 실시와 상호추진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원동지역 간에 자원보완, 교통시설상호이용 등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비해 다만 매체를 통한 뉴스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정부로서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조치 또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동안 UNDP 두만강지역개발의 참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한국에는 새로운 두만강지역개발이 최근 동해연해지역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해경제권의 형성에 좋은 외부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우선, 두만강지역의 운수통로 건설을 통해 두만강물류통로가 원활해 질 때 한국 동해연해안의 항구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내의 산업형성은 한·중 간의 새로운 산업협력 및 대중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동해연해지역과 두만강지역 간의 초국경 지역협력은 과거 1990년대 초의 UNDP 두만강지역국제협력개발 프로젝트에 비해 현실적인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IV. 창지투 개발계획과 엔베조선족자치주경제의 변화

1. 연변조선족자치주 개황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지린성의 동남부, 북위 41도에서 44도, 동경 127도에서 131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러시아 연해주 하산지구와 이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두만강(중국어명 투먼장圖們江)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린성의 교하, 화순, 무송 등과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헤이룽장성의 동녕, 녕안, 해림, 오상과 인접해 있으며, 지린성 총면적의 약 1/4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의 동북부, 북한 및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 동북아의 ‘황금 3각주’로 불리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연길(延吉), 도문(圖們), 둔화(敦化), 화룡(和龍), 룡정(龍井), 훈춘(琿春) 등 6개 시와 왕청(汪淸, 안도(安圖) 2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州都)는 연길 시이고, 총면적은 4.27만km²이다. 인구는 217.8만 명이며 이 중 조선족은 81.18만 명으로 37.3%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 말기부터 조선족들이 이주하여 개척한 곳으로 이전에는 북간도라고 불렸다. 1952년 9월 3일에 자치구가 설립되었고, 1955년 12월에 자치주로 변경되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의 산지 면적은 3만 2,000km²로 전체 면적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어 연변지역은 산지의 비중이 크다. 이에

비해 평원지역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하천이 많고 수계가 발달되어 땅이 비옥하여 농업에 유리한 지형을 갖고 있다. 연변지역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강은 총 길이 520km인 두만강이며, 나머지 3개는 목단강(牡丹江), 이도송화강(二道松花江), 수분하(水分河)이다. 크고 작은 하천들이 487갈래이고, 그 총 길이는 10,926km이며, 유역 면적이 100km² 이상의 하천이 137갈래이다. 연평균 유수량은 130억m³이다. 연변지역은 풍부한 수력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표수자원 이외에 지하수자원도 비교적 풍부하여 농업용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공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많은 하천들의 중상류는 산맥들을 흘러가나, 물 흐름이 빠르고 낙차가 커서 수력발전에 제공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전체 수력자원량은 64만KW이다.

연변지역의 연간 평균기온은 2℃~6℃, 연간 강우량 500~700mm로서, 북반구의 중온대에 위치해 있다. 우기(雨期)는 6~8월로서, 이 기간 중 연간 강우량의 60%가 집중된다. 강우량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재나 한재가 나타나는 수가 많다. 결빙(結冰)기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로서 5개월이나 되며, 계절풍이 뚜렷한 기후적 특성이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교통이 편리하고 풍경이 수려하다. 연변신흥공업집중(集中)구는 창춘-훈춘 고속도로 연지(延吉) 출구에 위치해 있고, 연지공항으로부터 5km 떨어져 있다. 연지공항은 현재 장춘, 심양, 다롄, 천진, 청도, 연태, 상해, 광주, 북경까지 이르는 국내선과 서울, 해삼위까지 이르는 국제선이 개통되어 있다. 해운 코스는 훈춘으로부터 북한 나진항을 거쳐 한국 부산에 이르는 선로,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거쳐 한국 속초에 이르는 선로, 그리고 러시아 자루비노항, 한국 속초항을 거쳐 일본 니가타에 이르는 여객화물 연

합은행 선로가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백두산의 뛰어난 자연 경경, 독특한 러시아-북한 관광, 조선족 민속풍, 다채로운 역사문화는 아름다운 화폭을 이루어 연변은 거주환경이 매우 좋은 유명한 관광도시로 부각되었다. 지상에는 널리 알려진 장백 임해(林海)와 특산품들이 있고, 지하에는 저장량이 많고 품종이 다양하며 질 좋은 광산물들이 있다.

연변주 활립목(活立木, 살아있는 나무)의 총 축적량은 3.5억 m^2 , 삼림 축적량은 3.4억 m^2 , 삼림 피복률은 78.3%에 달한다. 삼림과 하천에는 1,460여종의 야생 식물이 있으며, 그중 인삼, 영지, 황지, 천마, 오미자 등 약용식물이 800여종, 송이버섯, 목이버섯, 원숭이 머리버섯(猴頭菇) 등 균류식물이 10여종, 산포도, 잣, 호두 등 식용식물과 야생과일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백두산 삼림지구에는 550여종의 야생동물이 살고 있으며, 그중 동북 범(虎), 금전 표범(豹), 꽃사슴, 검은 곰(熊) 등 경제동물이 250여종이다.

녹용, 사향(麝香), 응답, 오소리 기름, 하마기름 등은 연변 수출품의 귀중한 약재이다. 인삼, 녹용, 수달피 가죽은 동북의 3가지 보배로 이름이 나 있다. 이외에 연변의 특산은 사과와 배인데 과일이 크고 껍질이 얇으며 즙이 많고 달아서 저장하기 쉽다.

연변의 지하에는 85종의 광산물이 저장되어 있으며, 그중 이미 탐색해낸 것이 55종이고, 개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39종이다. 1997년 기준 전체 철광석 보유량은 1.3억 톤, 석탄 보유량은 10여억 톤이다. 항공 측정에 의하면 연지분지에는 1억 톤 이상의 석유가 있다고 한다.²⁴

24. 延邊朝鮮族自治州人民政府, “연변조선족자치주 홍보자료” (2011).

2. 옌벤조선족자치주의 경제적 위상

옌벤조선족자치주 설립 이후 60여년의 경제발전은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 하에서 거둔 성과이다. 특히, 옌벤조선족자치주는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동북3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 및 “두만강지역 개발전략” 등 정책적 혜택을 모두 받았다. 이는 옌벤지역경제의 고성장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또한 주변 국가와 지역과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통하여 전반적인 옌벤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프로젝트이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여러 국제기구와 조직의 역할과 중국정부의 역할을 통합함으로 동북진흥전략에 국제요소의 증가와 동시에 더욱 적극적인 국제적인 지지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두만강지역개발에서 중점 프로젝트로 떠오르는 물류, 교통망 건설은 동북아지역경제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옌벤자치주지역 경제발전에도 있어서도 중점 건설프로젝트이다. 현재 있는 항운운송 현황은 지역경제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제 발전에 따른 운송수요를 위하여 두만강지역개발에서의 항만건설, ‘도로-항만-지역’ 일체화 등의 프로젝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두만강지역개발이라는 프로젝트와 동북진흥전략 및 서부대개발전략을 서로 포함시켜 지역경제의 발전에 더 크고 적극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3가지 국가적 전략을 통하여 옌벤지역경제발전을 돌이켜 보면, 우선 고정자산투자는 1952년의 0.2억 위안에서 2011년 507.3억 위안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60년 사이에 2,500여배의 증가로 연평균 14.2%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1년은 창지투발전전략계획에 따라 ‘12차 5개년계획’의 시작을 잘 실시

한 한 해이기도 하였다. 2011년 한해 전 주 지역에서 총생산액은 18% 늘어난 665억 위안에 달했다. 재정수입은 27.3% 늘어난 112억 위안으로 이 중 지방급 재정수입은 29.6% 늘어난 53억 5,000만 위안에 이른다. 재정지출은 24.1% 늘어난 187.6억 위안에 달하게 되고 사회소비품 총매출액은 17.2% 늘어난 302억 위안에 달하며 대외무역 총수출입액은 16.6% 늘어난 18.1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2% 늘어난 1만 9,560위안에 달하고, 농민 1인당 순소득은 16% 늘어난 6,650위안에 달하게 된다. 도시 등록실업률은 3.7%이다.²⁵

2011년 한해에 연변자치주는 2,416개 대상을 시공하였다. 이 중 3,000만 위안 이상이 620개, 1억 위안 이상이 125개에 달한다. 엔지-왕청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룡구수리중추가 저수를 시작하고 국가전력 길림룡화 연길열병합발전소가 발전을 시작하였다. 연변천지 광천수, 왕청화하석지, 안도화상몰리브덴광, 화룡길은니켈업 동니켈광 채취선별 등 대상이 조업되었다. 총 투자액이 416억 위안에 달하는 지린-훈춘고속철도여객운수전용선이 시작되었으며, 연변장안 500kVA 송·변전, 국가전력 길림룡화 화룡배압기, 돈화양수발전유한회사, 룡원연변풍력발전, 돈화탑동철광이 건설 중에 있다.²⁶

연변지역 공업경제는 37.5% 늘어난 740억 위안에 달하는 공업총생산액을 기록하며 건전한 급성장을 이어왔다. 규모이상 공업 총생산액은 27.5% 늘어난 268억 위안에, 이윤은 39.2% 늘어난 43억 위안을 실현하였다. 인삼, 광천수 등 12개의 중대산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새로운 ‘골금공정’을 실행하였으며, 식품(담배), 에너지광물, 임

25- 吉林省統計局, 『연변조선족자치주통계연감』 1990~2012.

26- 吉林省統計局,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공작보고서』 (2012).

산, 의약 등 기동산업의 증가가치는 192억 위안으로서 공업증가가치의 73%를 차지한다. 민영경제들의 주요 수입도 37.2% 늘어난 1,380억 위안에 달하며 지불한 세금은 전체 재정수입의 34.8%를 차지한다.

양곡총생산량도 111.4만 톤에 달하며 농촌경제 총수입은 11.6% 늘어난 96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전문농장과 규모경영 재배농가 및 농업산업화 주요기업이 389호에 달하며 농민전문합작사가 2,011개로 늘어 5.7만ha의 토지가 이전되었다. 반면 2010년에는 제3산업 증가가치는 18% 늘어난 240억 4,000만원에 도달하였고, 국내외 관광객 연 719만 명을 접대하고 관광총수입 83억 위안을 올려 각각 18%, 25% 늘어났었다. 상업무역물류, 금융보험, 교통운수, 체신통신, 부동산, 사회구역봉사 등 업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²⁷

‘창지투전망계획요강’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여, 자치주가 국가가공무역계단식전이 중점접수지로 비준되었고 연길경제개발구가 국가급 고신기술개발구로 승격되었다. 중·러 기업합작에 의한 자루비노항 개조가 실시되고 훈춘-카메쓰와야 철도 재운영의 체제적 장애가 효과적으로 해소되었다. 권하국경출입구 국경다리를 정비·개조하고, 라선경제무역구를 조선과 함께 공동개발·공동관리하는 시스템을 형성하였고, 원정국경출입구에서 라진항까지의 주요 도로를 개조하여 내국무역화물 다국운수통로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장춘-훈춘경유-블라디보스토크 도로여객수송선로가 개통되었다. 한국행 항공편을 새로 늘여 엔지-한국경유-일본 공중항로에 접목시켰

27. 吉林省統計局, 『엔벤조선족자치주통계연감』 1990~2012.

으며 연지-블라디보스토크 공중항로가 중·러 민항부문의 비준을 얻어 연지공항의 파급면이 한층 확대되었다. 도문도로국경출입구가 국가 1급 국경출입구로 확정되고 쌍목봉, 고성리, 사타자 국경출입구 기초시설이 한층 보완되었다.

또한 대조선 조선변경관광의 타지시증수속 시험과 훈춘 루블태환 업무개설이 비준되었다. 두만강지역 중점도시포럼, 동북아무역포럼, 중국조선족기업가포럼, ‘두만강상담회’와 연변주·라선시 지방정부 수뇌쌍무회담을 성과적으로 개최하고 동북아박람회, 상해엑스포에 출품하였으며 연변전시관이 엑스포원의 최우수실천구역으로 선정되었다. 국내 투자유치도착자금은 49% 늘어난 394.3억 위안, 실용 외국인투자는 22% 늘어난 2억 달러, 개인대외노무수입은 8.5억 달러에 달한다. 연변자치주 개발구, 공업집중구 공업증가가치는 29% 늘어난 119억 위안에 달한다. 국내외 관광객은 21% 늘어나 연 876만 명이며 관광총수입도 30% 늘어난 110억 위안에 도달하면서 전체 생산총액의 16.5%의 비중을 차지한다.²⁸

연변조선족자치주 설립 후 60년간, 고정자산투자뿐만 아니라 도시화 건설에도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1,021.6억 위안에 달하는 도시건설투자를 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자치주 부동산개발에도 총 290.1억 위안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지나간 10년보다 13.2배 증가한 것이다. 주택건설에는 연평균 14.9% 늘어난 223.9억 위안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수치들과 발전으로 볼 때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전국 30개 소수민족지역에 비하여 지난 60년간 항상 선두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최근에는 고정자산투자와 소비품소매총액 및 시민저축총액에서

28. 吉林省統計局,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공작보고서』 (2012).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²⁹

[표 IV-1] 중국 30개 소수민족자치주 GDP와 재정수입

(단위: 억 위안, %)

자치주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GDP	증가율	GDP	증가율	재정수입	증가율	재정수입	증가율
옌뱌	379.78	18.0	450.04	18.2	65.49	20.6	72.45	10.6
간난	43.37	11.0	50.81	13.2	4.63	33.6	5.36	17.8
린샤	78.59	13.6	88.30	10.0	7.23	22.8	7.98	10.3
위수	24.52	5.3	25.48	8.1				
하이난	51.60	13.8	57.81	13.6	3.66	26.4	4.64	15.0
황난	33.95	11.0	33.94	0.6	2.95	23.3	3.46	21.8
하이베이	38.19	15.6	42.57	15.7	15.03	697.5	2.59	22.4
궈뤄	12.66	13.1	14.35	11.8	12.67	35.6		
하이시	273.11	20.0	289.30	12.3	54.41	26.9	70.22	29.1
비안궈링	585.76	8.0	530.00	2.3	94.20	41.4	66.91	-28.9
보얼타라	88.22	12.9	100.30	11.5	6.67	-41.3	8.42	-36.7
커쯔러쑤	27.60	10.8	30.01	10.0	3.23	52.3	3.52	9.2
창지	384.95	15.3	449.42	16.5				
이리	670.09	14.9	754.76	14.0	109.30	26.0	113.02	3.3
상시	226.66	8.2	268.97	11.0	24.04	4.9	26.22	9.1
언스	249.18	11.5	280.68	12.8	40.52	30.2	47.50	17.2
첸둥난	228.00	12.0	250.79	12.2	23.72	25.5	31.59	21.4
첸시난	200.31	12.5	231.96	13.1	36.20	38.9	45.10	24.6
첸난	265.59	10.5	302.63	14.6	35.16	18.5	43.99	25.1
시샹뱌나	122.78	10.1	138.64	12.8	15.06	49.1	23.25	54.4
더훙	99.67	11.5	115.20	15.0	14.70	12.8	17.23	17.3
누장	43.67	3.8	48.05	13.1	8.99	-6.2	8.56	-4.8
다리	371.70	12.0	406.76	12.3	60.07	21.6	67.62	12.6
다칭	55.68	18.5	62.26	18.3	5.49	27.2	7.10	29.2
훙허	514.70	10.0	560.88	11.2	129.36	14.7	140.29	8.5

29_ 옌뱌조선족자치주정부 통계자료, 2010.

자치주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GDP	증가율	GDP	증가율	재정수입	증가율	재정수입	증가율
웁산	244.54	12.6	273.53	12.6	27.19	21.5	29.35	7.9
추송	306.02	11.5	342.35	12.2	65.56	20.9	73.30	11.8
간쯔	94.01	10.4	103.16	9.0	17.06	54.2		
이바	75.63	-35.7	109.58	36.0	9.25	-47.4		
량산	561.07	15.2	627.11	15.7	60.03	29.5	71.55	19.2

[표 IV-2] 2009년 지린성 9개 도시 및 지역 경제지표

(단위: 억 위안)

도시/지역	GDP	재정수입	고정자산투자	소비품소매	수출입	가처분소득
장춘시	2,919.3	450.7	2,291.5	1,089.4	85.5	16,072
길림시	1,500.1	157.5	1,490.0	578.8	7.7	15,540
사명시	700.3	43.4	432.1	242.5	1.4	15,100
요원시	342.1	23.8	407.3	90.5	0.5	15,248
통화시	518.0	47.2	581.2	207.8	5.1	15,253
백산시	370.4	36.4	406.7	117.8	1.7	15,035
송원시	915.0	74.2	752.2	276.0	0.7	15,276
백성시	356.6	23.2	348.5	136.7	0.8	15,005
엔벤주	450.0	72.5	568.7	217.8	13.5	13,743

3. 엔벤조선족자치주의 남북한 경제관계

2012년 들어 중한수교 20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역사도 60여년을 기록하고 있다. 기나긴 시간을 거친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협력은 점차 건전하고 온화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 엔벤자치주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엔벤자치주는 지난 10여년의 노력을 거쳐 대외개방에서 이미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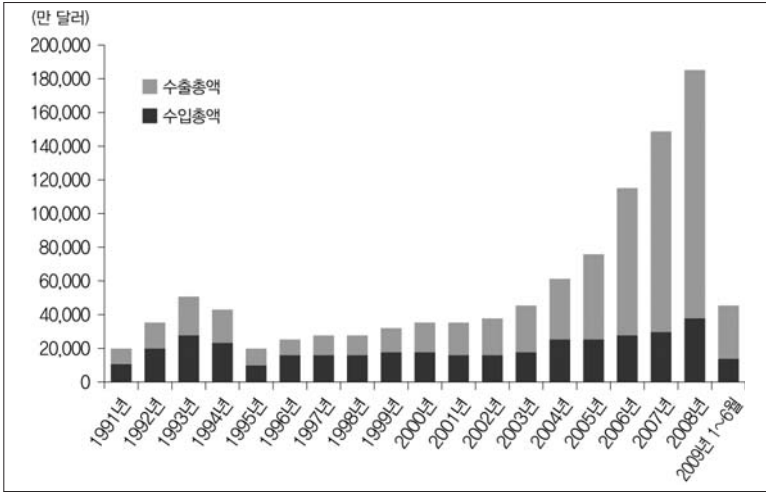
러 단계, 여러 분야, 전 방위적인 새 국면이 형성되었다. 외향성 경제발전이 신속하고 대외무역형식이 다양하여 변경선물무역, 현물외환무역, 가공무역, 중계무역, 집시무역 등 다종무역이 병존하고 상호발전하는 다원화된 대외무역 양상이 전개되었다.

2006년에 이르러 엔벤자치주 대외무역 수출입총액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08년에는 18.2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파트너도 2002년의 60개 국가와 지구로부터 110여개 국가와 지구로 늘어났다. 엔벤자치주의 전체 투자 중 200만 달러 이상 되는 외상투자프로젝트는 14개를 비준하였고 외자계약금 1억 6,008만 달러를 받아들였다. 2008년까지 실제로 등록된 외상투자기업은 780개에 달하며 외상이 실제로 직접 투자한 액수는 7,000만 달러에 달한다. 과거 조용했던 10개 변경통상구와 1개 국제공항은 현재 항상 흥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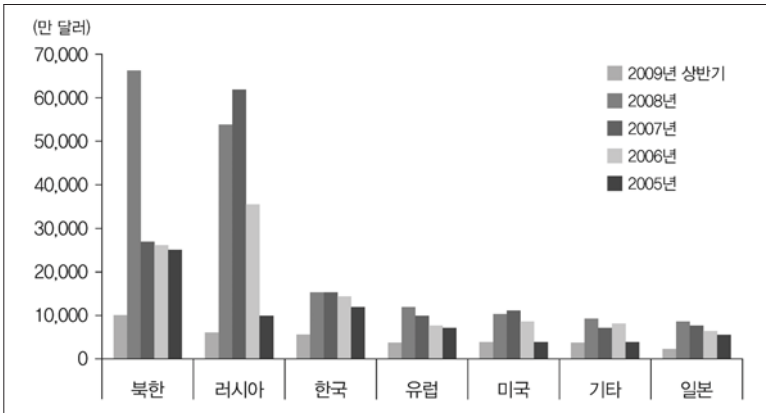
2009년 상반기 엔벤조선족자치주 대외무역 수출입총액은 4.05억 달러에 도달하였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37%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매달 수출입상황으로 볼 때 엔벤자치주 대외무역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월, 5월, 6월에는 수출총액이 25.2%, 66.4%, 18.3%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엔벤자치주 대외수출총액은 3.08억 달러에 도달하였고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34.4% 하락하였다. 무역방식으로 볼 때 기타무역의 감소폭이 가장 커 51.4% 하락하였다. 무역대상으로 볼 때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54.7%나 대폭 감소하였다. 주요 수출상품 중에서 목재 및 목재제품이 엔벤자치주수출액의 20%를 차지하였으나 32.5%의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그림 IV-1] 연변조선족자치주 대외무역 현황(1991~2009)



[그림 IV-2] 연변조선족자치주 국가별 대외무역 현황



[표 IV-3] 최근 3년간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 현황

(단위: 만 달러, 억 위안, 인)

년도	수출입 총액	수출 총액	수입 총액	외국인 직접투자	국내 직접투자	외국노무 송출인원	사적 해외수입
2009년 상반기	40,537	30,826	9,711	2,936	64	13,267	21,034
증가율 %	-37	-34.41	-44.03	-5.1	10	-10	-50.26
2008년	181,791	148,455	33,336	4,828	111.67	17,943	74,922
증가율 %	25.6	23.7	34.7	-26.88	64.7	2.64	-25.5
2007년	144,723	119,979	24,744	6,603	67.8	17,481	100,494
증가율 %	29.91	36.65	4.86	8.4	25.74	3.08	-4.98

외국노무송출은 연변에서 외향성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하나의 특색으로 되고 있다. 전체 연변자치주 외국노무송출인수는 양적으로나 규모, 영역, 수입에서 모두 지린성, 나아가 전국에서 앞자리에 놓여 연변경제발전의 독특한 브랜드로 되었다. 5년간 연변자치주에서 새로 증가된 외국노무송출인원은 2만 3,800여 명이며, 2006년도 사인출국인원섭외노무수입은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집계에 의하면 5년간 사인출국인원섭외노무수입은 누계로 40억 달러를 초과한다. 이는 동시기 재정총수입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노무송출은 이미 연변지역이 부를 축적하는 유효한 경로가 되었으며 노무경제는 연변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발전했다.

나. 연변-북한 경제협력 현황

실제로 중국은 1999년부터 북한 대외무역에 있어서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이 기간 중국의 북한무역 점유율은 25%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6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 중국의 대북무역규모는 41.2% 증가한 27억 8,700만 달러를 기록해 북한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9%로 높아졌다.

2008년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중국과 북한의 무역에서 수출입 무역액이 훨씬 많이 늘어난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은 중국에서 2007년과 비슷한 529,000톤의 원유를 수입했지만 실질 금액은 46.8% 증가한 41,400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또한 주요 수출 품목인 무연탄, 철광석, 선철의 수출액 역시 2007년보다 52.8% 증가한 약 14,000만 달러 증가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09년 1월 28일 열두 번째 ‘무역절’을 맞았다. 현재 북한의 수출은 지난 10년간 10억 달러 고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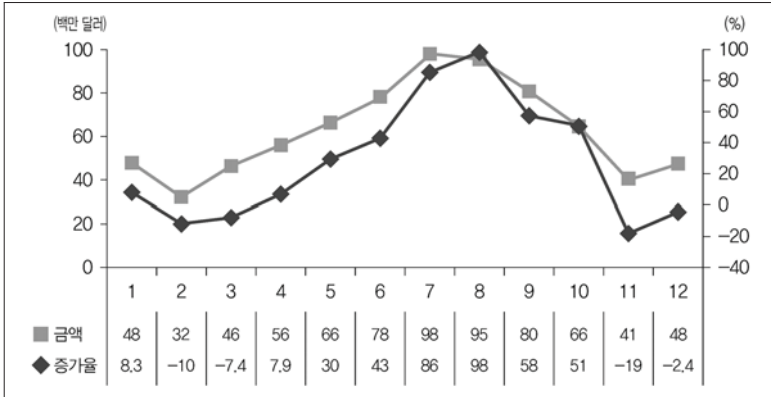
[표 IV-4] 북한의 대중국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합계	
			금액	증가율
2006	468	1,232	1,700	7.5
2007	582	1,392	1,974	16.1
2008	754	2,033	2,787	41.2

중국과의 무역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2.8%의 무역 증가율을 보인 것과 같이 2009년에도 양국 간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북수교 60주년을 맞아 2009년을 ‘중북 우호의 해’로 지정하여 더욱 활발한 정치, 외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안정되고 견고한(2S: Stable and Solid)” 동맹 관계를 통하여 2009년에도 양국의 무역은 유지 및 확대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북한은 2008년 지속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였다. 2009년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 추이를 보면 2008년에 비하여 국제 가격보다 중국의 수요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그림 IV-3] 북한의 월별 대중국 수출 추이



그러나 북한의 대외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북한 군부는 남북 합작사업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한국에 대해 ‘전면대결’을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무수리에서 발사한 인공위성로켓문제까지 연이어 대외정책이 격돌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중국, 북한-일본, 북한-한국 무역거래 중에서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한국의 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70%에 이른다고 한다. 외화가 필요한 북한은 중국에 석탄, 철광석을 비롯한 각종 광물 자원을 넘기고 있으며, 중국도 북한에 석유와 각종 기계류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경제발전을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이 앞으로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엔베조선족자치주 인민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엔베조선족자치주와 북한의 무역액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북한은 엔베조선족자치주의 제1위 무역국으로 되었다. 국내수출입무역이 보편적으

로 하락하고 있는 배경하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외화보유 의도가 비교적 명확하며 정치적인 위험도 주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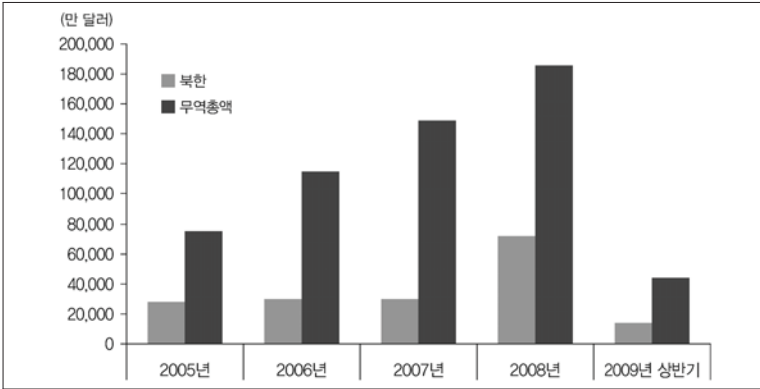
지난 시기 러시아, 북한, 한국은 엔벤조선족자치주의 주요 무역국으로 2007년 엔벤조선족자치주의 대러, 대북, 대한 3개국 무역이 엔벤조선족자치주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 19%, 11%에 도달하면서 러시아는 엔벤조선족자치주의 1위 무역대상으로 되었고 북한은 2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3위를 차지하였다.

2008년 11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엔벤조선족자치주와 북한의 무역수출입총액은 38,872만 달러에 도달하면서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58.1% 증가하였다. 이는 엔벤조선족자치주 수출입무역총액의 32%를 차지하며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13%가 증가한 것이다. 수입총액은 19,115만 달러이고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87.5% 증가하였다. 이것은 엔벤조선족자치주 수입총액의 61%를 차지하면서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14% 증가하였다. 수출총액은 19,757만 달러이고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37.2% 증가하였으며, 엔벤조선족자치주 수출총액의 22%를 차지하면서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7% 증가하였다. 현재 북한은 이미 엔벤조선족자치주의 제1위 무역대상국으로 되었다. 현재 엔벤지역은 북한의 제1위 혹은 제2위 무역상대국으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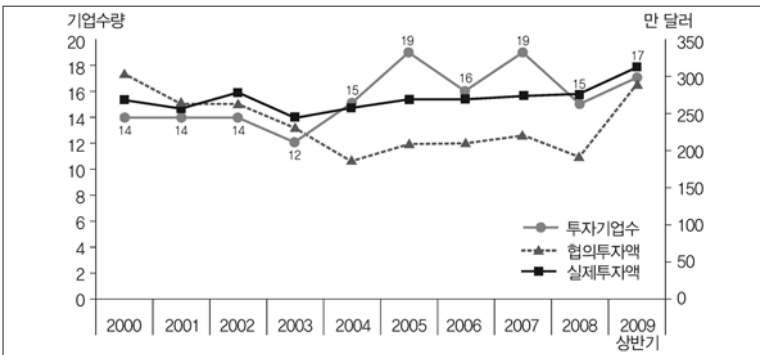
북한기업의 엔벤지역에 대한 투자 상황을 보면 엔벤지역에 진출하여 투자와 영업을 하는 기업은 2000년 14개였으며, 2009년 현재까지 줄곧 12개에서 19개 정도이다. 2005년과 2007년에는 각기 19개 기업을 기록하였지만 투자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북한기업들이 엔벤지역에 투자한 실제 금액이 2002년부터 협의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기업들이 엔벤에 투자하는 업종은 주로 요식회사와 무역회사로 나뉘며 엔벤경제발전에 대한 영향력도 일정한 수준에 멈춰있는 상황이다.

[그림 IV-4] 엔벤지역과 북한 무역 현황



[그림 IV-5] 엔벤지역에 투자한 북한기업 상황



다. 엔벤-한국 경제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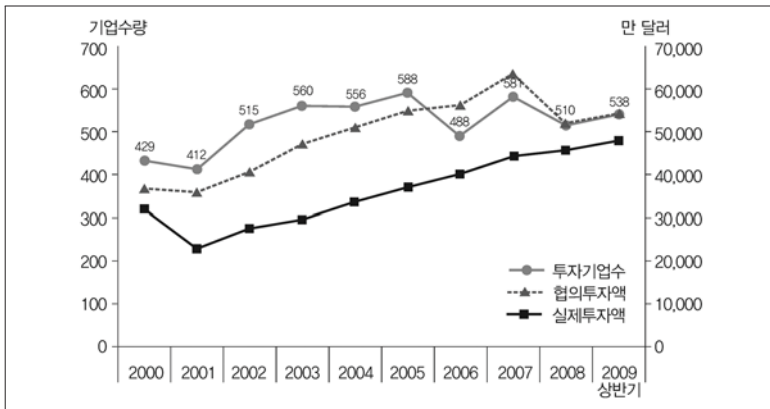
엔벤경제는 한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엔벤자치주 외국노동자 송출인원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엔벤경제에 절대적인 비중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변경제의 한국 의존도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연변지역과의 특별한 인연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연변 지역 진출은 제한적이다. 산동성 등지의 연해지역은 물론 내륙지역인 헤이룽장성보다 오히려 적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이 투자한 연변 기업은 거의 없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연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538개로 총 투자액이 53,709만 달러에 이른다. 연변에 투자한 전체 외자기업의 실제 총 투자액의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다. 비중은 절반을 넘지만 내용은 그다지 평가할만하지 못하다. 연변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공업, 농업, 식품 및 의료위생, IT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그림 IV-6] 연변지역에 투자한 한국기업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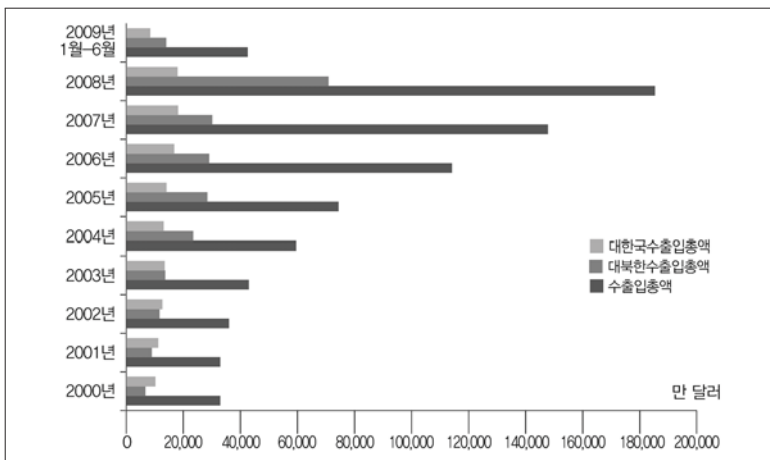
한국기업의 연변투자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갑을방직(현 대경방직)이 한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연변에 투자했다. 이어 의류 방직 등 노동집약형 제조업체와 대우호텔 등 서비스업체가 잇따라 진

출했다. 엔벤훈국상인회에 따르면 이 지역의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관광차 오는 한국인들은 많으나 투자하거나 정착하는 사람들은 적다. 2006년 말 엔벤훈지역에 정착한 한국인은 약 1만여 명에 이르는데 상당수가 소자본을 투자한 생계형 이주자들이다.

2004년에 발표된 한 통계에 의하면 엔벤훈지역에 투자한 비교적 큰 규모의 한국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공업생산기업이 323개로 가장 많고 농업부문이 267개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요식업 43개, 부동산관련업 11개 등이었다. 지역적으로는 엔지시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북한 및 러시아와의 국경무역이 가능한 훈춘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엔지와 훈춘을 제외한 지역에는 한국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한국기업의 엔벤훈진출은 제한적이지만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엔벤훈경제를 떠받치는 중추이다. 2006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엔벤훈으로 송금된 돈이 무려 10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데 이중 한국에서 송금된 것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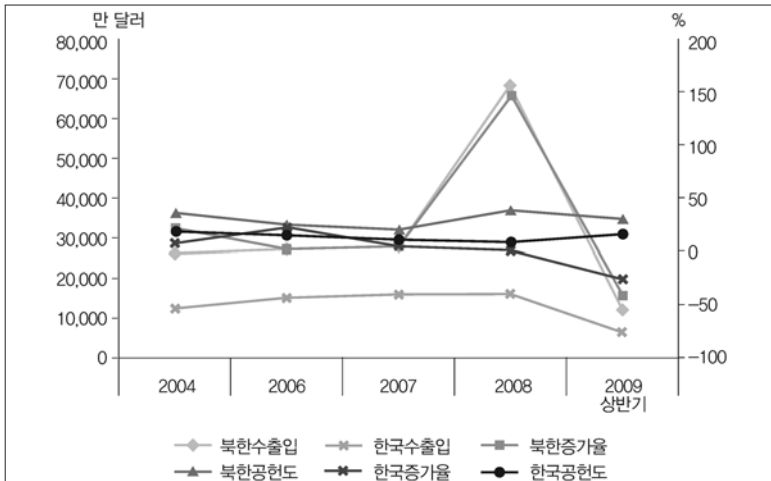
[그림 IV-7] 엔벤훈지역과 한국간의 무역 현황(2000~2009.6)



지난 2000년부터 연변지역과 한반도 북한과 한국의 무역 현황으로 볼 때 2002년까지는 한국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요 무역국으로 북한을 앞서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점차 뒤떨어지면서 2008년에는 북한의 4분의 1에 불과한 정도로 전체 연변지역 무역거래에 대한 공헌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은 2005년 이전에는 연변지역 주요 무역대상국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었지만 2005년에 와서 북한에 밀려 2위를 차지하였다. 2006년부터는 북한과 러시아 뒤를 이어 줄곧 3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무역액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2008년에는 증가율이 0%를 기록하면서 연변자치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자리 수를 기록하는 부진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2009년 상반기에는 수출입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고 있지만 공헌도는 반대로 조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8] 최근 연변지역과 한반도 무역거래 변화



최근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 볼 때 연변지역과 한반도 경제협력 및 무역거래에 있어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직접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수출입방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연변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연변경제의 미래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 연변지역과 한반도 경제협력의 문제점

여러 가지 통계수치로부터 볼 때 연변지역과 한반도 경제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들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연변지역에 존재하는 문제점은 다름 아닌 지리적인 문제가 우선이라고 볼 수 있다. 연변은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발달한 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도시와 연결되는 교통, 물류방면에서 인프라시설이 낙후하여 외래 자본이 투자를 한다고 하여도 물류운송비용이 엄청 많이 늘어나기에 투자유치에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새로운 교통망건설을 실시하고 있지만 진전이 느린 실정이다. 새로운 교통이 건설되더라도 질적인 면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한 연변과 러시아, 북한, 일본, 한국을 연결하는 국제 교통망 건설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로 아직도 검토단계에 있다는 점도 하나의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연변지역 자체 경제구조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전 연변의 지방기업도 중국 다른 지역의 지방기업과 같이 지역 내 경쟁자가 없었으므로 규모의 경제라는 경제원리가 무시되어 명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시장경제를

강화하면서 지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어 타 지역 업체들과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면서 연변의 2차 산업 역시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제고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국 내 역외수출이나 해외수출 등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연변 2차 산업의 제품경쟁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가 1990년대 이후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 위주의 지역경제 개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2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도 연변의 2차 산업이 위축되게 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연변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3차 산업 발전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정부가 지린성 산하에 직할기구를 설치해 연변조선족자치주 관할 하에 있던 장백산지구를 관할토록하고 장백산에 인접한 백산시에 국제비행장을 건설하고 창춘부터 장백산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연변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부정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연변의 3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더욱이 안도로 통하는 장백산 북쪽 면을 제외한 서쪽 면과 남쪽 면을 이용한 관광선로를 건설하고 또한 북한을 통하여 동쪽 면까지 개발함에 따라 연변지역의 관광산업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따라서 연변이 지금까지처럼 3차 산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변지역 경제구조가 불건전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구조조정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아주 중요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변지역은 문화적으로 특수한 지역으로 중국의 개혁·개방과 중한수교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외지로 나가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외국에 노무로 돈벌이를 나간 인력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 동남해지역의 발전 도시로 돈벌이를 나간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 수치는 80만 명에 도달한다. 게다가 옌벤지역 출생률도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투자유치를 하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고급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옌벤대학을 비롯한 지방대학교와 전문학교에서 배양한 인재들이 대부분 외지로 나가는 현실에서 각종 투자프로젝트들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의 발길도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측으로 볼 때, 우선 옌벤지역에 진출하려는 투자기업 중 대기업은 없으며 중소기업에서도 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자본과 기술력도 제한되어 있다. 투자업종을 봐도 농수산물 가공업, 요식업 등에 국한되어 있어 옌벤지역 경제에 대한 역할이 크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를 여파로 한국경제도 큰 영향을 받아 본국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단기간 내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확대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옌벤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였다. 특히 한국에 노무송출로 나간 옌벤지역 인력들이 경기침체로 외화벌이를 못하고 있으며 돈을 벌었다고 해도 환율가치가 너무 내려간 탓으로 옌벤으로의 송금이 끊긴 상황이다. 통계수치에서 보다시피 2008년 7.4922억 달러에 도달하면서 전년에 비하여 절반 정도 감소되었으며 옌벤지역경제에도 부진을 가져왔다.

다음으로는 북핵문제 및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반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들이 해외투자와 합작에도 큰 역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한 주변 환경만이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불안정한 요소들이 존재함으로 하

여 연변지역과 한국의 경제협력도 줄어들고 있다.

북한은 경제의 중심인 중공업과 광업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미 국가자본이 많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처해 있다. 북한정부는 계획경제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7.1 경제개선조치도 일시적인 체제안정책에 불과하였다.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 등 개혁에 반하는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전면적 개방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계획경제의 본질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가경쟁력의 확대나 생산의 획기적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경제발전에서 개방은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경제협력과 무역거래에 있어서 개방과 신뢰뿐만 아니라 협력에 필요한 환경도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다. 정치적인 환경으로 볼 때 핵실험으로 형성되는 국제적인 제재와 봉쇄로 경제협력과 무역거래를 차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으며 정책적인 환경도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며 인프라환경도 매우 낙후하여 경제발전에 역효과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핵실험으로 일어난 정치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긴박한 요인이다.

4. 창지투 개발계획에 따른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변화

가. 두만강개발계획과 함께 하는 연변경제

지린성연변조선족자치주는 두만강경제개발지역(TREDA: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의 한 부분으로 동쪽으로는

러시아 빈해국경지역의 허산자유경제구와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두만강과 북한의 함경북도, 양강도 나진·선봉경제특구와 이웃하며 북쪽은 흑룡강(黑龍江)성에 접경하고 서쪽으로는 지린성 교하(蛟河)시와 연결되어있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북한, 러시아의 접경지역으로 두만강지역 및 환동해지역 그리고 동북아지역 각국 간의 정치적·안보적·경제적 중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변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중국 정책환경의 변화에서도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우선적으로 연변지역을 소수민족지역의 정책적 우대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서부대개발정책에 대한 우대정책을 같이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변지역의 인프라시설, 산업구조조정 및 생태환경개선에 정책적 우대조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국동북성에 대한 동북진흥정책에 따라 지린성에 포함되는 연변은 지역경제 및 공업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의 두만강지역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철도, 도로 등의 교통망 등 기초기반시설의 건설로 현재 연변지역은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연변지역 GDP 증가 추이를 보면 1985년 19.2억 위안에서 2011년에는 651.7억 위안에 달해 26년 동안 34배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1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변지역의 경제성장은 다음의 4단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로 1987년과 1988년에는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과속성장으로 인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과정 중에 사재기 열풍으로 재고의 축소와 더불어 단기적 생산이 늘어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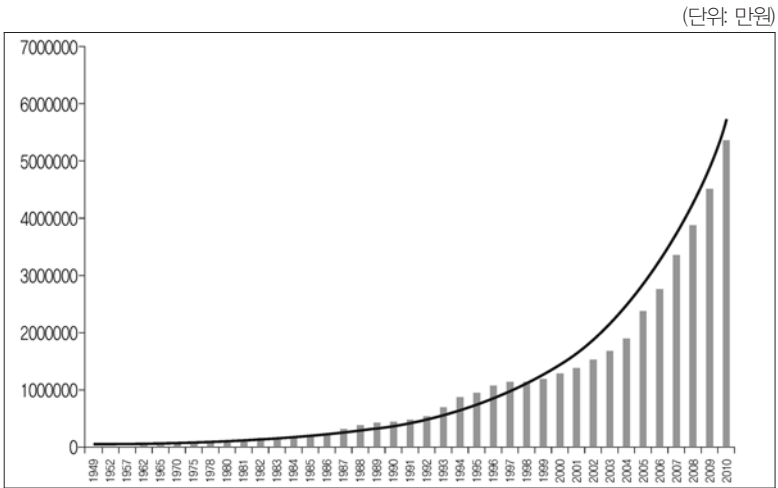
두 번째 단계로 1992년 이후에는 1989년부터 시작된 ‘치리정돈

(治理整頓)’이라는 중국식 구조조정 실시로 낮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구조조정 이후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단계로 1997년에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특히, 한국의 금융위기로 이 지역 관광업의 급속한 침체와 더불어 3차 산업의 위축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네 번째 단계로 199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두만강지역의 지리적 이점과 중국정부의 지원정책 그리고 두만강지역의 개방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9] 1949~2010 연변조선족자치주 총생산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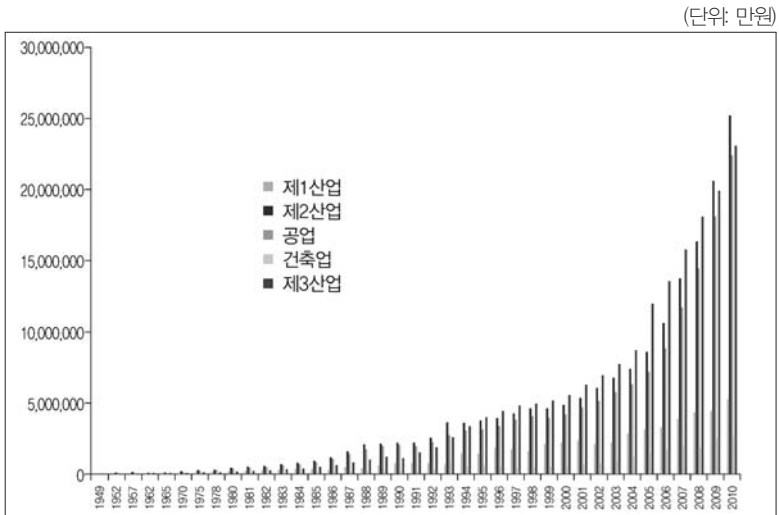


한편으로 연변지역 경제구조 또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2차 및 3차 산업이 이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1990년대 들어 1차 산업은 정체 또는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2차와 3차 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3차 산업의 성장

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후 연변지역 경제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1990~2010년간 각 산업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을 보면 1차 산업은 9.1%, 2차 산업은 12.3%, 3차 산업은 15.2%를 각각 기록하고 있어 3차 산업의 성장률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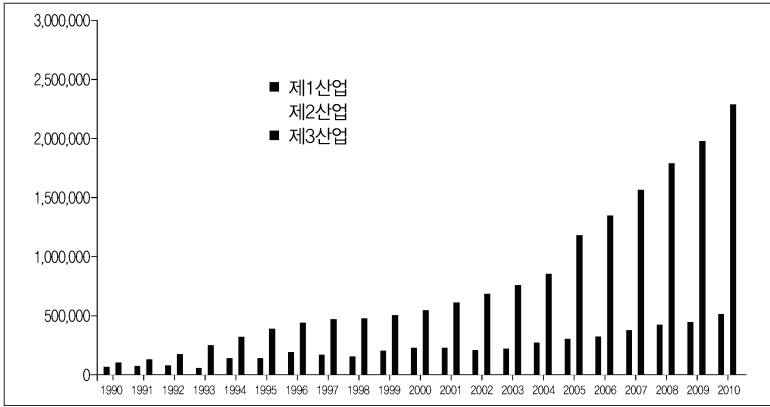
[그림 IV-10] 1949~2010 연변조선족자치주 산업별 발전변화



이처럼 연변지역의 대내외적인 정세 및 정책, 경제 현황 등이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연변지역의 대외무역 또한 1991년 1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1년에는 18.6억 달러로 2000년 이후 11년 동안 평균 16.2%에 가까운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에는 11.1억 달러를 넘어서 연변지역이 대외무역을 개방한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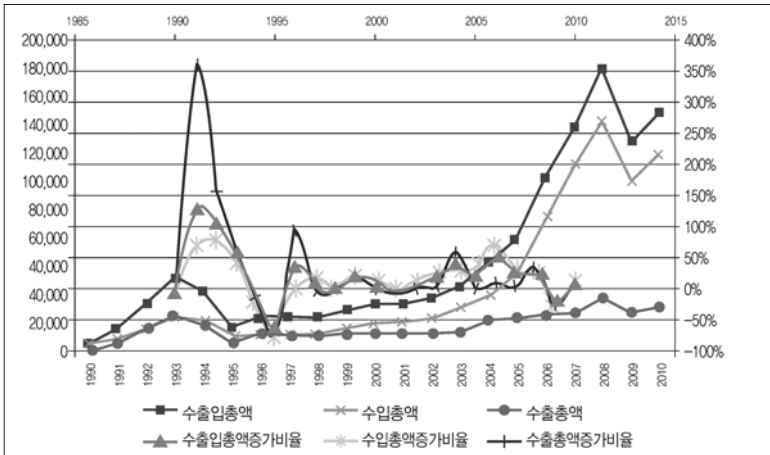
[그림 IV-11] 1990~2010 연변조선족자치주 산업별 발전변화

(단위: 만원)



[그림 IV-12] 1990~2010 연변조선족자치주 대외무역 발전변화

(단위: 만 달러)



현재 연변지역은 경제발전의 목표를 수출지향형 경제성장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입 경제성장을 통한 대외무역의존도를 높이고자 외자기업 유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통상구 및 개발구 등의 정비와 함께 인프라관련 각종 프

로젝트를 신설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로 인하여 연해지역의 외자기업들이 우대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동북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동북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경제 환경 개선 및 동북진흥정책의 홍보와 때를 같이하여 외자기업 유치를 위한 옌벤지역을 포함한 지린성에서 다양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 더불어 개발구 진출기업에 대한 각종 유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기업진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옌벤지역 통상구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옌벤지역 외국인직접투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2001~2010년까지의 완만한 성장기 시기를 통하여, 투자 협의수, 협의투자액, 평균협의 투자액, 실제투자액 모두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 시기 역시 누적 등록된 외자기업수에서 차지하는 한국기업의 비율이 74%까지 높아졌다.

다음으로 옌벤조선족자치주 한국 투자기업 조사연구팀의 자료를 참고해 보면, 조사대상 기업 358개 중에서 투자액이 5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이 8개로 기업수의 2%에 지나지 않으며, 100~499만 달러의 기업도 36개로 기업수의 9%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액 1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이 11%인 반면 투자액 50만 달러 미만의 기업이 312개로 81%를 점유하는 등 대다수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 투자규모 대부분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옌벤지역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옌벤지역에 투자한 국가는 2011년 말 현재 24개 국가 및 지역으로 그 중 누계기준으로 한국은 기업수 745%, 합동 외자액 526%, 외자실제투자액 630%로 모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기업수, 실제투자액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업종별 투자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기업수 710%, 합동 외자액 681%, 외자실제투자액 789%로 모두 제일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엔벤지역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별 현황을 보면, 누계기준으로 독자기업이 기업수 766%, 합동투자총액 526%, 합동외자금액 624%, 외자실제투자액 588%로 다른 합자, 합작기업 투자보다 모두 월등하며 2006년에는 전반적으로 동기대비 합자기업의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연길시의 투자가 두드러지며, 실제 외자투자액에서는 누계기준으로 훈춘시의 투자가 제일 많으며 엔벤주 직속투자 그리고 연길시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엔벤지역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을 정리해보면, 1980년대는 1984년 첫 대외투자를 시작으로 하여 준비기로 볼 수 있으며, 본격적인 대외개방의 출발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990년대 초반 UNDP의 TRADP 개발전망에 대한 기대 및 그에 따르는 중국정부의 엔벤지역 개방과 경제발전의 추진, 1992년 한중수교 등으로 빠른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 특히, 한국의 금융위기의 영향, 두만강지역개발 붐의 침체상황, 엔벤지역 투자환경의 문제점 노출 등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이 시기 외국인직접투자의 평균 투자규모 및 투자영역의 확대, 기술밀집형 산업의 진출 등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며 질적 전환이 시작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중국의 WTO 가입, 한국 경제의 회복 등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엔벤지역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엔벤지역 외국인직접투자를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으며, 실제투

자역 총 누계 측면으로 보아도 한국자본과 홍콩·대만의 화교자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민족적으로 밀접한 관계 즉, 양분론적인 민족적 관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 창지투 개발계획 이후 연변경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여러 민족 인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다. 우선 경제역량이 뚜렷이 향상되었다. 2011년에 연변자치주 GDP는 652억 위안으로 1952년의 61배에 달하였고, 1인당 생산 총액은 2만 9,782위안으로 1952년의 21.5배에 달하였다. 연변자치주 재정수입은 258만 위안에서 112억 위안으로 늘어나 연평균 성장률이 15.3%에 이르렀다. 그리고 고정자산투자액은 1,851만 위안으로부터 507.3억 위안으로 성장하여 자치주 정식적인 통계를 시작해 서부터 약 2,000여 배 늘어났다.

도시와 농촌의 면모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연변자치주 8개 도시의 도로, 물공급, 전기공급, 열공급, 가스공급, 통신, 쓰레기처리, 오물처리 등 기초시설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었다. 2011년 말, 연변자치주 1인당 도시도로면적은 10.42m², 수도물 보급률은 96.34%, 가스 보급률은 96.72%, 1인당 공원 녹지면적은 11.92m², 녹화피복률은 41.65%에 달했다. 그리고 연변자치주 고정전화 사용가구는 69.9만 세대, 이동전화 사용인구는 242.8만 명, 인터넷 사용가구는 39.1만 세대에 달하였는데 그중 초고속인터넷 접속가구는 35.4만 세대에 달한다. 전화보급률은 100명당 143대이다.³⁰

30- 吉林省統計局,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공작보고서』 (2012).

개발, 개방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 자치주 8개 현, 시에서 한 시간 경제권을 달성하고, 성소재지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전면 개통하였으며, 지린-훈춘고속철도를 건설 중에 있고, 동북 동부철도 화룡-이도백하구간을 개통하였으며, 12개의 통상구를 개방하고,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아가는 전략적 목표를 초보적으로 실현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엔지공항 여객유동량이 연인원 100만 명을 초과하고 북경, 상해, 심양, 천진, 인천, 부산 등 12갈래의 국내, 국제 항로를 개통하였다. 또한 2011년 엔벤자치주 도로화물운송량은 1952년에 비해 52배 늘어나고 도로여객운송량은 358.5배,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38만 달러로부터 18억 5,505만 달러로 늘어났다. '11·5' 기간 해외노무수입이 41.5억 달러에 달하여 엔벤은 국가 개발개방 선도구의 '창구'와 '전초지'로 되었으며 훈춘은 중국두만강지역국제합작 시범구로 되었다.

사회사업이 전면적으로 진보하였다. 2011년 엔벤자치주 대학교 재학생은 2.2만 명으로 1952년의 19.6배에 달하였으며, 엔벤자치주 공공도서관은 9개, 박물관은 10개, 라디오종합피복률과 TV종합피복률은 각기 99.7%와 97.5%에 달하였으며, 엔벤자치주 의료위생기구는 1952년 159개로부터 2011년 1,201개로 늘어났다.

시민들의 생활이 뚜렷이 개선되었다. 2011년 도시주민들의 1인당 거주면적은 25.24㎡, 농촌주민 1인당 거주면적은 23.81㎡에 달하였으며, 엔벤자치주 재직종업원들의 평균임금은 2만 7,465위안으로 1952년의 57.8배에 달하였다. 그리고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6,250위안,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9,558위안에 달하고, 엔벤자치주 주민저금여액은 591.1억 위안, 1인당 저금은 56위안으로부터 27,756위안으로 늘어났으며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302.9억 위안

에 달했다.³¹

도시와 주요 경제대로의 인구 이동과 집중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현재 엔벤자치주의 총인구는 227만 1,600명이다. 이 중에서 엔지시 인구가 56만 3,154명으로 엔벤자치주 총인구 가운데서 점하는 비중이 10년 전인 2000년의 19.57%로부터 현재의 24.79%로 증가하였다. 훈춘시 인구는 24만 1,861명으로 그 비중이 10년 전의 9.55%로부터 10.65%로 증가하였다. 도문시의 인구는 13만 4,498명으로 그 비중은 5.99%로부터 5.92%로 큰 변화가 없었다. 돈화시의 인구는 48만 3,631명으로 10년 전 21.76%로부터 현재 21.29%로 거의 비슷하다. 왕청현의 인구는 25만 5,499명으로 그 비중이 11.58%로부터 11.25%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안도현의 인구는 22만 6,065명으로 비중 면에서 9.97%로부터 현재 9.95%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용정시의 경우는 17만 7,295명으로 그 비중이 10년 전 11.84%로부터 현재 7.80% 감소하였다. 화룡시 인구는 18만 9,597명으로 그 비중이 10년 전 9.74%로부터 8.35%로 하락하였다.

한편 엔벤자치주에서 인구가 비교적 많은 현과 시는 엔지시, 돈화시, 왕청현, 훈춘시로 엔벤자치주 총인구 가운데서 점하는 비중이 각각 24.79%, 21.29%, 11.25%, 10.65%이다. 인구밀도(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가 높은 현과 시는 엔지시, 도문시, 용정시로 각각 322명, 117.80명, 80명이다.³² 연릉도기획 실시와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실시에 따라 인구가 연릉도와 주요 경제대로 이동하고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31- 엔벤조선족자치주정부 통계자료 (2012).

32- 위의 자료.

V. 창지투 개발계획과 북·중 경제협력

1. 서언

창지투 선도구가 위치한 지린성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1,200km의 변경선을 갖고 있으며 10개의 통상구와 3개의 임시 통상구가 있다. 변경 일대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와 통화지역의 장백(長白)조선족자치현, 임강(臨江)시, 집안(集安)시 등 크고 작은 30여 개의 변경도시와 향진들이 있다. 따라서 지린성은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경무역은 주로 지린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남방기업들은 지린성을 중계지로 북한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지린성은 대북 광산물 수입의 중요한 창구이다.

2009년 중국의 창지투를 선도구로 한 두만강개발 계획요강이 발표된 후 지린성의 대북 경제협력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2011년 6월 9일 북·중은 나선에서 공동으로 “중·조 나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 공동관리 프로젝트 기공식(中朝共同開發和共同管理羅先經濟貿易區項目的啓動儀式)”을 거행하였다. 뒤이어 2011년 7월 26일 중국 지린성과 북한 나선특별시 “중·조 나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관리사업위원회” 제1차 회의가 창춘에서 열렸고 지린성과 나선시는 공동으로 「중·조 라선경제무역구(2011~2020년)계획 틀에 관한 협

의서』를 체결하였다.³³ 창지투 선도구에서는 두만강 개발 100개 중점 건설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2,908억 4,531만 위안(5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³⁴ 본문은 지린성의 대북무역과 투자 현황 및 창지투 개발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토의하려고 한다.

2. 2000년대 지린성과 북한 간 경제협력

가. 지린성 대북무역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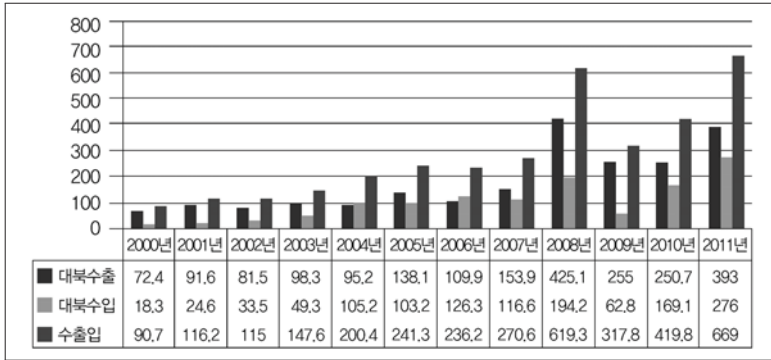
첫째, 무역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 지린성의 대북무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린성의 대북무역액은 2000년의 9천만 달러에서 2008년 6.1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9년에는 3.17억 달러로 대폭 하락하였다가 2011년에는 6.69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0년대 지린성의 대북무역액은 상하 변동폭이 커 다소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V-1]).

33- 『길림신문』, 2011년 7월 26일.

34- 『엔벤일보』, 2009년 12월 21일.

[그림 V-1] 2000년대 지린성의 대북무역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 <<http://www.customs.gov.cn>>.

2000년대 중반까지 동북3성은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90%를 점하였다. 이후 동북3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70%대로, 2007년에는 60%대로, 2010년에는 50%대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산둥성(山東), 허베이성(河北), 장쑤성(江蘇) 등 여타 지역들의 대북무역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이들 3성의 대북 수입은 6배 가까이 증가하여 동북3성의 대북 수입액을 능가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산둥성(山東), 허베이성(河北), 장쑤성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대량의 무연탄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산둥성(山東)이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의 6.98%에서 2011년의 15.54%로 급증하여 지린성의 11.88%를 초과하였다.

[표 V-1] 중국의 지역별 대북무역추이(2008~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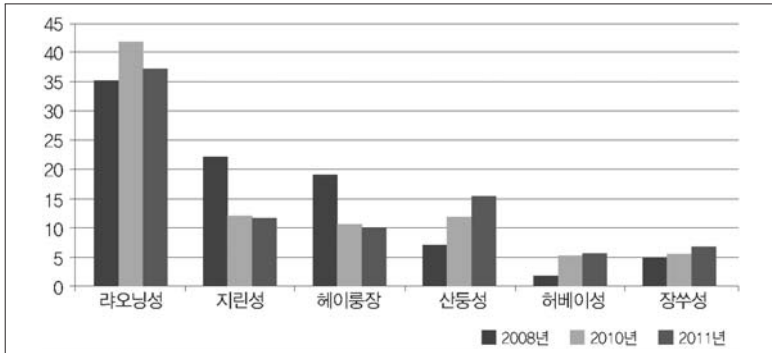
(단위: 만 달러, %)

	수입			수출			무역액		
	2008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10년	2011년
랴오닝성	343.2 (45.52)	488.6 (41.13)	903.1 (36.65)	639.1 (31.43)	967.8 (42.49)	1202 (37.98)	982.3 (36.24)	1456.4 (42.02)	2105.1 (37.40)
지린성	194.2 (25.76)	169.2 (14.24)	275.7 (11.19)	425.2 (20.91)	250.71 (11.01)	392.9 (12.41)	619.4 (22.22)	419.9 (12.12)	668.6 (11.88)
헤이룽장	1.1 (0.15)	0.4 (0.03)	3.1 (0.13)	503.6 (24.77)	375.8 (16.50)	574.6 (18.15)	504.7 (18.11)	376.2 (10.85)	577.7 (10.26)
산둥성	105.5 (13.99)	269.3 (22.67)	632.4 (25.66)	89.2 (4.39)	149.2 (6.55)	242.2 (7.65)	194.6 (6.98)	418.6 (12.08)	874.6 (15.54)
허베이성	16.7 (2.22)	127.6 (10.75)	314.6 (12.77)	33.6 (1.65)	56.0 (2.46)	78.2 (2.47)	50.3 (1.81)	183.7 (5.30)	392.8 (6.98)
장쑤성	60.3 (7.99)	102.5 (8.63)	256.9 (10.43)	84 (4.13)	92.8 (4.07)	125.6 (3.97)	144.2 (5.17)	195.3 (5.63)	382.5 (6.79)
기타	33 (4.38)	30.2 (2.54)	78.3 (3.18)	258.7 (12.72)	385.4 (16.92)	549.6 (17.36)	291.7 (10.47)	415.7 (11.99)	627.9 (11.15)
합계	754	1187.9	2464.2	2033.2	2277.8	3165	2787.3	3465.7	5629.2

자료: 중국해관통계, <<http://www.customs.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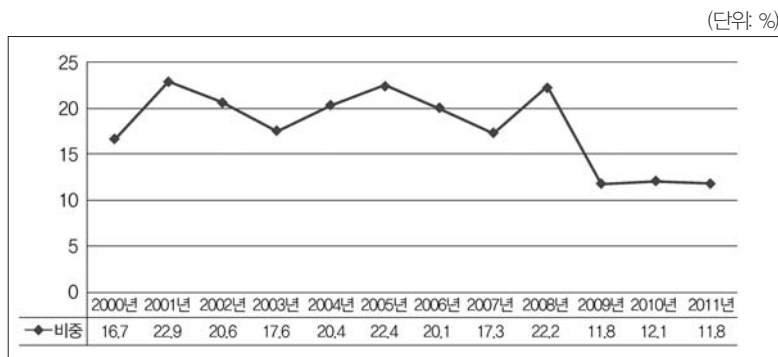
[그림 V-2] 중국의 지역별 대북무역추이(2008~2011년)

(단위: 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 <<http://www.customs.gov.cn>>.

지린성의 대북무역액은 2000년대 들어와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11.8%를 차지함으로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V-3] 2000년대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지린성의 비중



자료: 중국해관통계, <[http:// www.customs.gov.cn](http://www.customs.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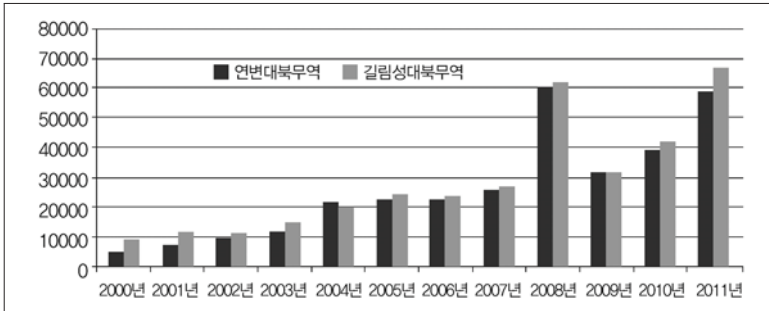
지린성의 대북무역 비중이 하락하는 요인의 하나는 연변(延邊)지역 무역회사들의 수출입 루트와 일정한 연관이 있다. 연변지역의 일부 무역회사들은 대북무역 수출은 연변의 통상구들을 통하여 수입은 남방 기업들에게 FOB 가격으로 넘겨준다고 한다. 예를 들면 모 무역회사는 연변의 투먼세관을 통해 북한 청진지역에 코크스를 수출하고 그 대신 받은 북한의 무연탄은 산둥성, 장쑤성 등 남방지역의 기업들에게 넘겨주고 있다. 2011년 산둥성과 저장성 등 지역의 대북수입은 수출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지린성의 대북무역 수출이 수입을 훨씬 초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한다.

둘째, 연변(延邊)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린성의 대북 무역은 두만강을 사이에 둔 연변지역과 압록강을 사이에 둔 통화지

역(창바이현, 지안, 린장 등 3개 현, 시를 포함)에서 진행되는데, 그 중 옌벤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0년대 지린성의 대북무역에서 옌벤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0~90%를 유지하였다.

[그림 V-4] 2000년대 지린성의 대북무역과 옌벤(延邊)의 대북무역액

(단위: 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 <[http://: www.customs.gov.cn](http://www.customs.gov.cn)>.

셋째, 수출은 농산품 위주, 수입은 광산물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지린성의 대북 수출은 식량, 방직품 원자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린성은 중국의 대북 식량 수출의 주요 지역으로서 2011년 지린성의 대북 수출 중 옥수수과 쌀 등 식량이 16%를 차지하였다. 2011년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옥수수는 4,583만 달러(13.7만 톤)였는데 지린성의 대북 옥수수 수출은 4,202만 달러로서 중국의 대북 옥수수 수출의 대부분은 지린성이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것은 면직물과 염색물 등 방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이다. 이는 옌벤의 의류회사들이 나선지역의 의류기업들과 위탁가공 무역을 하기 위한 원자재 수출이다.

[표 V-2] 2011년 지린성의 대북 10대 수출상품

(단위: 달러, %)

순위	코드	품목명	수입액	비중
1	100590	옥수수	42,021,931	11
2	610910	면직물	20,030,494	5
3	100630	쌀	14,269,843	4
4	640399	신발	12,693,945	3
5	090420	빨간 고추	10,850,765	3
6	600632	염색물	10,237,543	3
7	030551	마른 명태	8,522,751	2
8	150710	콩기름	7,687,013	2
9	560811	물고기그물	7,186,691	2
10	870423	차량	6,340,044	2

자료: 중국해관통계, <[http://: www.customs.gov.cn](http://www.customs.gov.cn)>.

2011년 지린성의 주요 대북 수입품은 철광분, 합금강, 동 반제품, 철 반제품 등 광산물이 40%, 해산물이 17%, 방직품이 8% 등이다. 철광분은 주로 연벤토탄츠(天池)공업유한회사, 연벤주의 투먼시와 허룽시의 일부 무역회사들이 무산광산과 청진김책제철소 등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며, 동과 합금강 등은 창바이현, 지안시 등 지역의 무역 회사들이 북한의 양강도와 자강도의 광산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해산물은 여전히 1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광산물에 비해 비중이 훨씬 낮아졌다. 2011년 중국의 대북 수입에서 선두를 차지하였던 석탄은 지린성의 대북 10대 수입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석탄수출은 주로 산둥성이나 장쑤성 등 남방지역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표 V-3] 2011년 지린성의 대북 10대 수입상품

(단위: 달러, %)

순위	코드	품목명	수출액	비중
1	260111	철광분	72,114,706	26
2	030749	해산물	46,293,413	17
3	260300	동 반제품	25,341,967	9
4	080290	견과류	21,440,148	8
5	720110	합금강	19,957,322	7
6	610910	방직품	17,268,419	6
7	720610	비 합금강	6,982,370	2
8	740311	동 반제품	4,486,770	2
9	621132	복장	4,424,520	2
10	260112	철 반제품	4,153,65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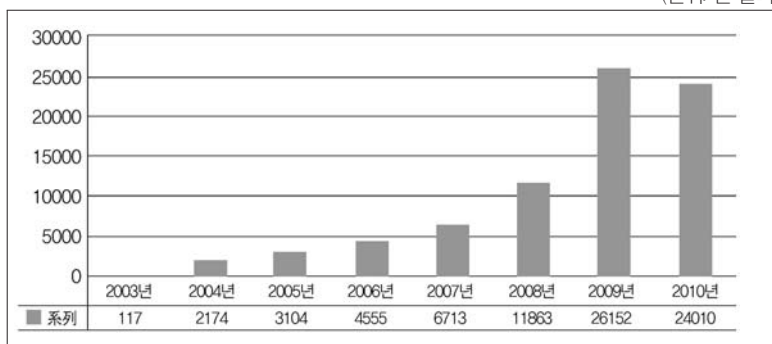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통계, <<http://www.customs.gov.cn>>.

나. 지린성의 대북 투자

2000년대 중국기업들의 대북 투자는 대부분이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변경지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변경지역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고 장기간의 대북 교류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분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일정한 부를 축적해 온 남방계 기업들은 변경지역을 통해 북한에 투자를 하고 있다. 연벤탄츠공업유한회사의 무산광산에 대한 투자, 중국우광(五礦)그룹의 창바이(長白)현을 통한 해산동광에 대한 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 기간 중국의 대북투자 누계액은 24,010만 달러이다.

[그림 V-5]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 누계액

(단위: 만 달러)



자료: 중국상무부 통계국, 『중국대외직접투자 통계』, <<http://www.fdi.gov.cn>>.

북한정부는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자원개발 관련 기업들의 대부분은 보상무역 형태를 취하므로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무산광산에 투자한 엔벤텐즈공업유한회사도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보상무역형태로 철광분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대북 실제투자 기업수와 투자액은 중국 상무부에 등록된 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본다.

지린성의 대북 투자는 주로 북한의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엔벤텐즈공업무역회사는 무산철광에 1.3억 위안을 투자하였고 창바이현의 대북 투자기업 중 13개 기업이 북한 양강도의 갑산철광, 보천금광, 후창 몰리브덴광, 8월동광, 신파 몰리브덴광산 등에 투자하였으며, 집안시 이창(懿昌)회사는 독자적으로 북한의 평안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등 지역의 철광, 연, 아연광, 몰리브덴광 등 여러 광산에 투자하였다.

2009년 중국정부가 두만강개발 계획 요강을 발표한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는 자원개발위주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부문과

제조업으로 이전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6월 9일 나선시에서 거행된 중·조 경제협력 착공식에서 지린성의 야타이(亞泰) 그룹은 나선시에 100만 톤 시멘트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협의하였다.³⁵ 지린연초그룹 산하의 옌지(延吉)담배공장에서는 평양에 대동강 연초합영유한회사(2000년), 백산연초유한회사(2008년)를 설립한 데 이어 2011년에는 나선특별시에 독자기업인 나선신흥연초회사를 설립하였다. 현재 이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 중 일부는 북한시장에서 판매하고 일부는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³⁶

2000년대 중반부터 지린성의 대북 임가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훈춘윈따(運達)의류회사에서는 2005년부터 북한 나선시 은하 의류회사 등 4개 회사(1,500명 노동자)와 의류 위탁가공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각종 내의들을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했는데 인건비의 상승과 구인난으로 나선시 은하의류회사와 위탁가공협력을 시작하였다. 중국 측에서 설비와 원자재를 공급하고 북한에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은 나진항을 통해 직접 한국과 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위탁가공 협력을 진행하였고 나선시 정부에서도 대폭 중시하는 사업이다.

최근 북한은 일본,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섬유, 의류분야의 위탁가공 교역이 대폭 위축된 상태이다. 현재 이 분야의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옌벤지역 동일 업종 노동자임금의 20~30% 정도이다. 윈따(運達)의류회사 이외에도 훈춘시풍화(風華)의류회사, 훈춘시초외(超越)무역유한회사도 나선시의 의류회사들과 의류위탁가공을

35. “중국 시멘트 생산업체, 북한 나선시에 전격 독점투자권 따내,” <<http://www.kotra>> (검색일: 2011.6.20).

36. “길림연초공업의 대조선 투자” (옌벤대학동북아연구원과 한국평화문제연구소 공동세미나 논문집, 2011.8.30).

진행하고 있다. 2000년대 지린성의 대북 수출에서 합섬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과의 의류, 봉제 임가공사업 확대에 기인한다.

3.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간 경제협력 동향

가. 협력체계의 구성과 계획의 구체화

2010년 9월 중국 창춘에서 열린 제6차 동북아투자자무역박람회에서 『엔벤조선족자치주와 나선특별시 인민위원회 간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협의회서』를 체결하고 통로구축, 국경관광, 통관환경, 다국적 운송 등 9개 방면에서 공동협력을 하기로 하였다.³⁷ 2010년 12월 북한 합영위원회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후속작업으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을 작성하였다.

이어 2011년 6월 9일 중국과 북한은 나선특별시에서 공동으로 ‘중·조 나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 공동관리 프로젝트 기공식(中朝共同開發和共同管理羅先經濟貿易區項目的啓動儀式)’을 진행하였다. 중국측에서는 상무부 천더밍 부장이 참여하였고, 북한 측에서는 장성택 등 국가급 책임자들이 참여하였다. 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두 개 섬과 한 개 경제구(2島1區)개발협력 연합지도위원회’와 성 1급 개발협력 연합지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린성 정부에서는 나선특구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2011년 7월 26일 중국 지린성과 북한 나선특별시 간 ‘중·조 나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관리사업위

37. 『엔벤일보』, 2010년 11월 17일.

원회' 제1차 회의가 창춘에서 열렸다. 지린성과 나선시는 공동으로 「중·조 라선경제무역구(2011~2020년)계획 틀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하였다.³⁸

창지투 선도구에서는 두만강 개발 100개 중점 건설프로젝트를 작성하고 2,908억 4,531만 위안(5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³⁹ 이는 당초 UNDP가 계획했던 300억 달러보다 200억 달러가 더 많은 금액이다. 중국정부는 상술한 자금을 2011~2020년에 이르는 국민경제 '12·5' 계획과 '13·5' 중장기 계획 예산안에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2010~2015년 기간에는 중국 내 인프라 시설과 산업단지 건설을 주요과제로 하고, 2016~2020년 기간은 역외 운송통로 구축을 주요 과제로 한다는 개발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나. 훈춘국제합작시범구 설립

중국정부는 두만강지역 국제합작 개발을 진일보 추진하고 훈춘시의 대외창구 역할을 진일보 발휘시키기 위하여 2012년 4월 13일 '중국두만강지역 훈춘국제합작시범구건설을 지지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이라고 약칭함)을 반포하였다.

훈춘국제합작시범구의 범위는 90km²로서 국제산업합작구, 변경무역합작구, 중·조 훈춘경제합작구와 중·러 훈춘경제합작구 등을 포괄한다.⁴⁰ '의견'에서는 훈춘국제합작시범구의 전략적 지위를 동북

38. 『길림신문』, 2011년 7월 26일.

39. 『엔벤일보』, 2009년 12월 21일.

40. 國務院辦公廳, “國務院辦公廳關於支持中國圖們江區域(琿春)國際合作示范區建設的若干意見,” 『中國政府門戶網站』, 2012, 19号.

아지역의 중요한 종합교통허브와 상업무역물류 중심지로, 동북지역의 중요한 경제성장극으로, 두만강지역 국제협력의 교두보로 규명하였다. ‘의견’에서는 2015년까지 비교적 완벽한 기초시설체계를 구축하고 양호한 시장체계와 법률환경을 조성하며 상업무역물류, 변경관광과 다국관광업을 힘써 발전시켜 개방성경제 발전구조를 초보적으로 형성하고, 2020년까지 분포가 합리적이고 기능이 구전하며 서비스가 완벽하고 상업무역이 번성한 국제합작시범구로 건설할 것을 향후 10년간 분투목표로 제시하였다.

사회기초시설 건설의 중점은 지린-투먼-훈춘철도, 훈춘시에서 각 변경통상구로 통하는 고급도로와 훈춘-동녕(東寧)철도의 1기공사, 훈춘통상구와 훈춘철도통상구의 기초시설확장 개조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여 훈춘국제합작시범구의 대외통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외무역의 중점은 훈춘의 지리적 위치를 충분히 이용하여 변경무역, 중계무역과 서비스무역을 대폭 발전시켜 훈춘국제합작시범구를 두만강지역의 국제물류집산지로 건설하는 것이다. 산업발전의 중점으로는 자동차부품생산, 농수산물과 해산품의 가공, 신흥소재와 광산물의 정밀가공, 전자제품, 의약, 방직, 복자기공, 금융, 보험, 정보서비스와 문화산업 등 현대서비스업을 대폭 발전시키는 것이다.

상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견’은 훈춘국제합작시범구에 재정세무, 산업배치와 투자, 토지사용, 경외 기초시설건설, 금융정책, 해관감독관리 및 통상구건설, 인재인입과 양성, 통관, 특별자금 등 9개 방면에서 특별한 우혜책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2012년 7월 17일 중국해관총서에서도 “중국두만강지역(훈춘)국제합작시범구 건설 지지 의견에 관한 해관총서회시”가 발표되었다. 중국해관총서에서는 훈춘국제합작시범구 건설과 관련하여 대외통로건설, 대외무역협력, 투자유치와 산업발전, 시범구내 해관 특수감

독관리, 다국 관광산업의 발전, 국제교류협력, 수출입경영 환경구축 등 8가지 방면의 우대조치를 규정하였다.⁴¹ 훈춘국제합작시범구의 추진은 훈춘의 전략적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두만강지역의 국제 협력을 다그치려는 중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북·중 변경 관광의 활성화

2009년 두만강개발계획 요강이 발표된 이래 지린성에서는 “두만강 출해관광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기존의 변경관광 코스를 활발히 운영하는 동시에 두만강지역 다국관광, 투먼-칠보산 전용열차 관광, 엔지-금강산 호화유람선과 공중직행 항공개설, 나선시 자가용 관광 등 다양한 관광코스들을 개발함으로써 두만강지역 다국 관광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1) 투먼-칠보산 전용 열차 관광코스의 개통

칠보산은 북한의 명산으로써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코스이다. 기존에 북한의 칠보산 관광은 주로 용정시의 삼허(三舍)-회령-청진-칠보산 도로를 이용하였다. 2011년 9월 27일부터 전용 열차관광이 국가 해당 부문의 비준을 거쳐 엔벤하이화(海華)그룹 산하의 두만강여행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즉 투먼-남양-칠보산 철도를 이용하여 칠보산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열차는 한번에 180명을 (전부 침대차) 수용할 수 있게 되어 버스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다. 2011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도합 5개 팀의 485명 관광객을 운송하였고 겨울철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2년 4월

41. “훈춘국제합작시범구수출입경영환경개선 탄력받아,” 『엔벤일보』, 2012년 7월 27일.

17일부터 다시 운영되었다. 이 관광열차는 매주 한 번씩 운영되며 성수기에 승객이 많아지면 두 차례로 증편되고 관광일정은 3박 4일 이고 비용은 2,100위안(한국돈 34만원)이다. 저녁 6시에 남양역에서 승차하여 다음 날 아침 6시에 명천역에 하차하여 버스로 한 시간 이동하여 칠보산에 오를 수 있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다.

(2) 옌지-금강산 관광

2011년 8월 29일 나선시 국제무역박람회를 맞으면서 130명의 기업가와 기자들로 구성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만경봉호를 타고 나선항에서 출발하여 금강산으로 갔다. 2011년 10월 말까지 4차례 조직되었는데 도합 800여 명이 이 코스를 통해 금강산에 다녀왔다.⁴² 옌벤텐위(天宇)국제여행사에서 금강산 호화유람선 관광 총대리권을 위임받았으며 2012년 6월 27일(100여명)에 첫 출항을 하였다. 관광객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옌지에서 출발해 관광버스로 훈춘첸허(圈河)통상구를 통해 나선시에 도착하여 오후 6시에 유람선에 올라 이튿날 고성항에 도착한 후 관광버스로 갈아타고 금강산에 도착한다. 이 관광 코스는 금강산의 선계사, 만물상, 귀연암, 망장천, 천선대, 목란교, 금강문, 옥류담, 비룡폭포, 구룡폭포, 상팔담, 삼일포 등 내금강과 외금강, 해금강까지 전부 관광할 수 있고 3박 4일로서 가격은 런민비로 1인당 2,980위안이다.

옌지-금강산 전세기 관광코스도 2012년 7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왕복 32회 운영하게 된다. 이 관광코스는 3박 4일과 4박 5일 코스(가격은 1인당 4,080위안, 4,580위안)로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42. 『옌벤일보』, 2011년 9월 1일.

에 연지공항에서 출발한다. 4박 5일 코스는 연지-평양-금강산-개성을 거치게 되고 연지-금강산 전세기는 북한 고려항공 소속 76석 비행기로 연지 공항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하면 80분 뒤 평양에 도착하게 된다. 이 관광코스는 내금강과 외금강, 해금강 등 금강산의 모든 관광코스를 관람할 수 있게 되며 개성과 평양관광도 할 수 있다.⁴³

(3) 나선시 자가용 관광

북한의 도로교통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선시 자가용 관광은 중국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관광상품이다.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도합 50대의 자가용이 관광차 북한에 다녀갔다. 금년 4월 28일부터 나선특구 자가용 관광이 재개되었으며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22대의 자가용 차량이 북한에 다녀왔다고 보도되었다.⁴⁴

(4) 두만강지역 다국 관광코스 활성화

2010년 3월 훈춘시 삼강(三江)여행사와 러시아 극동지역 운송연합체, 북한 나선시 국제 여행사에서 공동으로 두만강지역 다국관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관광은 두개의 기본 코스로 구성되었고 각 코스의 여정은 4일이다. 이 중 A코스는 훈춘~슬라브양카~하산~두만강철교~나선~훈춘이며, B코스는 훈춘~블라디보스토크~슬라브양카~하산~두만강철교~나선~훈춘이다. 중-러-북한 3국을 경유하는 다국적 관광 코스는 동북아지역에서 최초로

43. 『엔벤일보』, 2012년 6월 1일.

44. 『中朝經貿合作网』, 2012년 5월 22일, <<http://www.idprkorea.com>>.

되는 무비자관광 노선으로서 수속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다.⁴⁵ 2011년 연벤자치주에서 접대한 다국 관광객은 연인원 21만 2,200명에 달해 2010년보다 30% 늘어났다. 그중 러시아 관광객이 연인원으로 15만 명을 초과하였다.⁴⁶

2012년 3월 19일 대만여행사 사장으로 구성된 두만강 다국관광 고찰단 일행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연벤에 다녀갔다. 고찰단 단장은 두만강지역 다국적 관광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면서 “현재 매년 근 500만 명의 대만 관광객들이 대륙으로 관광오고 있다. 향후 두만강지역의 다국관광을 대륙관광에 포괄시키면 더욱 많은 대만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⁴⁷

3국 관광에 이어 훈춘시 관광국에서는 중국-러시아-일본-한국 등 환동해 유람선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3일 현지답사를 진행하였다. 이 관광노선은 유럽에서 유행되고 있는 유람선 관광방식으로 중국 훈춘에서 출발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DBS 회사의 ‘동방의 꿈’ 유람선을 타고 한국 동해시를 거쳐 일본 사카미나도(境港)시까지 갔다오는 관광노선이다.⁴⁸ 이 관광코스가 본격적으로 개통될 경우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관광은 동북아지역 관광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5. 『엔벤일보』, 2011년 4월 28일.

46. “다국관광 새 돌파 이룩,” 『엔벤일보』, 2012년 2월 21일.

47. 『엔벤일보』, 2012년 3월 21일.

48. 『엔벤일보』, 2011년 5월 17일.

라. 기초시설 건설의 추진동향

(1) 도로와 철도 건설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 프로젝트 중 북한의 나선, 청진과 관련된 도로, 철도, 통상구 건설에 160.5억 위안(런민비)을 투자하기로 계획하였다. 역내 구간은 2015년까지 완성하고 역외 구간은 2020년까지 완성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역내 구간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다. 두만강 국제운송통로 구축에서 북한과 연결된 도로의 역내 구간은 빠도(八道)에서 싡허(三合)를 경유하여 청진에 이르는 고속도로 구간, 훈춘에서 쨌허를 경유하여 나진에 이르는 고속도로 구간, 허룡(和龍)에서 난핑(南坪)을 경유하여 청진에 이르는 고속도로 구간 등이 있다.

현재 진전이 가장 빠른 것은 훈춘 취안허(圈河)~나진 도로이다. 북한 원정리~나진 도로는 원정리를 출발점으로 전체 길이는 53.5km, 그중 선봉부터 나진 구간까지 17km는 아스팔트길이고 원정리에서 선봉까지 36.5km는 비포장이다. 이 구간은 비포장도로여서 비가 오는 날이면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통과하기 어렵다. 훈춘~나진~상해 국내무역 초국경(內貿外運) 운송항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린성에서는 2011년 5월에 2.268억 위안을 투자하여 훈춘~나진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사용할 2급 도로 개조에 착수하였다.⁴⁹ 2011년 말에 60%가 완성되었으며 금년 10월경에 정식으로 개통될 것이다. 이 도로가 개조되면 훈춘을 떠난 자동차가 나진까지는 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고, 연간 20만 대의 통과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30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30%

49. 『연변일보』, 2011년 5월 24일.

밖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나진항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훈춘에서 취안허통상구를 거쳐 나진항에 이르는 도로의 중국 역내 구간인 훈춘~취안허 간의 37km 4차로 고속도로이다. 이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이미 ‘12차 5개년 계획’안에 편성되었고 2015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빠도(八道)에서 싰허(三合)를 경유하여 청진에 이르는 고속도로 구간과 허룽(和龍)에서 난핑(南坪)을 경유하여 청진에 이르는 고속도로 구간은 2015~2020년의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창춘~훈춘 고속도로(480km)는 2010년 10월에 정식으로 개통되었다. 이는 지린성의 중심도시인 창춘의 물류통로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동해로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린에서 훈춘으로 통하는 고속철도가 현재 건설 중이며 허룽(和龍)에서 난핑(南坪)으로 통하는 철도가 현재 건설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였다. 연지에서 나선시로 통하는 국제 여객버스가 2012년 8월 17일에 개통되었다.⁵⁰

(2) 물류기지 건설

2010년 2월 중국 국가 상무부에서는 연지시를 전국유통업의 현대 물류시범도시 건설 명단에 포괄시켰다. 연변주의 수도인 연지시에서는 향후 10년간 싰흥공업집중구 보세물류원, 연지고신기술구 물류원, 연지농부상품물류원, 조양천 종합물류원 등 4개의 대형 물류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완웬부동산개발공사에서 20억 위안을 투자하여 2012년 3월 28일 개장한 연지완웬농산품(延吉万源農副產品)도매시장은 연간 물류가 150만 톤, 교역액이 60억 위안 규

⁵⁰ 연벤틀레비전 아침 뉴스, 2012년 8월 18일.

모인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이다.⁵¹ 이 도매시장은 향후 동북아지역의 대형 농산품 도매시장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훈춘국제합작시범구가 비준된 후 훈춘시에서는 훈춘을 동북아지역의 중요한 교통 허브와 상업물류 중심도시로 건설할 목적으로 훈춘국제화물수송허브 건설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 프로젝트는 훈춘위베얼(宇別爾)그룹이 투자하고 훈춘국제물류원내의 201국도 동남측에 자리잡게 되며 부지면적이 40만㎡, 계획투자액은 2억 2천만 위안이며 유통가공 포장구와 물류창구, 용지시설, 업무빌딩 등으로 구성되며 2012년 말에 개업하게 된다.⁵² 현재 건설중에 있는 동북아(훈춘)국제변경무역 물류센터는 부지면적이 36.16만km², 계획투자액이 15억 위안에 달하는바 1기 공사 투자액은 1.35억 위안이며 금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다.

부지면적이 2.78km² 계획투자가 1.1억 위안에 달하는 안타이파환(烟台大宸)훈춘국제수산물 교역시장 및 국제냉동물류센터 항목도 현재 건설 중이며 금년 9월경에 정식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이 물류센터의 수산물 교역량은 400만 톤에 달하며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지역의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2012년 7월 25일 홍콩 호덕(豪德)국제그룹과 장덕(長德)집단유한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한 훈춘장덕 국제상업물류기지 기공식이 훈춘에서 거행되었다. 이 기지는 부지면적이 66만㎡, 투자액이 28억 위안이며 1기 건축 면적이 40만㎡이다. 이 센터는 현재 지린성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경영품종이 가장 다양한 대형 종합 상업무역 물류기지이다.⁵³

51. 『延邊日報』, 2012년 3월 29일.

52. “훈춘국제화물수송허브 건설,” 『엔벤일보』, 2012년 7월 31일.

53. “훈춘장덕국제무역물류성 기공,” 『엔벤일보』, 2012년 7월 26일.

한국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등 6개 한국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한 훈춘포스코현대 국제물류단지는 계획건축면적이 25만㎡, 연간 물동량이 500만 톤, 총투자가 9억 7,058위안이다. 이 물류단지 건설은 부지선정, 환경보호평가, 에너지절약 및 기타 사항들은 이미 비준을 받은 상황이고 1기공사의 부지면적은 1.5km²이다.⁵⁴

(3) 전력수송

북한 나선지역의 전력난을 완화하고 중국투자기업들의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린성 전력회사에서는 2011년 6월에 북한에 들어가 전력수요 상황을 고찰한 후 11월에 연변배전회사를 북한나선지역에 파견하였다. 약 2개월 동안의 조사와 측량을 거쳐 연변배전회사에서는 북한나선지역에 대한 전기 공급 배전선 설치 구간에 대한 초보적 조사와 측량을 마쳤고 연구편성 사업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도되었다.⁵⁵

(4) 농업시범구 건설

지린성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되어 있어 토양과 기후가 유사하며 농업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었다. 따라서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별시 간 경제협력의 8개 항목에는 나선농업시범구 건설이 포함되었다. 즉 나선시에 우량품종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곡물생산량을 늘리고, 분수식 관개 및 특정한 관개시설을 이용하여 고효율 농업시범기지를 건설하는 동시에 태양에너지 온실, 채소, 과일, 화초생

54. 『엔벤일보』, 2012년 4월 5일.

55. “엔벤배전회사 대조선 전력공급방안 추진,” 『엔벤일보』, 2011년 11월 28일.

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2011년 봄 지린성 농업위원회의 지원으로 훈춘시 농업국에서는 북한 나선시의 모 협동농장에 표고버섯과 벼도 옥종용 비닐하우스를 지어주었고, 지린성 리수현(梨樹縣)에서는 벼와 옥수수를 시험 재배하였다. 종자와 화학비료, 농기구 등은 중국 측에서 조달하였고 기술인원들도 파견하여 구체적으로 지도하였다. 작년의 시범결과 농업시범구의 생산량이 기존 생산량에 비해 3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주로 종자,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의 이용 및 선진적인 영농기술을 도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2012년 봄 헤이룽장성 베이따황(北大荒)건설병단이 훈춘시의 엔벤쑤춘(先楦)투자자문유한회사와 합작하여 북한 나선시 두만강하구의 웅상항 부근에 위치한 2개 농장의 6,000무 면적에 벼농사를 시범 재배하였다. 역시 중국 측에서 종자, 화학비료, 농기구 등을 조달하고 기술인원들을 파견하여 파종 등 기술을 지도하였다.⁵⁶ 중국의 목적은 농업시범구 건설을 통해 선진적인 영농기술을 북한 전역에 확산시켜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5) 선도구내 자본유치의 성과

창지투 선도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선도구 각지 정부들에서는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2011년 엔벤의 국내 투자유치 총액은 417.6억 위안(66.3억 달러)으로 2010년보다 57.5% 늘어났고, 외자유치액은 1.07억 달러(6.74억 위안)에 달하였다.⁵⁷ 외자유치가 내자유치의 10% 정도로서 현재는 내자유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56- 2012년 7월 필자가 훈춘시의 대북투자업체들과의 인터뷰조사.

57- “지난해 국내투자유치 총액 400억원 돌파,” 『엔벤일보』, 2012년 1월 5일.

2012년 연변자치주 정부사업 보고에 의하면 올해 내에 연변주에 서는 투자가 3,000만 위안 이상에 달하는 프로젝트 500개, 1억 위안 이상에 달하는 프로젝트 200개, 10억 위안 이상에 달하는 대상 30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자치주 국내투자유치 총액을 지난해보다 32% 성장시키기로 계획하였다.⁵⁸

투자유치팀은 2012년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베이징, 상하이, 항주, 혜주, 뻘시(本鷄), 다롄(大蓮) 등 지역에서 “중국광채사업·연변행” 투자유치 사업을 진행하였다. 투자유치팀은 베이징에서 윤발(閔發)집단 증의기업연맹, 베이징 탄보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 용우소프트 개발유한회사, 칭화대학 계적주식유한회사 등 여러 기업을 상대로 투자환경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상하이, 항주, 혜주 등 지역에서는 흥성미개롱, 광동참대곰 치업발전유한회사, 화립집단 등 기업들과 도시종합체, 전자정보산업단지, 과학기술단지, 자동차, 생물 제약 등 투자유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광범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다롄에서는 애광자동차 부속품유한회사, 삼양압축기, 삼양에어컨, 삼연국제무역, 삼행물류, 도시바텔레비전, 동양포장설비, 등 자동차 부품산업을 위주로 하는 29개 영향력 있는 기업들과 투자협의를 맺었다.

“중국광채사업·연변행” 투자유치 홍보사업을 통해 연지시에서는 총투자가 20억 위안이 되는 5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4월부터 연이어 착공되고 있다. 총투자 13억 위안인 생권전자공업단지 대상과 총투자 3억 위안인 자동차 부품대상은 4월 중순에 연지시국가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올해 안에 1기 공사를 마무리 짓고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총투자 1.05억

58. “10억위 이상 대상 30개를 중점 추진,” 『연변일보』, 2012년 2월 10일.

위안인 연초회사 물류단지과 총투자 1억 위안인 연벤 순정신에너르기 과학기술유한회사 주유설비 등 프로젝트들은 4월에 연이어 착공되었다.⁵⁹

창지투 선도구의 최전방인 훈춘시에서는 2012년에 90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내에 투입할 자금은 42.2억 위안이다.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10억 위안 이상 프로젝트 6개, 1억 위안 이상 프로젝트 16개를 유치하였으며 실제 이용한 자본금은 24.2억 위안에 달한다.⁶⁰ 부지면적이 1.8만km², 투자액이 5,000만 위안에 달하는 버하이국제빌딩(博海國際商貿城)은 자동차의 판매, 수출입, 서비스 등 종합적 자동차서비스 센터로써 현재 건설 중이며 금년내에 1만km² 공사를 완공하게 될 것이다. 부지면적이 1.5만km², 투자액이 0.5억 위안에 달하는 편방고급포장 생산항목(振邦高檔彩印包裝生產項目)도 금년내에 1기 공사를 완성할 예정이다.⁶¹

중국은 우선 창지투 선도구에 대량의 국내 기업들을 유치하여 산업구를 건설하는 한편 북한의 인프라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점차 나선지역에 일부 기업들을 이전하여 두만강지역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59- “중국광채사업·연벤행 투자유치순항,” 『엔벤일보』, 2012년 4월 10일.

60- “훈춘시투자유치성과 급증,” 『두만강보』, 2012년 6월 14일.

61- “李龍熙到琿春調研項目建設,” 『延邊日報』, 2012년 4월 18일.

4.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경제협력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

가. 북동부지역의 인프라 개선

나선시는 지리적으로 북한의 북동부 최북단지역에 위치해 있고 중국의 훈춘, 극동러시아 지역과 인접해 있다. 그렇지만 그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인프라의 노후화로 주요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기초시설들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⁶² 중국 투먼에서 북한의 나진으로 통하는 투먼~나진 철도는 지난 1930년대에 건설되어 현재 대부분 침목의 나무가 부식되었고 콘크리트 침목은 부러졌거나 균열이 심하여 운행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 프로젝트에 북한 관련 도로와 철도 및 통상구 등 도합 9개 프로젝트에 160.5억 위안(26억 달러)을 투자하기로 계획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까지는 중국 역내 구간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북한으로 통하는 철도합작 개조 사업에 주력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투먼~청진 철도와 투먼~나진 철도는 북한 북부지역의 주요한 철도노선인 함북선(반죽-회령-나진), 평나선(간리-나진), 백두산 청년선(길주-혜산), 무산선(고무산-무산), 두만강선 등 허다한 철도간선들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투먼~청진 철도와 투먼~나진 철도의 개보수는 이 지역의 철도상황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린성에서는 훈춘~나진 간 2급 도로를 먼저 건설하고 점

62. 서종원, 『북한 라선지역 개발이 동북아 교통물류체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경제리뷰』, 2012년 4월호.

차 고속도로도 건설할 계획이며 원정~나진·선봉·웅상항을 연결하는 도로망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상술한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 북동부지역의 도로사정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북한의 열악한 전력사정을 고려해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훈춘의 일부 전력을 나선시에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나선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여 선봉화력발전소의 중유발전기를 대체하며 풍력발전과 태양 발전을 이용하여 나선특구의 전력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만약 나선에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북한 나선지역을 물론이고 청진을 비롯한 북동부지역의 전력사정은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나. 나진항과 청진항의 역할 증대

2010년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제정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2010)」에 따르면 양국은 나진항을 종합적인 항구로 개발하고 선봉항은 원자재공업, 화학제품, 산적화물이 발달한 항구로, 웅상항은 부두개조, 설비갱신, 수로건설, 통과능력제고 등을 통해 산적화물항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2011년 12월 3일 제6차로 수정보충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상임위원회 정령 2007호)」에서 북한은 “라선특구를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관광 및 봉사지역”으로 규정하여 지대개발의 우선목표를 중계수송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천명하였다.⁶³

63. 배종렬, “최근 개정된 북방 특구법제의 개혁 개방성-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봄호 2012, p. 55.

화물운송에 있어서 훈춘~나진항~일본 니가타항으로 가면 중국의 다롄~니가타 노선보다 1/10의 육로거리와 1/2의 해상거리를 단축할 수 있고, 일본에서 출발한 화물이 나진항을 경유하여 러시아 극동철도를 이용할 경우 대서양노선 보다 1/2의 운송거리와 1/3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⁶⁴

현재 중국의 급선무는 나진항을 빌어 동북지역의 석탄을 중국의 남방지역으로 운송하는 국내무역 화물 다국수송 통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고 대량의 석탄매장량으로 중국기업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2011년 1~10월 기간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1,000만 톤에 달하는 무연탄을 수입하여 북한 무연탄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대중국 수출의 45.56%를⁶⁵ 차지함으로써 석탄무역이 북·중 무역에서 중요한 견인역할을 하고 있다. 해방 이후 중국은 줄곧 “남쪽의 쌀은 북으로 운송하고 북쪽의 석탄은 남으로 운송(南糧北運, 北炭南運)”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기존의 동북지역 특히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의 석탄은 랴오닝성의 영구(營口)항을 통해 남방으로 운송되었는데 일반적으로 13일 시간이 소요되며 과도한 물류비용은 기업의 채무능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2008년 7월 다롄 창리그룹은 나진항 1호 부두를 임대하고 3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나진항 1호 부두에 연간 150만 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정박지 보수공사를 마쳤다. 2010년 8월 4일 지린성 해관은 “국

64. 圖們江開發研究課題組, “大圖們江區域合作開發戰略的思考,” 『社會科學戰線』(2006.3), p. 146.

65. 배종렬, “중국의 북한석탄 수입수요 급증과 나진항 진출,”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11, p. 42.

내무역 화물 다국수송”을 허가하였다.⁶⁶ 2010년 12월 7일 2만 톤의 석탄을 훈춘⁶⁷ 취안허(圈河)통상구로부터 나진항 1호 부두로 운송한 뒤 중국해운그룹의 1만 톤급 진버호(金博号) 화물선을 임대하여 2011년 1월 11일에 나진항 1호 부두를 출발하여 1월 14일에 상하이 와이꼬초(外高橋)부두에 도착하였다.⁶⁸ 이는 중국 동북지역의 물자가 나진항을 이용하여 남방지역으로 운송된 초국경 운송의 첫 사례이다. 2011년 5월 14일 제2차로 2만 톤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 상하이에 운송하였다. 나진항을 통한 석탄수송은 기존의 영구항을 통한 운송 루트에 비해 톤당 60위안의 물류비가 절약된다고 한다.⁶⁹

청진항은 비록 나선특구에 속하지 않지만, 중국의 두만강지역 물류운송통로 구축의 총체적 전략에 포함되고 있다. 청진항은 나진항의 남쪽에서 8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연간 화물 하역능력이 800만 톤에 달하며 창지투 선도구의 투먼과 북한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써 중국 동북지역이 바다로 나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해상항로로 될 수 있다.⁷⁰ 2010년 북한정부는 중국 연변자치주에서 제기한 “청진항종합이용” 프로젝트를 국가의 ‘주요전략’으로 승격시키고 이 사업을 전격 추진하고 있다. 쌍방은 “투먼~청진철도수송협약”, “청진항합작이용협약”, “남양~청진철도와 청진부두 3~4호 연결선 부

66. 국내무역화물 다국수송이란 국내무역 화물이 국내의 한 통상구에서 출발하여 국외를 경유한 뒤 국내의 다른 항구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특정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수출입화물이 아닌 국내화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67. 연변 훈춘지역은 해마다 700만 톤 석탄이 생산되고 있으나 자체 전력생산을 위한 수요는 400만 톤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00만 톤 중 150만 톤은 중국의 남방지역에 보내야 할 형편이다.

68. 『엔벤일보』, 2011년 1월 12일.

69. “훈춘석탄 해상운수비용 톤당 60원 절감”, 『엔벤일보』, 2011년 6월 2일.

70. 황진희, “북한 주요항만의 개발동향과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10, p. 49.

두개조협의를” 체결하였고 3~4호 연결선부두를 ‘도문부두’로 명명하고 항구의 사용 연한을 15년으로 결정지었다. 연벤주 투먼시 하이화(海華)무역회사에서는 중국 상하이에서 청진항에 맞춘 40톤 컨테이너와 비포장물 운반작업 기중기 설비를 제조하였고 투먼에서 청진으로의 철도 운송에 사용될 화차 200대를 이미 북한 측에 전달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청진~부산 간 컨테이너 항선을 개통할 예정이다.⁷¹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가 구축되면 나진항과 청진항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중계항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인바 중국 동북지역의 풍부한 광산물과 농산물들이 나진항과 청진항을 통해 한국, 일본 미주지역까지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한국, 일본, 미주지역의 공산품들이 나진항을 통해 동북지역으로 수입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몽골 동부지역의 풍부한 광산물들이 중·몽 대통로를 통해 일본과 한국으로 수출될 것이다.⁷² 따라서 향후 나진항과 청진항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중계무역항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다. 관광업 활성화

2004년부터 2008년 기간동안 도합 134.5만 명의 한국관광객들이 금강산관광을 다녀옴으로써 북한 관광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⁷³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한국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다. 이는 북

71. 『연벤일보』, 2010년 11월 15일.

72. 중몽 대통로란 몽골의 동부 초바이산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싱안명(興安盟)을 거쳐 지린성의 바이청(白城)~송원(松原)~창춘~지린~훈춘~나진항에 이르는 철도이다.

73. 한국의 금강산 관광객 인수는 2004년에 26.8만 인차, 2005년에 29.8만 인차, 2006년에 23.4만 인차, 2007년에 34.5만 인차, 2008년에 20만 인차로 집계되었다(통일부, 『2009년 통일백서』, p. 104).

한관광업에 커다란 손실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북한은 관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국 현대그룹과의 금강산 관광 협정을 어기고 2010년부터 외금강 구역을 국내외에 개방시켰다. 2011년 8월 29일 나선시 국제무역박람회를 맞으면서 130명의 기업가와 기자들로 구성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만경봉호를 타고 나진항에서 출발하여 금강산으로 갔다.⁷⁴ 2012년 6월 27일과 7월 12일 창지투 선도구 엔지에서 북한의 금강산으로 통하는 유람선과 전세기가 모두 운영되어 중국인들의 금강산 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연변주 투먼시를 통해 북한 칠보산으로 가는 관광열차의 개통과 나선시 자가용 관광, 훈춘~블라디보스토크~나선~훈춘의 3국 관광 등 다양한 관광코스의 개통 및 무비자 관광 등은 북한 관광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나선시에는 나선호텔, 비파도호텔 등 5개 호텔이 있는데, 1일 관광객 접수량이 400명 정도라고 한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기업들은 나선시에 호텔, 식당 등 관광 관련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74조에서는 “투자가는 규정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간 관광협력은 북한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라. 북동부지역 산업구조의 변화

함경북도 청진을 중심으로 한 나선, 은덕, 나남 등 두만강 연안의 북동부지역은 제철, 제강, 기계, 조선, 화학 등 중공업중심의 산업구

74. 『연변일보』, 2011년 9월 1일.

조 특징을 띠고 있다. 청진시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등 북한의 가장 큰 제철과 제강소들이 있으며 청진화학섬유공장, 청진필프공장 등 화학공장들이 있다. 나선시 및 그 주변의 주요 공장들로는 선봉승리화학공장, 아오지화학공장, 화성화학공장, 선봉군의 무스프탈생산산 생산공장, 나진 조선소 등이 있다. 중공업 기업이 많이 분포된 데 반해 경공업 기업들은 수산물가공, 피복공장, 신발공장, 식료품가공 등 당지 주민에게 공급되는 경공업제품 생산 공장 이외에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실정이다.

『중·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에 따르면, 양국은 나선-선봉-웅상-굴포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나진에는 창고보관·물류, 장비제조, 첨단기술 산업단지, 피복·식료품 가공 등 4대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선봉에는 원자재공업, 방직피복, 장비제조업, 농산물가공 등 4대 공업단지, 웅상에는 종합목재가공공단, 굴포에는 기계제품 생산단지 등 10개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나선지역의 인프라가 개선되면 적지 않은 중국기업들이 우선 수출가공업을 중심으로 대량 진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동부지역의 경공업이 대폭 발전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마. 외국인 투자유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자력성장 기반을 상실한 북한은 외부로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열악한 투자환경과 정치·안보적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4년부터 2011년 말까지 8년간 합작 형태로 북한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351개, 그중 중국기업이 205개(76%)로 가장 많고 일본기업이 15개, 한국기업이 10개, 이탈리아기업과 영국기업이 각각 7개로 파악되고 있다.⁷⁵ 351개 외국기업 가운데 투자 규모가 확인된 기업은 88개이고,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금액은 23억 2천만 달러로서 연평균 투자액이 2.88억 달러인 셈이다.

베트남의 경우 개혁·개방 초기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개혁·개방의 성과로 외자유치는 1991~1995년 연평균 7억 7,600만 달러, 1996~2000년의 5년 동안 연평균 17억 7,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⁷⁶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우선 심천, 샤먼, 주하이, 싰뤁우 등 경제특구에 투자하였으며 경제특구들은 외자도입에서 중요한 창구역할을 하였다. 1979년부터 1985년까지 5년간 심천특구는 20여개의 국가와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들과 4,087개의 투자협의를 맺고 협의 투자액은 29.48억 달러에 달하였다.⁷⁷

북한도 외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기업소득세율감면(제68조), 토지이용과 관련한 특혜(69조),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제70조),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반환(제71조) 등 일련의 우혜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나선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은 나선특구를 통해 대량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75- “북한-2004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기업과 합작투자의 성격,” 『Voice of America』, 2012년 7월 12일.

76-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77- 陳基斌, 『中國經濟特區』(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86), p. 101.

바. 개혁·개방 추진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별시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인 중국과 “공동개발, 공동관리”를 진행하려면 나선특구도 여러 면에서 시장경제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다. 최근 나선특구의 변화와 2011년 12월 3일 북한이 제6차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상임위원회 정령 2007호)의 수정보충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대법은 지대개발방식(제13조), 기업의 경영자출권 허용(제40조), 시장가격체제의 도입(제44조), 특구와 경제무역지대 밖의 기업들과의 경제적 연계허용(제48조) 등 여러 조항에서 시장경제 성격을 띤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이는 북·중경제 협력에 있어서 체제의 차이로 인한 기업활동의 제약이 상존하면서 대북경협에 있어서 중국정부의 목소리가 나선지대개발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⁷⁸

향후 나선지대 개발이 새로운 지대법의 내용과 같이 추진될 경우 적어도 나선특구 내에서만은 시장경제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경제특구는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의 실험장이었다. 중국이 경제특구에서 실시한 기업자주권 확대, 기업도급제, 건축공정의 공개입찰제, 시장가격체제의 도입, 노동력의 공개채용 및 변동임금체제의 실시, 대외무역기업의 자주권 확대, 금융체제개혁 등의 조치들은 나중에 전국으로 보급되었다. 북한도 나선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룰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특구와 경제무역지대 밖의 기업들과의 경제협력 관

78. 배종렬, “최근 개정된 북방 특구법제의 개혁 개방성-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p. 64.

계를 확대시키는 과정이 곧바로 특구효과의 확산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은 북한의 체제개혁을 추동하게 될 것이다.

북·중 경제협력은 북한 주민의 시장경제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량의 중국상품이 북한시장에 진입하면서 북한 주민은 중국이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이고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인지하고 있다. 북한도 개혁·개방을 하면 중국처럼 잘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980년대 초 중국조선족들의 북한 보따리 장사가 북한 주민들의 상품경제의식을 싹 틔어 주었고 대북무역회사와 투자기업들의 대북무역과 투자는 북한기업과 관리들에게 시장경제 룰을 시범해 주고 있다.

5. 소결

창지투를 선도구로한 두만강지역 국제협력의 추진은 지린성과 북한 간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정부는 두만강지역 개발을 두 단계 나누어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2015년까지는 주로 역내의 인프라와 산업단지 건설에 주력하고 2015년 이후 북한 경내의 나진항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및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별시 간 경제협력은 국제물류운송통로의 구축, 관광협력, 농업시범구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바야흐로 추진되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간의 경제협력은 북한 북동부지역의 인프라 개선, 동북아지역에서 나진항과 청진항의 역할증대, 북한 관광업의 활성화, 북한 북동부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개혁·개방의 추진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경제협력을 진일보 추진하려면 북·중 두 나라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특수한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정부 측면에서 공동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의 확대와 아시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의 공적자금 활용이 필요하다.

두만강지역 개발에 필요한 투자유치 확대와 투자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정부는 당초 중국의 심천특구건설 경험들을 적극 수용하여 북한 실정에 맞는 특구건설 대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VI. 창지투 개발계획과 한·중 경제협력

1. 서언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간 양국 간 무역, 투자, 민간교류 등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수교 시에 우호관계로 시작되었던 양국 관계는 협력동반자관계(1998년)와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2003년)를 거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승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2011년 중국과의 교역량은 2,206억 달러로 일본(1,080억 달러)과 미국(1,007억 달러)을 더한 것보다 많다.

이에 따라 한·중 협력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경제적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양국이 나아가야 할 협력 방향을 재조명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10년 내에 중국이 세계최대의 경제 권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새로운 통상환경, 중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등을 대비할 필요성이 우선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 문제 등을 포함하여 이와 같이 새롭게 직면하는 도전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 외교안보전문 학술지 ‘포린어페어(2010년)’는 일본과 인도를 미국 영향권으로 분류한 반면 한반도를 중국 영향권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한국의 대미국, 중국, 일본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각도의 의

견을 차지하더라도 한·중 양국의 밀접한 관련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2000년까지 온포(溫飽,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단계) 실현을 위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개혁·개방정책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고, 점→선→면의 3단계 경제발전모델에 따라 연해지역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을 진행시켜왔다. 그리고 2020년까지 소강(小康, 부유한 단계의 중간 단계의 생활수준을 지칭)사회, 즉 중국식의 현대화를 위하여 ‘과학발전관’에 기초한 ‘조화로운 사회’ 구현과 중국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 ‘공평과 효율’을 경제성장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보다는 질, 성장보다는 분배, 수출보다는 내수, 동부지역보다는 내륙으로 성장전략을 전환시켜가고 있다. 중국의 개발 축이 1980년대 광둥(廣東)성과 1990년대 상하이(上海) 그리고 2000년대 텐진(天津)을 거쳐 동북3성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 투자에서 동북3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중 수교 초기 1993년 약 30%에서 2006년 6.7%로 급감하였으나 2011년 16.7%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는 동북진흥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중국 4대 성장축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3성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최근 몇 년간 동북3성은 두 자리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린성의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두만강지역 개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라선특별시 간 지역공동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대북한 교역창구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2년 4월 13일 ‘훈춘국제합작시범구건설’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중국의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은 초국경(跨境 혹은 跨國) 경협지역으로서 북한을 북·중 양자협력을 통한 개혁·개

방으로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 간접적으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북·중·러 두만강지역 일대 국제운송통로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동력(動力)을 형성하게 되었다. 북한도 최근 들어 소위 우리식(북한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실시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두만강지역의 협력개발은 그 어느 시기보다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이 한국기업의 대북한 진출 교두보로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2012년 9월 포스코와 현대그룹이 공동출자한 훈춘국제물류단지 착공식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두만강지역개발 사업에 한국의 공식적인 참여로 진행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중 경제관계 20년의 변화를 알아보고 창지투 선도구 계획이 한국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동북진흥계획과 동북3성의 경제현황 그리고 한국과 한반도에 있어서의 창지투 선도구 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도록 한다. 결론에서는 창지투 선도구 계획을 활용한 한국의 현실적 대안과 장기적 구상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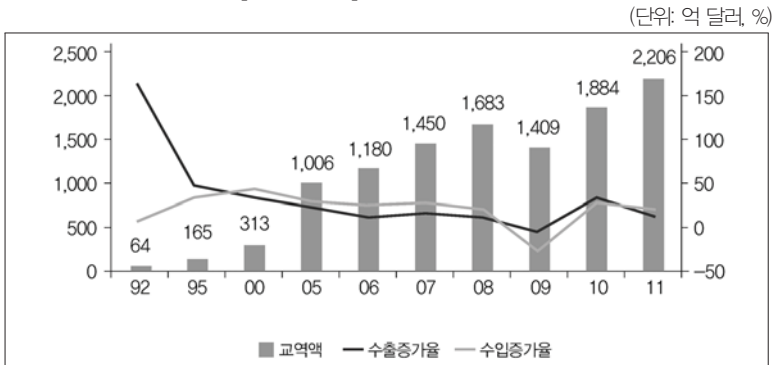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역, 투자 등 경제교류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한·중 교역액은 1992년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 2,206억 달러(35배 증가)로 증가했으며, 2004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2011년 수출액은 1,342억 달러, 수입액은 864억 달러로 수교 이후 수출과 수입은 각각 51배와 23배 증가하였다. 중국은 한국에 있어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수입대

상국이 되었다. 특히 1992~2011년 한국의 대중국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3%였으며, 같은 기간 대세계 연평균 증가율(11.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그 결과 수교연도인 1992년을 제외하고 19년 연속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한국 수출의 30% 이상은 중국(홍콩 포함)이 차지하는데, 향후에도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 이는 나날이 부유해지는 중국이 많은 인구와 그에 필적하는 방대한 계층적·지역적 미개척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잠재력이 상당한 중국의 서비스 시장은 아직 제도적·실질적으로 개방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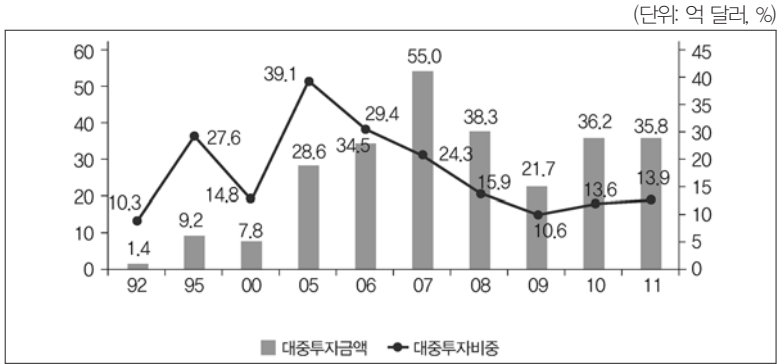
[그림 VI-1] 한·중 무역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79. 한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의 절반 이상이 부품·소재인데, 이는 양국이 단순히 서로의 제품만을 소비하는 사이가 아니라 대체하기 훨씬 어려운 기술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산업 파트너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의 대중국 교역은 단순히 양국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전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필수·노수현·박민수, “한·중 경제관계 20년: 회고와 향후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Vol. 12, No.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그림 VI-2] 한국의 대중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또한 1988년부터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던 대중 투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크게 증가하게 된다. 한·중 수교이후 1억 4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의 대중 투자금액은 2011년 35억 8천만 달러로 약 25배 성장하여 규모면에서 미국에 이어 2위로 부상하였다. 2011년 말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액은 368억 달러(22,552건)로 한국 전체 해외투자액의 19.1%를 차지한다. 이처럼 한·중 관계 20년은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중 교역이 가공무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 내 수시장 접근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의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가공무역 규제 강화 등으로 더 이상 중국을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조기지로만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을 표명하고, 과거 10% 내외의 고속성장에서 7%대의 중속(中速) 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한국의 대중 경제협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한편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경영활동의 변화도 요구되는데, 그동안 한국은 투자주도형 대중무역구조를 영위해왔으나 재중 한국기업들의 원부자재 현지 조달 확대에 따라 대중 투자의 수출유발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대중 투자액 자체도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중요하게 한·중 간 산업 경쟁구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중 간 분업관계가 점차 경쟁관계로 전환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대중 흑자를 시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향후 새로운 한·중 협력 10년의 발전을 위해 한·중 교역은 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 전환될 것이고, 한국은 중국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예를 들면 한·중 FTA를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대중 투자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해 내수시장개척형의 새로운 재중 성장동력 산업을 찾는 한편, 제조업 강국이라는 한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대중 투자 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향후 지속적인 교역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평등의 무역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양국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중 FTA 추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 문제 등 새롭게 직면하는 도전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중 FTA의 경우 새로운 통상환경을 만들기 위해 포괄적이고도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나, 국내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한 한반

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관여정책을 보다 높여 개혁·개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유지와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소위 말하는 ‘신북·중경협’인데, 이는 경제무역과 대북 투자에만 집중했던 기존형식을 벗어나 지역공동개발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협력 차원의 양자협력이 보다 강화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이를 경제협력 관계강화를 통한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이라고 한다.⁸⁰

이에 동북진흥정책 추진과 더불어 중국 4대 성장축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3성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동북3성이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국유기업에 대한 M&A형 투자를 확대해야 함과 아울러 동북3성의 핵심 프로젝트와 창지투 선도구 계획 관련 사업 진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 동북3성은 중국의 대북한 교역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대북한 진출 교두보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진흥계획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한국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⁸⁰ 윤승현, “중국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서울경제신문사 주최, 2012 북한 개혁·개방 국제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12.8.28).

3. 창지투 개발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

가. 창지투 계획의 전략적 위치와 함의

『동북지역진흥계획(이하 동북진흥계획)』은 현재 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胡錦濤) 정부에서 중국 개혁·개방 초기의 동부연해지역 발전전략과 1999년의 서부지역 대개발전략에 이어 실시된 또 하나의 지역발전전략인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지구 진흥전략』에 의해 수립된 계획이다. 그 후 2006년에 중부지역굴기전략이 실시되어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진흥계획은 광역적 국토개발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동북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기타 도시군계획의 지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 진흥사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직속 전문기관인 동북진흥처(東北振興司)가 설립되어 있어 중국 중앙정부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관심 정도가 어느 정도 큰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현재 동북지역은 2003년부터 시작된 정부주도의 정책지원인 동북진흥계획의 구체적 진행에 따라 근 10년 동안 새로운 성장거점 축을 마련하면서 경제발전의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 2020년까지 지속되는 중장기 동북진흥계획은 기존의 자원의존형 모델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위해 천연자원·신산업 등을 육성하고, 시장주도형 확립을 목표로 지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VI-1] 중국 동북지역의 향후 경제발전 전망

현재		향후
동북지역 경제의 발전 과도기		동북지역 경제의 본격적인 발전기
정부주도의 정책지원		시장주도형 확립
정책목표	정책지원	정책지원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우위 - 자원 개발 - 생태 보호 - 사회 보장 - 전략 산업의 육성 ① 기존산업 기계·자동차, 농산 가공 석유화학 ② 신형산업 신에너지, 신소재, 신제약 ③ 서비스 산업: 금융·물류, 관광·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원 - 교통 인프라 건설 - 경제 특구 지원 - 공업단지 개조 - 민간투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기업의 민영화 가속 - 개혁·개방 주도 : 민간기업+외자기업 - 무역 확대 - 공무원 개혁 - 시장 네트워크 강화
자원의존형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자원 개발·신산업 육 성의 균형 - 지속적 경제발전의 원동력 확보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北朝鮮の貿易動向と中国・ロシア等との経済関係に
関する調査』(2012), p. 4 참조, 필자 재구성.

『중국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中國圖們
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이하 창
지투 선도구 계획)은 동북진흥계획의 큰 방향하에서 수립되는 ‘지역
계획’으로써, 특정지역의 특성에 근거하여 동북진흥계획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세워진 하위의 지역계획이다. 즉 동북진흥계획이
동북지역발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의 성격
을 가졌다면,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된 세
부적 실시계획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의 동북진흥계획은 지금까지의 농업과 중공업을 기간산
업으로 국내의 자원공급지, 공업생산기지의 산업적 성격으로 성

장해온 동북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동북아 지역협력의 중심 기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북한이나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인접국가 간의 경제협력 연계를 전제로 대외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전략적 우선 과제가 된다. 결국 대외 통로는 러시아나 북한이겠지만 중국에 있어 경제협력의 연계성은 북한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있어 정치경제적인 완충지가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 경제발전의 기도(氣道)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 창지투 선도구 계획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큰 것이다.

중국은 2009년 8월과 11월에 창지투 선도구 계획을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반포함으로써 두만강지역의 이니셔티브를 공식화하였다. 이는 동북진흥계획을 실시한 이후 수차례의 동북진흥계획 관련 국가급 지역진흥책(국가발전전략)을 입안하면서 그 가운데 구체적인 전략적 포지션으로 창지투 선도구 계획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2009년 9월 9일 『중국 국무원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 28조(國發 [2009] 33호)』를 발표하였는데, 총 9항 28조로 구성된 동의 견발표 내용 중 6조는 창지투 경제구 발전의 가속화, 28조는 창지투 선도구 개발개방 추진의 가속화를 강조하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중국 두만강지역을 핵심지역으로 하여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범위와 광역두만강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의 중국 지역, 즉 지린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랴오닝(遼寧)성 및 네이멍구(內蒙古) 등을 포함한 지역으로 앞서 언급한 중국의 동북지역과 연관된 주변국과의 상관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창춘, 지린과 두만강 일대를 핵심으로, 중·몽 대통로를 횡으로 관통하며, 밖으로는 동북지역 경제권, 대두만강경제권과 동북아경제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향후 주장(珠

江)삼각주 및 장장(張江)삼각주처럼 중국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동북 아지역까지 새로운 경제 성장극(增長極, Growth pole)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몽 대통로 건설은 중국과 몽골 간 철도교통 연결을 말하는 것으로 몽골 동부 초이발산(喬巴山, choibalsan)에서 네이멍구아얼산(阿爾山), 우란하오터(烏蘭浩特), 창춘, 투먼, 훈춘(琿春)으로 연결하여 러시아 및 북한 항구에 연계하는 창지투 선도구 계획 추진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몽골 서부 초이발산에서 확장하면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와 직접 연결되고, 서부 러시아 시베리아철도와도 연결되어, 환동해 철도교통선과는 전체 2,040km로서 새로운 유라시아대륙철도 건설도 가능하다.⁸¹

[표 VI-2]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지역	창춘(長春)시(더후이[德惠]시, 주타이[九台]시, 농안[農安]현), 지린(吉林)시(자오허[蛟河]시, 용지[永吉]현),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면적·인구	면적 73,000km ² (지린성 면적의 39%), 인구 1,090만명 (지린성 인구의 40%)
기간	2009 ~ 2020년
전략적 의미	① 내륙 국경지역 개발·개방의 거점 ② 중국동북지역의 새로운 성장 지역 육성 ③ 동북아시아 경제 기술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 ④ 동북아시아로의 새로운 대외개방 게이트웨이(gateway)

⁸¹ 또한 몽골의 경우 80여종의 광산자원 가운데 석탄 1,520억 톤, 철 20억 톤, 인 2억 톤, 동 800만 톤이 매장되어 있어 이 대통로의 건설이 절실한 바이다. 중국-몽골 간 '양산'(초이발산과 아얼산) 철도 연결은 443km로 단선 1급 국제표준으로 설계되어, 향후 대두만강지역의 중-몽 국제대통로로 연결될 것이다. 이미 2007년 8월 중국 국무원 '동북지역진흥규획'에 '양산' 철도 연결 프로젝트를 입안하여 건설 중에 있으며, 몽골에서도 2010년 동북지역 철도건설 계획에 포함시켰다. 윤승현, "최근 중국의 대북경협 실태와 전망," 매일경제신문사·한국정책금융공사 주최, 북한정책포럼 제18차 국제세미나 발표논문집 (2011.4.12).

구분	내용			
발전목표	① 2020년까지 2008년 GDP의 4배 증가 ② 대·중도시 오수 처리율 100% 등 ③ 삼림 보유율 68% 이상			
발전시책	1. 창지투 지역의 발전	(1) 경제·산업의 공간적 배치구조의 개선	① 분업 체계의 명확성	훈춘·대외개방의 창구 연륙투: 대외개방의 최전선 창춘·지란: 배후지
		(2) 산업 구조의 개선	① 첨단 제조업	자동차, 석유화학, 농산품 가공, 전자정보, 야금건재, 기계제조, 바이오, 신재료
	② 현대 서비스업	분사기능의 유치, 현대물류, 관광, 문화컨텐츠산업, 이웃소싱, 전담·전시, 금융보험		
	③ 현대농업 ④ 과학기술의 혁신			
발전시책	(3) 인프라 정비와 환경보전		① 교통, ② 수리, ③ 에너지	④ 정보인프라와 서비스, ⑤ 생태와 환경보전
	(4) 체제개혁		① 정부, 시장, 기업의 관계 명확	② 대외협력, 국제교류 관련 체제개혁
발전시책	2. 창지투 지역과 국내 타 지역 간 협력추진	(1) 지린성 내의 타지역 간 협력		
		(2) 동북 지역의 타지역 간 협력	1항: 창춘~송위안(松原)~바이칭(白城)~스터우징즈(石頭井子) 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훈춘(琿春)~내몽골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3중: ① 하얼빈(哈尔滨)~다롄(大連) 여객전용 고속철도, ② 선양(瀋陽)~지린 철도 복선화, ③ 동북 동부 철도의 완성	
	(3) 연해지역 간 협력			
발전시책	3. 창지투 지역의 국제협력 추진	(1) 국제물류 루트의 정비	① 초국경 경제협력의 인프라 정비	② 국제공항의 물류기능 강화
		(2) 초국경 경제협력 지역의 정비		
		(3) 국제 환경협력의 추진		
		(4) 국제 산업협력 지역의 건설		
		(5) 지식·문화·관광의 국제협력 추진	① 지식·인재 육성과 협력 추진	② 대외 문화교류 추진
		③ 국경관광 협력		
(6) 두만강지역의 새로운 국제협력 조직화 형성				

구분	내용	
실시 체제	1. 조직 체계의 강화	(1) 지린성정부: ① 실시 플랜의 작성 ② 조직 체제의 강화, ③ 실행 책임의 명확, ④ 전문 분야의 계획 작성 ⑤ 구체적인 프로젝트 실행
		(2) 중앙성청 ① 연락·조정 기능의 강화, ② 시행에 따른 문제 제점과 중대한 문제의 해결 시 지방정부 지원
		(3) 중국 두만강지역 개발항목 조정 그룹: 지방정부와 중앙성 청 조정
	2. 정책 지원의 강화 (중앙성청)	(1) 토지의 사용 허가
		(2) 프로젝트의 행정 허가
		(3) 교통 인프라 정비의 지원
		(4) 자원형 도시 구조 개혁의 지원
		(5) 두만강 협력 개발은행의 연구, 금융 지원
		(6) 인재 유치와 육성
3. 감독검사 체계의 강화	발전개혁위원회: ① 계획실행에 관한 조사 시행 ② 지린성정부와 함께 계획실행에 관한 정기 검사·평가 시행	

자료: 「중국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 참조, 필자 재구성.

나. 지린성 12·5계획과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경제발전

동북지역과 관련된 지역발전계획은 위계상 국가급 장기발전계획과 성급 단기집행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급 장기발전계획으로는 2007년에 공표한 동북진흥계획을 비롯하여 지린성 창지투 선도구 계획(2009년), 라오닝성랴오닝연해지구개발계획(2009년)이 있고, 성급 단기집행계획으로는 동북지역각 성별 12·5계획(2011년)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지역발전계획의 경우 마스터플랜인 국가급 발전계획에서 각 지역에 대한 발전목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계획인 성별 지급 시별 12·5계획과 연계시켜서 계획의 집행력과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⁸²

⁸² 중국 동북지역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천규 외,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동북지역 12·5진흥계획은 11·5기간 중에 발표된 동북진흥계획을 12·5기간에 맞게 5년 단위로 재편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동북지역진흥총장기계획(2007~2020년) 중에서 5년간의 단기적 실시 계획이다. 동북지역 12·5진흥계획은 11·5기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방향조정을 거쳐 수립한 것이므로, 이러한 5개년 진흥계획은 12·5기간이 끝난 후에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수립될 것이다.

12·5계획의 정식 명칭은 「국민경제 사회발전 12차 5개년계획」으로 국가급, 성급, 지급·시급, 심지어 현급(縣級)까지 수립되고 있다. 성급 12·5계획은 국가급 12·5계획을 총지침으로 하고, 지급·시급 12·5계획은 성급 12·5계획을 주요 근거로 한다. 그러나 하위의 12·5계획이 무조건 상위의 12·5계획만 지침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동북3성의 성별 12·5계획은 동북진흥계획을 중요한 계획근거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북3성 성별 12·5계획 수립에 있어서 동북진흥계획은 전국 12·5계획과 함께 또 하나의 주요지침인 것이다.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특정 지역계획으로 국가계획으로 격상되면서 성별 12·5계획의 근거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지린성 12·5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VI-3>과 같다. 지린성 12·5계획은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창지투 선도구계획을 12·5계획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여 제12장 3절 ‘창지투 선도구 건설의 가속’을 하나의 절로 구성하였다. 또한 계획 전반에 걸쳐 창지투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린성 5개년계획은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와 함께 세부적 실시계획으

로 작용된다. 이점이 바로 과거의 지린성 5개년계획과는 다른 비교를 만들어 내고 있다.

[표 VI-3] 지린성 국민경제 사회발전 12차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

공간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지원능력을 증강하여 내실 있는 도시화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구4축2벨트 틀에 의거, 창춘·지린을 핵심으로 하고, 중부 도시군을 기반으로 하며, 하대(哈大)고속철도와 훈춘-우란호터고속도로의 십자교통축에 의존하는 도시화 발전구도를 형성 ◎ 공업화·도시화·농업현대화의 융합발전을 촉진하여 도·농지역균형발전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중·서부가 분담·협력하여 상호발전을 추진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교통망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종5횡3순환4연결 고속도로망을 형성 - 도시 간 쾌속철도망을 건설하고, 하대고속철도와훈우(琿烏)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5종3횡철도망 형성 - 룡재(龍嘉)공항 확장, 통화(通化)공항과 바이칭(白城)공항의 건설, 송위안(松原)공항 신설, 연지(延吉)공항 이전을 추진하여 1주4보조 공항구도 완비 - 세관건설 강화, 쾌속통관기제 건립, 러시아·북한·몽골과의 교통운송통로를 연결하여 세관통관·화물통과능력을 전면 제고 ◎ 에너지보장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 톤 석유가스기지, 1천만 톤 석탄기지, 1백만 톤 할암유기지 건설 추진 - 화력발전을 최적화하며, 중소도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며, 츠쑹(赤松)화력전소를 착공하고, 국가급 풍력발전기지(1천만kW), 생물에너지 종합이용기지(1천만 톤) 건설을 추진 - 500kV 주간선망을 건설하고, 220kV 상순환전력망을 형성하며, 지능형전력망 건설을 추진 ◎ 수리기반시설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강·대하천의 홍수방지체계를 개선하고, 중점중소하천과 산홍수재해에 방정비구역의 홍수예방능력을 제고 - 하대(哈大)산수리거점, 년강(嫩江)용수의 바이칭시인입, 다안(大安)관개구역 등 중대사업을 완성하고, 중부도시쌍장(松工)인입용수공급사업, 중점지구응급비축용수원사업 건설을 착공 ◎ 정보시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인터넷, 제3세대이동통신망, 광섬유광대역망, 디지털방송TV망 등의 건설·승급을 추진 - 3개 통신망(전신망, 라디오TV망, 인터넷) 융합을 추진하고, 제3세대 이동통신망이 도시, 향진, 행정촌(당해지역의 70%)까지 보급 실현

산업	<p>◎ 신형공업기지 건설로 산업핵심경쟁력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자동차산업기지(완성차, 신에너지자동차, 첨단특수차, 자동차부품) 조성 - 대형석유산업기지(석유·가스, 정유, 에틸렌제품, 정밀화학, 바이오화학, 신형석탄화학) 조성 - 농산물가공산업기지(양곡정밀가공, 축산·가금물종합가공) 조성 <p>◎ 전통산업 개조·격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금산업(철강, 아금제련원료, 비철금속), 간재산업(시멘트, 유리, 벽재·장식재료), 장비제조(궤도열차, 풍력발전설비, 열교환설비, 농기계장비 등), 경공업·방직업 <p>◎ 특화자원산업 대폭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위광산자원산업(니켈, 몰리브덴, 마그네슘, 흑연, 규조토) - 생태자원산업(인삼, 광천수, 꽃사슴) <p>◎ 전략신흥산업 적극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 바이오화학, 전자정보, 신소재,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선진장비제조, 에너지절약·친환경산업 <p>◎ 현대서비스업 발전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서비스업(현대물류,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 생활서비스업(무역유통, 가정서비스, 부동산) - 지린특화서비스업(관광, 문화산업)
지린성 12·5계획에서의 창지투 선도구 계획	<p>◎ 제5장 1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지 일체화를 핵심으로 중부도시군 형성을 강화하여 성의 발전 동력으로 삼고, 2015년까지 창춘과 지린시 도시 인구를 각각 350만, 2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발전 <p>◎ 제5장 4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룡투(延龍圖) 일체화를 통한 지역중심 및 중요 결절점의 발전을 가속하여 의약, 제련, 건축지재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원자력 등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동부 생태경제구의 합리적인 배치 <p>◎ 제6장 5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지투 선도구를 중심으로 국제화 인재교류협력 기제 구축 <p>◎ 제2장 3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관철을 위하여 기초 인프라 건설 및 산업 발전을 가속 - 창춘시와지린시의 배후지역으로서 연룡투 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고, 훈춘특수경제기능구를 건설하여 접경지역의 기능 강화 촉진 - 국경통로 건설을 통한 출해통로의 확보 - 창춘싱롱(興隆) 종합보세구의훈춘 보세물류단지의 건설 및 운영 -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변경 경제협력 시범구의 적극 추진 - 러시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국제산업협력단지의 구축 - 연룡투 일체화, 창지 일체화를 통한 창지투지역 경쟁력 강화

자료: 「지린성 국민경제 사회발전 12차 5개년계획」 참조, 필자 재구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동북지역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는 대외개방을 기초로 한 러시아, 몽골, 북한, 한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초국경협력개발을 전제로 한 동북지역 공간발전의 지평을 더욱 확대시키는 발전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린성의 12·5계획뿐만 아니라 창지투 선도구 계획 역시 초국경 경험의 조성 목표를 위해 교통기반시설의 건설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다.⁸³

특히 창지투 개발전략에 의해 개통된 훈춘-나진항-상하이(上海) 노선은 중국 남북 교통체계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것이며, 이미 10만여 톤의 석탄이 이 노선을 이용하여 운송되어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시킨 사례가 있다.⁸⁴ 이는 지린성의 12·5계획에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향후 지린성은 대북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린성이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국가의 중심지로서 위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의 거점지로 기능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3. 동북지역 성내 외를 연결하는 철도, 도로, 항구 등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동북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동북아의 핵심거점, 즉 제4의 성장극으로 키우려 하는 중국정부의 전략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북지역의 교통망은 대몽골, 대북한, 대러시아의 국경세관을 상호연계시키는 완벽한 철도 도로망과 항구 공항체계가 구축될 것이고, 아울러 대외개방통로를 형성하는 교통운송시스템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4. 훈춘시는 나진항을 통해 훈춘산 석탄을 상하이, 닝보(寧波) 등 중국 남동부 지역으로 해상운송하는 방식을 이미 일반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2011년에 나진항을 이용해 시험적으로 시작한 석탄 남방운송이 본 궤도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석탄 수송에 지장을 줄 정도로 열악했던 북한 원정리-나진항 구간 도로의 장애물이 일부 제거돼 나진항을 통한 훈춘산 석탄 남방운송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훈춘시는 2011년 1월 11일 훈춘산 석탄 1만7천 톤을 나진항에서 상하이로 운송한 뒤 연말까지 총 50만t의 석탄을 실어낼 계획이었지만 원정리~나진항 구간 도로공사 탓에 실제 운송량은 목표의 5분의 1 수준인 10만t에 그쳤다. 훈춘시는 2012년에 나진항을 이용한 석탄 남방운송 목표량을 50만t으로 잡고 있다.

또 한편으로 지린성 12·5계획에서 보여주는 2015년까지의 경제 발전 목표는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성과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표 VI-4]를 참고하면 지린성 12·5계획은 경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 노후공업기지의 전면적인 진흥,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위한 사회의 기초 공고화, 도농주민의 생활수준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지린성의 발전목표는 ① 안정적이며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지속: GDP 매년 12% 이상 성장, 재정수입 증가율은 GDP 성장률 이상, 물가는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 ②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진전: 소비수요 확대, 투자규모 적정 수준의 증가, 10대 산업 발전계획 추진, 지주 산업의 기타 경제산업에 대한 견인능력 제고, 신흥전략 산업 가속발전, 첨단기술산업 부가가치액의 GDP 대비 비중 제고, ③ 자원절약과 생태환경 지속적 개선: 경지보유량 553ha 확보, 삼림 녹화율 44.2% 달성, 주요 오염물 배출량 감소 등, ④ 도시화 수준의 명확한 개선, ⑤ 국민 생활수준 향상 프로젝트 성과 제고: 취업규모 확대로 매년 50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농촌주민순수입 증대, 의료보건 수준제고, 빈곤인구 감소, ⑥ 사회건설 강화: 의료보건, 문화 등 사회사업 적극 전개, R&D투입 확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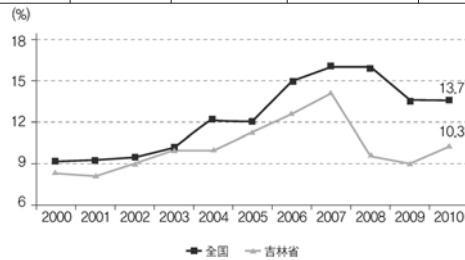
현재 지린성은 공업화 중기단계로 산업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통해 도시화를 진행 중이며, 기초시설의 건설, 사회사업 발전 등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추세는 12·5계획기간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GDP 성장률 12%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 동북지역 경제권 중심지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표 VI-4] 지린성 국민경제 사회발전 12차 5개년계획의 주요 목표 지수

분류	지표	단위	2010년	2015년	연증가율	비고	
경제 성장	GDP	억 위안	8,577	15,000이상	12% 이상	예상	
	GDP 대비 재정수입 비중	%	14	17	0.6%p	예상	
	그중: 지방재정수입	%	7	9	0.4%p	예상	
구조 조정	3차 산업 구성	%	12.5: 51.5: 36.3	10: 50: 40	-	예상	
	우위주산업/공업생산액 (부가가치기준)	%	62.3	68	1.14%p	예상	
	첨단기술산업/공업생산액 (부가가치기준)	%	8.5	20	2.3%p	예상	
자원 환경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억 위안	3,502	7403	15%	예상	
	경지보유량	만ha	553	553	-	강제성	
	공업생산액(부가가치) 단위당 용수량	m ³ /만 위안	87.5	-	*국가 요구 수준	"	
	비화석에너지/일차에너지소비	%	6.02	9.8	0.76%p	"	
	GDP 대비 에너지 소비	톤/만 위안	-	-	5년누계 16% 감소	"	
	GDP 대비 CO ₂ 배출	만 톤	-	-	5년누계 17% 감소	"	
	주요 오염물질 배출 감소	COD	만 톤	83.4	76.1	-8.8%	"
		SO ₂	만 톤	41.7	40.6	-2.7%	"
		암모늄	만 톤	5.87	5.25	-10.5%	"
		NOx	만 톤	58.2	54.2	-6.9%	"
삼림증가	녹화율	%	43.6	44.2	0.12%p	"	
	축적량	억m ³	9.14	9.6	0.98%	"	
도시화	도시화율	%	-	60	-	예상	
국민 생활	생(省)전체인구	만 명	2,746	2,787	3% 이내	강제성	
	도시등록실업률	%	약 4%	4.5 이내	4.5% 이내	예상	
	도시취업증가인구	만 명	247.5	250	매년 50만 명 증가	예상	
	도시 양로보험인구	만 명	565	650	매년 17만 명 증가	강제성	
	도시 기본 의료보험 가입	%	91.6	92	0.08%p	"	
	도시 보장성주택건설	만 가구	151.3	214.6	누계 63.3만 가구	"	
	도시주민 1인당	위안	15,412	27,160	12% 이상	예상	

분류	지표	단위	2010년	2015년	연증기율	비고
	가치분소득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위안	6,237	10,992	12% 이상	예상
	퇴직근로자 평균임금	위안	28,850	50,900	12% 이상	예상
사회 건설	9년 의무교육	%	97.8	99	0.24%p	강제성
	초중고등학교 진학률	%	95	95	-	예상
	GDP 대비 R&D 비중	%	1.15	2	0.17%p	예상
개혁 개방	GDP 대비 민간경제 (부가가치기준)	%	49.2	60	2.16%p	예상
	수출입 총액	억 달러	168.5	310	13%	예상

지린성 실질경제 성장률의
추이
(2000 ~ 2010년)



자료: 「지린성 국민경제 사회발전 12차 5개년계획」 참조, 필자 재구성.

다. 지린성과 한국의 경제관계 변화

동북진흥계획은 동북3성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국가 주도의 지역개발계획이다. 이 3개의 성은 총면적 약 79만km²(중국 전체 면적의 약 8.2%), 인구 약 1억 832만 명(중국 인구의 약 8%)으로, 동북진흥이 시작된 2003년부터 매년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2011년 동북3성의 경제성장률은 랴오닝성이 12.1%, 지린성이 13.7%, 헤이룽장성 12.2%로 지린성이 가장 높았다. 지린성은 11·5계획 기간에도 동북3성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2010년 제외).⁸⁵

⁸⁵ 그러나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을 통칭하는 동북3성 중에서 랴오닝성이 나머지 2개 성에 비해 지니는 경제적 위상은 독자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동북3성의 중점 프로젝트가 중복되는 경향에 대해 성 간 경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나, 중앙정부는 성 간 협력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 인프라 구축은 내륙도시에 항구 시스템을 결합하는 ‘내륙항(內陸港)’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데, 물과 선박이 없는 항구로 무수항(無水港)이라고도 한다. 이는 컨테이너 중계역에 해당하며 통관 수속, 검역 등 선적과 하적 이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화물이 적시 운송과 송달을 보증할 수 있다.

2008년 12월 지린성 창춘시 내륙항이 완공되어 다롄항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11월에는 지린성 지린시에 내륙항 건설이 완공되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하여 동북지역의 내륙 교통물류 시스템은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동북3성의 교역규모를 보면 1988년 23억 달러에서 2011년 106억 달러로 3.6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한·중 교역규모는 184억 달러에서 2,206억 달러로 약 12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동북3성 간 교역규모는 1988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2009년 제외), 동북3성과의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대동북3성 무역수지는 1999년과 2000년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폭은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랴오닝성의 경우에는 동북3성 중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이는 랴오닝성이 개혁·개방의 물결에서 완전히 소외되지 않고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발전을 일구는 토대가 되었다. 반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내륙에 위치해 있어 교역 여건이 열악한데, 이는 한중 수교 이후 한국기업이 임가공 형태로 중국에 진출할 당시 시대적 수혜를 누리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김부용·임민경,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동북3성,”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Vol. 3, No.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이처럼 한국의 수출시장으로서 동북3성의 위상은 낮아졌으나, 동북3성의 수출시장으로서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⁸⁶

2011년 한국의 대지린성 교역총액은 약 7억 9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1.6%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인해 한국의 대지린성 수출(2억 6,600만 달러)은 19.6% 증가하였으며, 수입(5억 2,400만 달러)은 8.1% 증가하였다.

[표 VI-5] 한국의 대지린성 교역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교역액	787	-14.1	614	-21.9	708	15.3	790	11.6
수출	189	-9.0	187	0.9	223	19.0	266	19.6
수입	598	-15.6	427	-28.6	485	13.5	524	8.1
무역수지	△409	-	△240	-	△262	-	△258	-

자료: 중국해관통계, <www.kita.net>.

2011년 한국의 대지린성 주요 수출품목은 평판압연제품, 폴리에틸렌, 자동조절용기기 등이다. 수출품목 1위인 철강(HS72)은 자동차, 기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철강재(자동차용 강판)인데, 이는 지린성이 중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 기지라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지린성을 포함한 대동북3성 수출에서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동북3성의 노후공업기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한 기계류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⁸⁷

⁸⁶ 2011년 기준으로 동북3성의 전체 수출에서 한국은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동북3성 무역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랴오닝성에 편중되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동북3성 교역에서 랴오닝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1%이다.

⁸⁷ 한국의 대동북3성 기계류 수출액은 1998년 약 1.5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약 4.2억 달러로 연평균 14.8%씩 증가하여 같은 기간 한국의 대동북3성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10.8%)을 상회하고 있다.

[표 VI-6] 한국의 대지린성 주요 수출품목(2011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7210	폭이 60mm이상인 도금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53,024	63.3
2	3901	에틸렌의 중합체	26,031	56.0
3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거용 기기	16,892	-26.0
4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냉간압연)	11,106	3.9
5	8544	전선, 광섬유 케이블	9,066	19.2
6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6,618	-1.4
7	8536	퓨즈, 개폐기, 커넥터	6,324	-13.4
8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5,746	229.4
9	3926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5,449	188.4
10	3903	스티렌의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5,445	52.7

자료: 중국해관통계, <www.kita.net>.

2011년 한국의 대지린성 주요 수입품목을 보면 어류, 곡류, 채소류 등 식품류가 대표적이다. 지린성은 특성상 농산물 생산이 풍부하고 가공산업이 발달되어 지린성으로부터 의식품류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⁸

[표 VI-7] 한국의 대지린성 주요 수입품목(2011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0305	건조, 염장, 훈제한 어류, 어류의 분	50,170	-7.9
2	1006	쌀(벼 포함)	39,793	72.0
3	8544	전선, 광섬유 케이블	24,735	11.1

88. 한국의 대동북3성 수입품목에서는 대중 수입품목과 달리 곡물류(HS10)의 수입 비중이 크다. 2011년 한국의 대중 곡물 수입의 95.7%를 동북3성(특히 헤이룽장성)이 차지하고 있다. 동북3성은 중국내에서도 쌀·옥수수·대두 등 주요 작물 생산 지로서 기능하는데,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잘 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순위	HS코드	품목명	금액	증가율
4	1201	대두	23,224	75.9
5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19,347	1,052.5
6	7227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18,566	-
7	2302	밀기울, 마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	18,109	41.4
8	0710	냉동채소(조리 안한 것)	16,106	-6.8
9	2833	황산염·명반과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15,627	83.5
10	7201	선철가스피그라이즌(피그·블록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12,588	63.8

자료: 중국해관통계, <www.kita.net>.

지린성은 한국의 주요한 수출시장이다. 동시에 중국이 추진하는 창지투 선도구 계획 등 지역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린성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투자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한국 대기업의 진출이나 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의 방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창지투 선도구 계획으로 파생되는 지린성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롯하여, 특히 북한 개혁·개방의 공식적인 모델이 될 라 선특별시 경제특구 개발을 위해 중국 중앙정부가 지린성을 경제무역 파트너로 지정하여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린성이 남·북·중 삼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제공하고 있다는 면에서 두만강지역 일대에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훈춘국제합작시범구건설(關於支持中國圖們江區域(琿春)國際合作示範區建設, 2012년 4월 승인)’은 두만강지역 일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두만강지역의 신개발전략과 환동해권의 확대가 기대되는 요소이다. 남·북·중의

능높이가 맞춰지고 이해관계가 조절된다면 전략적 합의가 된 동북아의 경협이 새롭게 조성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4. 창지투 개발과 한·중 협력

가. 한국의 대지린성 투자 현황

한국의 대동북3성 투자는 1992년 2,962만 달러에서 2011년 20배인 5억 9,86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수교 초기 동북3성은 한국기업의 주요 투자대상 지역이었지만 동부 연해지역의 대외개방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소외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⁸⁹

한국의 대지린성 투자 규모를 보면 2011년 8,9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4%, 투자건수는 22건으로 전년대비 24.1%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의 경우 투자금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한국의 하나은행이 중국 지린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이다.⁹⁰ 한·중 수교 이후 현재(1992~2011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에서 동북3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2.4%로 성별로 보면 9.4%는 랴오닝성, 2.2%는 지린성, 0.9%는 헤이룽장성 순이다. 백분율로 보면 동북3성에 투자한 금액의 75.3%가 랴오닝성

⁸⁹ 한국의 대동북3성 투자가 대중 투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약 30%였으나 2006년 6.7%까지 급감하였으며, 2011년 다시 16.7%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3성은 연해지역을 웃도는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소비력 측면에서도 발전의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받아, 아직 틈새시장으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CJ, 하나은행, 포스코 등 대기업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⁹⁰ 하나은행측이 약 3억 1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중국 지린은행의 지분 18%를 인수함으로써 지린성 정부 다음으로 제2의 주주가 되었다.

에 유입되었으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각각 17.6%와 7.1%에 그치고 있다.⁹¹ 그러나 2010년을 제외하고 한국의 대지린성 투자규모는 2011년 투자금액이 수교이후 현재까지 제일 많은 투자를 보이고 있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VI-8] 한국의 대지린성 투자 규모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치	증가율	수치	증가율	수치	증가율	수치	증가율
투자프로젝트	38	-42.4	26	-31.6	29	11.5	22	-24.1
투자금액(실행기준)	23.8	-38.4	19.4	-18.5	327.6	1,588.7	89.3	-72.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지린성의 투자를 보면([표 VI-9] 참조) 식료품, 음료, 의복, 나무제품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으며, 이는 임목자원과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투자업종은 수교 초기의 도·소매업, 농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업에서 점차 금융업과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업, 부동산업과 함께 3대 비제조업 투자업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동북3성 투자가(특히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생산기지보다는 내수시장 성격이 강한 동북3성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내수지향적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한국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⁹¹ 랴오닝성은 동북3성 중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고 있는 성으로 동북3성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주로 랴오닝성에 집중된 사실은 그동안 한국의 대동북3성 투자 역시 해외수출을 위한 임가공 생산기지로 활용된 측면이 많았음을 설명한다.

[표 VI-9] 한국의 대지린성 업종별 투자규모

(단위: 개사, 천 달러)

업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2012.3월말누계)
Total	1,084	810,053
농업, 임업 및 어업	38	5,140
광업	10	5,017
제조업	765	335,71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1,54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100
건설업	26	14,514
도매 및 소매업	81	43,262
운수업	6	2,992
숙박 및 음식점업	60	23,50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	2,480
금융 및 보험업	3	320,9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	35,75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	92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1,297
교육 서비스업	9	1,1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13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	9,23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	6,40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2010년 하나은행은 지린성 국유은행인 창춘시 소재 지린은행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이를 비롯한 지린성 진출 주요 한국기업은 포스코의 훈춘시 물류원구 개발, 훈춘시 소재 쌍방울방직유한회사, 엔벤주 소재 농심의 천지광천음료유한회사, 엔지시 소재 한정인삼유한회사, 창춘시 소재 롯데마트 등이 있다. 과거 중소기업 형태의 진출에서 최근에는 한국의 대기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실행에 따른 한국 대기업의 전략적 진출로서 극동러시아, 북한 북부 및 몽골 동부를 포함한 동북아

의 새로운 북방경제진흥에 부응한 포지션의 선택으로 지린성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표 VI-10] 지린성 진출 주요 한국기업

연번	기업명(중문명)	업종	주요 사업내용	투자액
1	포스쿠 (琿春浦真現代國際物流園區開發有限公司)	개발산업	물류원구 개발	15,000
2	쌍방울방직유한회사 (吉林裳邦紡織有限公司)	제조업	순면직 내의	5,900
3	삼명여행여가산업유한회사 (延邊三明旅遊度假產業有限公司)	서비스 (관광)	관광, 리조트	7,353
4	천지광천음료유한회사 (延邊天池礦泉飲料有限公司)	제조업	광천수	4,998
5	한정인삼유한회사 (吉林韓正人參有限公司)	제조업	인삼 가공식품	6,450
6	해신부동산개발유한회사 (延邊海信房地產開發有限公司)	부동산	부동산 개발	2,998
7	룽징텐리고려홍삼식품 (龍井天力高麗紅參食品有限公司)	제조업	건강음료, 식품, 일용품	2,300
8	투먼시정우포장제품 (圖們市正佑包裝製品有限公司)	제조업	포장제품	1,837
9	지린롯데마트 (吉林樂天超市有限公司)	유통	백화점, 마트	4,500
10	창바이산산선명스키장 (延邊長白山山峯滑雪場有限公司)	서비스 (관광)	스키장	3,400

자료: 지린성상무청, <www.jldofcom.gov.cn>

나. 창지투 개발과 한국의 협력

지린성은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내 개발구 조성을 서두르고 빠르게 발전시키고자 한다. 지린성에는 현재 109개의 개발구가 있는데, 그 중 국가급 개발구 8개,⁹² 성급 개발구 60개, 성급

⁹² 지린성의 대표적인 국가급 개발구 8개는 창춘고신기술산업개발구, 창춘경제기술개발구, 훈춘변경경제합작구, 지린고신기술산업개발구, 연지고신기술산업개발

공업집중구역이 41개이다. 이들은 지린성 9개 시 및 연변주와 장백산관리위원회, 60개 현급 시 및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지린성 개발구는 대체적으로 고신기술형, 경제기술형, 관광경제형, 농업경제형, 무역경제형, 수출가공형 6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자동차 및 그 부품, 농산물 심가공, 바이오의약, 광전자기술, 정보기술, 신형 건축자재 및 관광 등 7대 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한다. 이처럼 지린성의 기반시설과 중점산업 등 주요 프로젝트의 건설은 모두 개발구에 집중되어 있다.

지린성의 11·5계획 중점분야를 보면 5대기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 석유화학, 농산물가공, 현대중의학·바이오테크, 첨단기술 등으로 지린성내 개발구에 조성되고 있다. 이 5대 기지는 12·5계획에서도 산업별로 현대화·전문화·세분화로 분류시켜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의 지린성 진출 유망 분야를 보면 자동차부품, 자동차 전문장비, 석유기계 등을 비롯하여 12·5계획에 포함된 산업과 향후 지린성이 러시아 및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대상의 경제권을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야를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2020년까지 과학기술 혁신기지, 현대 물류기지, 현대 농업 시범기지,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서비스기지 등 신흥공업기지의 건설로 중국 동북지역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 풍력발전설비, 광산장비,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바이오매스 등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린성은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2012년 6월 쑤정차이(孫政才) 지린성 당서기가 한국 방문을 통하여 ‘한국-

구, 지린경제기술개발구, 쓰핑홍주이(四平紅嘴)경제기술개발구, 창춘서신경제기술개발구 등이 있다.

지린성경제무역교류회'를 가졌다.⁹³ 창지투 개발을 위한 한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공개화 한 것으로 한국기업들의 지린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청하였다. 이는 중국 동북진흥계획을 진행하기 위하여 창지투 선도구 계획 및 훈춘국제합작시범구건설을 위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요구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극동러시아, 북한 라선특별시 등의 새로운 변화, 즉 두만강지역의 새로운 변화에 한국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쑨정차이 당서기는 2012년 9월 10일 포스코와 현대그룹이 공동출자(포스코 80%, 현대 20%)한 훈춘국제물류단지착공식에 참석함으로써 두만강지역개발 사업에 한국의 공식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사업비 총 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훈춘시국제합작시범구에 위치한 이 물류단지는 1.5km² 크기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자동차 야적장, 집배송 시설, 관리부대 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부지는 m²당 175위안(약 3만1,114원)에 중국정부로부터 50년 동안 임차해 사용한다. 1단계 공사는 내년 말 완료돼 2014년 1월부터 훈춘국제물류단지가 본격 가동된다. 2단계, 3단계 공사는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이 물류단지에서는 목재, 곡물, 수산물, 사료, 자동차부품, 의류, 광학기기, 생활소비재 등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상품을 보관, 재가공한 뒤 북한 라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통해 중국 동남부 지역으로 운송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⁹⁴

⁹³ 쑨정차이 지린성 당서기는 중국의 차세대(6세대) 지도자 후보로 거론되는데, 이날 한국기업들과 지린성 정부 및 기업들은 농업, 건설, 에너지, 유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3조 9,000억 원에 이르는 투자협정을 체결함. “한국대기업투어... 4차기실세 ‘4조투자유치,’” 『한국경제』, 2012년 6월 18일.

[표 VI-11] 지린성 진출 유망 분야

유망분야	유망근거
자동차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린성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자동차 부품 조립률이 비교적 낮으며 제품 수준이 미달임. -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지린성완성차 그룹인 FAW의 부품 조립률은 38%에 불과 - 자동차 부품 산업은 지린성 정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린성은 12·5계획에서 조립률을 50% 이상으로 제고할 계획
풍력발전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린성은 풍력자원이 풍부하고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관련 설비는 부족한 실정 - 지린성은 풍력발전 시장 잠재력이 크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은 해외 풍력발전설비 생산업체들의 각광을 받음. 대부분 중국기업과 합자 형태로 진출
광산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린성은 구조도, 몰리브덴 등을 비롯한 광산자원이 풍부하나 광산 기계 장비는 외국에 비해 품질 차이가 큼. 채굴기, 여과기 시추기 등 광산장비의 수요 기대 - 지린성 정부의 장비개조추진 제조업 분야에 광산장비가 포함됐으며, 광산산업의 규모 확대를 위해 장비와 설비 교체, 기술개선 등을 추진 중
석유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린성은 중국 주요 석유화학산업 기지이나, 채굴 및 정제에 필요한 설비들이 낙후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침. - 고효율, 에너지 소모가 적고 사용수명이 긴 설비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향후 지린성 정부는 관련 설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자동차 전문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지린성은 자동차 전문 장비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함. 자동차 튜닝, 차량 소독기, 수리시설 등을 포함한 자동차 전문 장비업체들이 적어 자동차 산업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94. 헤이룽장성 하얼빈이나 지린성 창춘에서 랴오닝성 다렌으로 운송할 때보다 ‘동해 출구’ 이용이 본격화되면 물류비용이 15~30% 줄어드는 매력적인 사업으로 평가됐다. 중국정부는 국제물류단지를 중심으로 90km²를 국제합작시범구로 지정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한편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 지린성과헤이룽장성의 철도 운송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주요 품목 물류는 향후 8년 동안 2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3단계 공사가 끝나면 연간 1,300만t 규모의 물류를 취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본격 개방을 하게 되면 훈춘이 라선특별시와 청진으로 통하는 직행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중국기업과 청진항 항만합작경영회사를 공동 설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포스코와 현대그룹도 북한 김정은 체제의 최근 개방 신호 등 변화를 염두에 두고 훈춘물류단지 착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훈춘국제물류단지의 향후 전망은 북한 측의 태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포스코·현대, 中훈춘 물류단지 착공… 2,000억 투입 2019년 완공,” 『국민일보』, 2012년 9월 10일.

유망분야	유망근거
	- 설비와 기술서비스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의 진출 여지가 큼.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	- 도시 쓰레기는 중요한 오염원으로 정부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생활 쓰레기 분류 및 처리를 실시할 계획 - 생활 쓰레기의 무해화 처리율 80% 달성 및 쓰레기를 자원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를 가속화할 계획
오수처리 시설	- 12·5계획 중 중점분야로 오수처리기술 개선과 노후시설 교체, 주요 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건설해 처리능력 제고 - 도시, 농촌의 집중 오수처리율을 70%에 달하도록 할 계획이며, 2009년 이미 23개의 오수처리시설을 설립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
바이오 매스	- 지린성은 세계 3대 옥수수 생산지대 중 하나로 옥수수 줄기 이용량은 2,300만 톤으로 잠재적 경제가치가 1,000억 위안에 달함. - 옥수수 줄기 소각으로 발전(發電)을 하고 찌꺼기는 비료로 사용하는 녹색 발전 산업과 프로젝트가 각광을 받고 있음.

자료: KOTRA, 『차이나 마켓 31, 31개 성시 데이터북 동북부/중부편』(서울: 코트라, 2011).

훈춘 국제물류단지가 주목되는 것은 이 지역이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도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교류 협력의 상징적이며 실질적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두만강 개발사업 참여를 북방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원인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 지역 개발이 활발해질수록 관계국들은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안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경제적으로 큰 기회이며,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이다.

5. 소결

지금까지 한·중 20년 협력관계 변화에서 창지투 선도구 계획이 한국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에서 시작하여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에서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전략적 위치와

합의를 정리하였다.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동북진흥계획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계획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몽골과 연계되는 국제대동로 건설을 바탕으로 중국 연해(沿海)지역 개발의 새로운 모멘텀을 구축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중국이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지린성 5개년계획은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와 함께 세부적 실시계획으로 작용된다는 점이 바로 과거의 지린성 5개년계획과는 다른 비교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린성과 한국의 경제관계 변화를 통하여 향후 경제협력의 공간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이 남·북·중 삼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제공하고 있다는 면에서 두만강 지역 일대의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동북진흥계획의 일정한 성과를 통하여 경제발전 과도기를 넘어 경제의 본격적인 발전기를 때맞춰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 투자에서 동북3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 들어 16.7%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지린성의 경제발전은 동북3성 가운데 제일 빠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지린성의 공업은 성장력을 갖춘 소수의 대규모 공업과 다수의 소규모 공업이라는 이중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수송기계와 석유화학의 2대 산업으로 지역 내에서의 산업 연계가 약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2대 산업은 크게 성장하더라도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른 산업과의 상승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아직 발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 고성장과 더불어 산업의 이중구조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지린성의 핵심산업인 자동차·수송기계의 경우 세트 메이커(완성차 메이커)에 비해 피스 메이커(영세부품 메이커)의 산업집적이 뒤쳐지고 있다. 한국은 이 분야에 참여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⁹⁵ 이외에도 풍력발전설비, 광산설비, 석유기계, 자동차 부품 및 전문장비,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바이오메스 등은 지린성 진출의 유망 분야로 분류된다.

지린성은 이러한 산업구조의 빠른 개선을 위하여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극동러시아 및 북한 등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상대적인 중소기업의 빠른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제구조는 한국의 참여공간을 확대시켜 갈 수 있는데, 지린성과 동북3성의 내수시장 개발확대와 극동러시아 및 북한 북부항의 종합적인 교통물류 방면의 활용일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의 자원에너지 활용방안도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동북3성과 더불어 동북아 자원물류 거점 및 환동해권 물류중심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동북지역의 중공업 제품, 곡물 및 자원 등을 중국 동남연해지역은 물론 한국, 일본, 구미지역 등으로 운송할 수 있는 환

⁹⁵ 지금까지 서로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같은 상류(商流)로 재구축된다면 기업의 설립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의 생산 거점에서의 실적 유무가 신규 납입처의 평가·판단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경우 현지 기업이나 제3국 기업과의 제휴관계를 구축·강화시켜 나간다면 판로의 확대, 소재·부재의 조달처 확보, 인재의 보완·육성 등의 여러 과제가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될 것이다.

동해권 해상통로를 거의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동해권 운송 물류망의 변화는 동북아 허브 기능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지정학적 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분법적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전개하는 창지투 선 도구 계획의 두만강 이니셔티브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익의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에게 현실적 대안과 장기적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우선 창지투의 전진거점인 훈춘지역에 포스코와 현대그룹이 훈춘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처럼 배후 산업지대에 대한 한·중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이 지역에는 한국기업 전용공단이 개발되어 있어 중국시장 출로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북한시장 진출에도 용이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의 조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남·북·중, 남·북·러 다자간 협력을 고려해 가면서 북한 스스로의 자력경제발전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 의도의 양자간 협력 진행을 지양하고, 다자간 협력의 틀로서 이 지역의 개발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구상까지 연결될 수 있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경제협력의 첫 걸음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VII. 맺음말: 대북 경제정책에의 시사점

1. 북·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

1990년대 말 북·중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고, 2001년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양국 우호관계의 회복에 따라 북·중 양국의 경제관계는 급속한 진전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이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대중 의존이 절대적인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북·중 무역은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팽창하였다.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남북교역 제외)은 2000년대 초반 25% 정도였으나 중반에는 이미 50% 수준에 육박하였다. 이후 계속된 양국 무역의 확대로 2011년 교역액은 56.2억 달러(북한의 전체교역액 63.1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는 89.7%로 높아졌다. 200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은 대외경제측면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표 VII-1]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의존도(%)	24.7	32.5	32.7	42.8	48.5	52.6	56.7	67.1	73.0	78.5	85.5	89.7

주: 남북교역 제외

최근 북·중 무역에서의 특징은 북한이 광물자원의 대중 수출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연탄 등 광산물, 철광석 등 비철금속을 합한 비중은 2007년 70% 이상에서 2011년에는 75%로 상승하였다. 이 중 무연탄 단일품목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010년 33.8%, 2011년 46.5%, 2012년 상반기에는 58%로 북한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은 북한의 주요 외화(경화) 획득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양국 무역에서의 변화보다 오히려 경제협력 방식에서의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중 경제협력은 양국 접경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양국은 2010년 12월 말 단둥(丹東)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2011년 1월 초 중국은 북한 나선항을 통해 처음으로 지린성(吉林省) 석탄을 중국 남방의 상하이로 운송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11년 6월 북·중 접경지역 경제특구(나선, 황금평·위화도)를 중국과 공동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초기 중국의 대북투자는 동북3성 개발과 관련한 자원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측면에서 북한 자원개발 분야에 치중하였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대북 투자 영역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중국의 ‘도로, 항만, 개발구 일체화 건설’ 지침에 따라 대북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이 실행되면서 중국의 대북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즉, 동북3성 개발과 연계한 중국의 대북 인프라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양국 간 개발협력이 실행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북·중 간 접경지역 경제협력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북한 방문 시 양국이 다양한 경제협력에 합의함으로써 가시화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양국 간 대규모 경제협력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 또는 추진되고 있다. 현재 양국은 신압록강대교 신설, 훈춘-나진항 연결도로 건설, 나진항 부두 등의 인프라 개발, 위화도와 황금평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공동개발 등 경제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북·중 접경지역 북한 인프라 개발은 동쪽의 훈춘(琿春)-나선과 서쪽의 단둥-신의주, 두 축에서 진행되고 있다. 단둥-신의주 축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인 신압록강대교 건설은 진행 중에 있으나 위화도·황금평 자유무역지구 개발은 아직까지 진전이 매우 더딘 상태이다. 반면 동쪽 축에서의 협력사업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이 북·중 접경지역 중 동쪽 축의 개발을 서두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동북지역의 물류 운송을 위한 동해로의 출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09년부터 새롭게 나선지역 및 인접 중국 지역을 연계 개발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창춘-훈춘 고속도로의 개통과 연계하여 취안허(圈河)-원정 다리 보수(2010.6.1 개통) 및 원정-나진 간 도로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나진항 부두 개발권을 획득하였다. 이 밖에도 2010년 들어와서 북·중간에는 양국 인프라 개발협력을 위한 각종 논의를(투먼-청진항 구간 철도 보수, 북한 청진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 등) 진행한 바 있다.

북한이 북·중 양국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북·중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남북경협을 통한 외화 수입이 줄어들고,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기댈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긴밀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활용해 우선 중국자본을 유치해 나선시와 신의주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나진항 사용권을 획득해 동북3성 물류를 태평양으로 운

송할 수 있는 동해 출루권을 확보하였고, 창지투(長吉圖)개발선도구 계획과 연계해 북·중 접경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의 선택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전방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로 양국 경제협력에 나서고 있다. 과거 북한은 무역부문에서 중국에 의존해 왔지만 산업구조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 의존은 양국 간 무역 위주에서 중국의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 방식도 최근에는 대북 지하자원 개발과 병행하여 양국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로 이동하고 있다.

2. 북·중 경제관계 심화의 영향

중국과 북한 양국의 상호 이해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로 인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는 불가피하다.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은 단연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는 2011년 거의 90%에 이르고 있다. 최근 북·중 무역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북한은 중국 상품의 소비시장이 되었고, 중국의 대북 시장지배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중국의 대북투자는 주로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진행되었다. 동북3성 기업이 주도하는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 개발 투자는 중국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⁹⁶ 북한의 거대한 광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이 중국기업의 대

⁹⁶ 윤병수·동애영,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금융연구시리즈』, 제3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3.26), p. 21.

북 투자를 유인하고 있고, 향후 중국의 자원 수요 증가와 맞물려서 중국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중국의 상품시장에 이어 자원 공급기지로 전략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최근 북·중 경제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상당한 수준에서 소비시장과 자원 공급기지로 다져놓았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양국 간 물리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3성 개발, 특히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계획을 북한 접경지역과의 연계 개발로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나선지역 및 단둥-신의주를 잇는 북·중 경제협력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창지투를 선도구로 한 두만강지역 국제협력의 추진은 지린성과 북한 간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양국 간 접경 지역 개발 협력은 북한 북동부지역의 인프라 개선, 동북아지역에서 나진항과 청진항의 역할증대, 북한 관광업의 활성화, 북한 북동부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개혁·개방의 추진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중국의 대북 투자진출이 확대될 경우 북한은 중국경제에 예속될 수도 있다. 이미 중국은 일부 북한 광산과 항만에 대한 장기간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에도 나서고 있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규모 대북투자가 조기에 실현된다면 북한경제는 사실상 중국경제에 편입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은 2010년 「경제인프라구축 10개년계획」에 이어 2011년에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물론 북한의 10개년 개발계획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한 대내

홍보용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계획에 포함된 외자유치 대상국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의지를 장기경제개발계획에 담아 북·중 관계의 단독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대북 경제적 수요는 향후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동북3성 개발에 따라 중국의 북한 자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향후 중국의 이 분야에 대한 대북투자는 늘어날 것이다.⁹⁷ 동북3성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중국의 대북 인프라 투자도 계획에서 벗어나 실행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대북 경제적 수요는 북한의 자원 및 인프라, 여타 분야에 대한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의 진전 여부에 따라 상대적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경협을 추동했고, 북·중 경제관계는 이런 남북경협 확대에 자극을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협의 추진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남북경협의 위상은 북·중 경제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추락하였다. 북한 핵문제의 진전에 연계된 남북경협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였다. 남북경협은 정체한 반면 북·중 경제관계는 확대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심화된 것이다.

북·중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경제는 구조적으로 중국경

97. 중국은 대외직접투자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국내 자원 부족의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영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통일경제』, 2008년 여름호, 재인용,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중국기업의 국제화전략 보고』 (2007.11).

제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까지 북한은 무역부문에서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지만 산업구조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협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라선시 및 신의주 지역 개발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자본재에 초점을 둔 대북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에 적합한 산업경제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대북 경제정책 방향

중국의 동북3성 진흥전략 및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은 북·중 간 경제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경제발전과 개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온 양국 간 경제협력은 창지투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심화되어 북한의 대중 경제적 의존을 거의 절대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국제제재가 지속되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위축됨으로써 북한이 중국 일변도의 무역과 투자 유치에 나서는 것은 북한 생존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대중 경제의존 심화는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중 양국의 정치, 경제적 관계 심화를 한중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한 기회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중 의존 심화를 단순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북한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 및 향후 개방을 지향하는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경제정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식, 즉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 추진전략의 선회가 필요하다. 대북 경제지원·협력 프로그램 시행, 남북한 자유무역 추진, 제2 개성공단 건설을 비롯한 북한 내 개방형 특구 개발 등과 같은 많은 대북 경제협력 사업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다면 남북경협은 북·중 경제관계 확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우리의 대북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북 경제정책은 중국과의 협력 및 동반자적인 관계를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경제관계 발전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대북 진출 확대를 바라보면서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의 하나로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을 표출하기도 한다. 물론 북한의 대중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면서 북한경제가 급속도로 중국경제에 예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중 상호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우리의 극단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통해 최악의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주민의 굶주림도 다소 개선되었다. 중국의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은 북한의 변화에 간접적이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보낸다면 북·중 경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대북 경제정책이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이 새롭게 제시될 수 있다.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확대는 지금까지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북한의 개혁과 개방, 즉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 경제관계 확대에 대한 지지 표명과 함께 대북 경협과 관련해 정부는 중국 당국과 공식·비공식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창지투 개발계획 및 북·중 양국의 접경지역 개발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경협은 북·중 경제협력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보완·협력하는 구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 경제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남북 상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왔다. 동시에 북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 한반도가 하나의 단일 경제권을 이루고, 남북경제공동체로 나아가서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북경협을 통해 점진적이지만 북한의 변화가 진행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이 갖는 이런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이 필수적이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남북경협과 북·중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등 대부분 영역에서 중첩되지 않았다. 일부 영역에서 남북경협은 북·중 경제관계와 경쟁구도 속에 놓여 있다. 중국과 한국은 의류·섬유제품의 대북 임가공 분야에 모두 진출해 다소간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생필품 등 소비재의 경우 중국제품이 북한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제품은 전혀 북한에 수출되지 않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도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접경지역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거의 국한해 북한과 협력해 왔다.

비록 남북경협이 북·중 경협과 중복되지 않지만 향후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중국과의 마찰이 야기된다면 남북경협의 발전은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 과정에서 중국의 대

북 진출 영역과 중복되거나 마찰이 예상되는 분야는 우회하거나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기존에 다소 경쟁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경쟁은 회피하고 상호 협력하는 자세로 남북경협을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북·중 경협과 중첩되지 않기 위해서 남북경협은 북한 저임금 노동력의 단순 활용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경협은 북한의 원자재와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경협의 추진방식을 남과 북의 산업 연계성이 강화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셋째, 북·중 경제협력사업을 양자간 사업에서 다자간 국제협력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중 양국 간 진행되는 협력사업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한국 및 동북아 주변국이 참여할 경우 빠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나진항 개발사업은 중국의 동해 출루권 확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중 간 진행되는 나진항 개발이 국제협력사업으로 확대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에는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북·중 양국이 개발에 나서고 있는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의 경우에도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사업으로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의 지원 및 협력 방침에도 신의주 지역(황금평·위화도)에 대한 중국 민간기업들의 투자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대북 투자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반응이 미온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우리가 중국을 설득해 이 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면 북한 서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북·중 경제협력사업의 국제화를 위해 우선 대북 진출의 거점 확

보라는 차원에서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및 창지투 개발계획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야 한다. 북한이 북·중 양국 경협을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는 학계, 기업,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연구 및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다국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북·중 경제협력사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북한 수출입선의 다변화, 북·일 경제관계의 복원, 북한-러시아 간 경제협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 대북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국을 활용해 남북경협을 동북아 국가들과 연계한 다자간 협력으로 확대·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한·중 경제관계의 영역을 중국이 서부대개발에 이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동북부 지역 개발과 연계해 확장하는 것이다. 동북3성 지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 한반도의 발전축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최근 한국기업은 동북3성, 특히 조선족자치주가 형성된 지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 등 일부 기업은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진출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기업의 동북3성 진출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기업의 중국 동북3성 진출과 투자 확대는 한·중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북·중 경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국기업이 우회적이지만 중국 동북3성을 거쳐 북한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한·중 경제관계가 중국 동북3성으로 확대될 경우 우선 남북한과 중국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런 사업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북·중 접경

지역에서 한·중 경제협력과 북·중 경제협력이 동시에 추진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남북한과 중국이 함께하는 3자 공동사업의 실행을 위해 남·북·중 3국 경협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향후 한국은 중국과의 경쟁적 대북 진출이 아니라 한·중 동반진출이라는 시각으로 남북경협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로 남·북·중 3국 육로(철도-도로) 연결, 중국-나진(청진)-남한 육상 및 해상로 개발 및 복합운송 시스템 구축, 백두산-연변자치주-나진을 연계하는 관광사업 개발, 제철산업 협력, 의류가공 협력, 북한의 기간산업 정상화 사업 공동 참여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한·중 경제관계의 영역을 중국 동북3성으로 확대해 남북경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한·중 상호 신뢰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역할 및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염두에 두면서 중국과의 전방위적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경협과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을 연계·발전시켜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공동경제권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천규 외.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2011. 3. 6.
- 배정호 외.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윤승현. 『두만강지역의 新개발 전략과 환동해권 확대 방안』. 춘천: 강원발전연구원, 2009.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평양: 법률출판사, 2012.
- 최수영 등. 『중국의대북한 정책: 영향력 평가와 대응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2010. 3. 4.
- KOTRA. 『차이나 마켓 31, 31개 성시 데이터북 동북부/중부편』. 서울: 코트라, 2011.
- 金鳳君 等著. 『東北地區振興与可持續發展戰略研究』. 商務印書館, 2006. 8. 1.
- 梁峰 主編. 『東北亞區域經濟發展与合作』. 中國財經出版社, 2007. 6. 1.
- 李向平 等著. 『通向復興之路——東北老工業基地振興政策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11. 1.
- 崔万田 等著. 『東北老工業基地振興与區域經濟創新』. 經濟管理出版社, 2008. 4. 1.
- 李玉潭 主編. 『中國東北對外開放』. 吉林大學出版社, 2008年 9月.

李鐘林·王國臣·崔文·李天國. 『大圖們江地區開發.』 延邊大學出版社, 2006. 5.

陳基斌. 『中國經濟特區.』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86.

鮑振東·曹曉峰. 『中國東北地區振興報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年 8月.

2. 논문

김부용·임민경.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동북3성.” 『중국어(省)별 동향 브리핑』. Vol. 3, No.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리은철. “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 인프라 확충과 중국의 역할.” 『통일문제연구』. 제34권.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진전과 국제협력과제.” 『수은북한경제』. 2009년 겨울호.

_____. “최근 개정된 북방특구법제의 개혁 개방성.” 『수은북한경제』. 2012년 봄호.

서종원. “북한 라선지역 개발이 동북아 교통물류체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경제리뷰』. 2012년 4월호.

윤승현. “중국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 2012 북한 개혁·개방 국제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서울경제신문사, 2012. 8. 28.

_____. “중국의 두만강지역 개발 현황과 시사점.” 『한중사회과학연구』. 제5권 2호, 2007.

_____. “최근 중국의 대북경협 실태와 전망.” 북한정책포럼 제18차 국제세미나 발표논문집. 매일경제신문사·한국정책금융공사, 2011. 4. 12.

- 이기동·전현준. “최근 북한의 정치동향과 향후 권력체제 전망.” 통일 전략포럼보고서.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2009. 5.
- 이창재.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6.
- 조명철·김지연. “2009년 북한 대외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_____. “제3기 김정일 체제의 특징과 2009년 예산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최명해·임수호. “중국의 ‘두만강 이니셔티브’와 정책적 시사점.” 『SERI 이슈 페이퍼』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2.
- 최성근.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 의 향방.”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 의 향방』.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2010.
- 최필수·노수현·박민수. “한·중 경제관계 20년: 회고와 향후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Vol. 12, No.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홍익표. “비핵화 진전이 북한의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홍익표·이종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5.
- 郭文君. “圖們江區域合作開發中延邊經濟發展戰略研究.” 延邊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 金向東·金奇憲. “圖們江地區開發開放再度升溫.” 『東北亞論壇』. 2008(4).
- 大圖們江區域合作開發戰略研究課題組. “大圖們江區域合作開發戰略的思考.” 『社會科學戰線』. 2006. 3.

- 東アジア貿易研究會.“北朝鮮の貿易動向と中國・ロシア等との經濟關係に關する調査.”日本貿易振興機構, 2012.
- _____.“中國と北朝鮮の經濟關係に關する調査.”日本貿易振興機構, 2011.
- 劉興華.“朝鮮政局與中國的東北亞戰略.”『現代國際關係』. 2012(01).
- 李宛蒸.“試論東北亞區域經濟合作与東北振興.”『東北財經大學學報』. 2008年 第2期.
- 林珮璟.“韓國と中國東北三省における經濟協力の現状と展望.”*ERINA REPORT*. No. 102, 2011.
- 徐 文.“東北振興戰略与中、朝、韓合作前景.”『東北亞論壇』. 2005年 5月.
- 石源華.“朝鮮半島戰略新平衡與中國的政策選擇.”『韓國研究論叢』. 2011(01).
- 王胜今于逢良.“論東北經濟振興振興過程中的政府職能.”『東北亞論壇』. 2006年 5月.
- 張東明.“關於中朝產業開發與合作問題的几点思考.”『東北亞論壇』. 2011(05).
- 朱永浩.“圖們江地域開發計畫.”『都市計畫』. Vol. 60, No. 1, 2011.
- 朱顯平.“中俄能源合作及對東北亞區域經濟的影響.”『東北亞論壇』. 2004(2).
- 朱顯平・李天籽.“新形勢下中國東北振興戰略同俄羅斯東部發展戰略的互動合作.”『東北亞論壇』. 2009年 9月.
- _____.“俄羅斯東部開發及其与我國東北振興互動發展的思路.”『東北亞論壇』. 2008年 9月.
- 祝濱濱.“当前影響東北亞區域經濟合作的主要問題.”『社會科學戰線』. 2006. 6.

- 玄東日·尹胜炫. “國東北地區港灣物流現狀与展望——以圖們江通海物流爲中心.” 『經濟管理』. 2006年 14期.
- 黃大慧. “中國發展有利于東北亞和平穩定.” 『東北亞學刊』. 2012(01).
- 孫永祥. “俄羅斯東西伯利亞和遠東地區開發前景及我國應采取的對策.” 『当代石油石化』. 2006(4).
- 張軍生·巴殿君. “圖們江區域開發与合作的政治經濟形勢.” 『金融論壇』. 2008. 5.
- 課題組. “大圖們江區域國際合作開發問題研究.” 『東北亞論壇』. 2006(4).
- _____. “大圖們江區域合作開發戰略的思考.” 『社會科學戰線』. 2006(3).
- 趙春子. “圖們江下游流域近50年徑流變化研究.” 延邊大學學報, 2008(4).
- 鄧 凱. “加快推動圖們江地區新一輪開發開放.” 『理論前沿』. 2008. 10.
- 鄒炜炜·陳怀海. “東北振興与東北亞經濟合作.” 國際關係學院學報, 2005年 第4期.
- 陸大道. “關於東北振興与可持續發展的若干建議.” 『北方經濟』. 2005年 第4期.
- 陳英姿. “東北亞區域环境合作与 東北振興.” 『東北亞論壇』. 2006年 1月.
- 韓興漆. “新形勢下圖們江區域經濟合作的發展對策.” 『東北亞論壇』. 2006(6).

3. 기타자료

『국민일보』.

『두만강보』.

『엔벤일보』.

『科學時報』.

『한국경제』.

『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 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
2009. 8. 30.

『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 2009.

『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工業篇』. 延邊州委員會, 2008. 7. 17.

『國務院辦公廳關於支持中國圖們江區域(琿春)國際合作示范
區建設的若干意見』. 國務院辦公廳, 2012 19号.

關於支持中國圖們江區域(琿春)國際合作示范區建設, 2012. 4. 13.

吉林省人民政府. 『吉林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个五年規劃
綱要』.

吉林省統計局. 『吉林省各市州區縣各年度政府工作報告』. 2008~
2012.

_____. 『길림성통계연감』. 1990~2011.

_____. 『엔벤조선족자치주통계연감』. 1990~2012.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중국통계연감』. 1990~2012.

黑龍江省統計局. 『흑룡강성통계연감』. 2003~2012.

遼寧省統計局. 『요녕성통계연감』. 2003~2012.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孫 雷.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上升爲國家戰略吉林醞釀東北亞
‘中部崛起.’” <<http://www.sina.com.cn>>.

鄒智威·黃艷麗.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規劃》8月30日已獲批.”
<http://www.xwhb.com/news/system/2009/09/01/010056141_02.shtml>.

『中朝經貿合作网』. <<http://www.idprkorea.com/>>.

<<http://www.jldofcom.gov.cn>>.

<<http://www.kita.net>>.

<<http://www.koreaexim.go.kr>>.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리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1)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논 총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 외	23,500원

기 타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이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운,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Study Series

비매품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기 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시십시오.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